

박사학위논문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유            품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Value-Education i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F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2018년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유            풍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Value-Education i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F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유 풍

유풍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문화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적 접근은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진정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을 이루려면,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정부터 상호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논리에 맞는 것이며, 실제 문화교육을 시행할 때에도 교육 목표에 이탈하거나 감가(坎珂)된 상황을 감소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문화교육의 목표를 문화 지식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이를 교육 대상인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문화내용이 한국어능력과 연계되어 수준별로 제시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의 분석 및 설정하는 데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이를 병행(並行)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였고 이는 모두 중국과 한국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상호문화적 능력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 연구의 상호문화능력과 구별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넷째,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역시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교육과정(즉,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크게 총괄 목표와 상호문화적 능력, 이 두 가지로 설정된다. 이 중 교수·학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목표는 상호문화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과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을 주로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용어인 상호문화적 능력은 기존 연구의 상호문화능력과 구별하여 사

용하며, 이는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으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에서는 이를 상호문화능력과 함께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중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에 따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분류하거나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과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 다루지는 가치관 내용을 추출하여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중국과 한국 관계 속에서 다루어 설정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접할 때, 중국문화와 유사한 내용부터 학습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설정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연결하여, 기존 연구과 현행 한국어(문화)교재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케이케이론(즉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가치관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치관교육인 만큼 교육 자료로서의 특수성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국문화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며 유의미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보다 더 다양한 문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상호문화적, 가치관, 가치관교육, 상호문화능력, 문화능력, 상호문화적 접근, 중국과 한국의 상호관계, 중국인의 가치관, 한국인의 가치관

#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사 검토 .....	3
1.2.1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	4
1.2.2 중국의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	6
1.2.3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에 관한 연구 .....	9
1.3 연구 절차 및 방법 .....	14
II.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 .....	18
2.1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	18
2.1.1 문화의 개념 .....	19
2.1.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	26
2.1.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	40
2.2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	63
2.2.1 가치관의 개념 .....	63
2.2.2 가치관교육 논의 양상 .....	70
2.3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 .....	75
III. 상호문화적 접근을 위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현황 .....	79
3.1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 .....	82
3.1.1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	82
3.1.2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 및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	93
3.1.3 소결론 .....	119
3.2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 .....	121
3.2.1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	122
3.2.2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	135
3.2.3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	142
3.2.4 소결론 .....	147

3.3 가치관교육의 문제점 .....	148
3.3.1 문화교육 목표 .....	148
3.3.2 가치관교육 내용 .....	149
<b>IV.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b> ....	<b>152</b>
4.1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	153
4.1.1 한국문화교육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 .....	155
4.1.2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 .....	166
4.2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 .....	170
4.2.1 가치관교육 내용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 .....	171
4.2.2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	177
4.3 한국문화교육 목표에 따른 가치관교육 모형 .....	181
<b>V. 결 론</b> .....	<b>196</b>
<b>참 고 문 헌</b> .....	<b>199</b>
<b>ABSTRACT</b> .....	<b>214</b>

## 표 목 차

[표 1]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사전에서의 문화의 개념 .....	20
[표 2] 문화의 다양한 개념들 .....	25
[표 3] 문화적(cultural)에 관련된 용어들 .....	43
[표 4] ‘상호문화적’과 ‘다문화적’의 차이점 .....	45
[표 5]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사전에서 가치관의 개념 .....	65
[표 6] 가치관의 여러 이론들 .....	72
[표 7] 한국문화교육에서 제시된 가치관 내용 .....	74
[표 8] 분석 자료 .....	82
[표 9]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등급별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 .....	86
[표 10]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등급별 상호문화능력 .....	87
[표 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의 등급별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 .....	90
[표 12]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	93
[표 1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의 가치관교육 내용 .....	96
[표 14] 중국과 한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 방법 .....	98
[표 15] 공자학원의 분석 대상 .....	100
[표 16] <장선한어 1~6>의 교재 구성 목록 .....	101
[표 17] <중국문화상식>의 교재구성 목록 .....	104
[표 18]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부분의 내용구성 목록 .....	105
[표 19]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	106
[표 20] 세종학당의 분석 ‘누리-세종학당’ 대상 .....	108
[표 21] <세종한국어 1~4>의 교재구성 목록 .....	110
[표 22] <세종한국어 5~8>의 교재구성 목록 .....	111
[표 23] <세종한국문화1>의 교재구성 목록 .....	112
[표 24] 세종학당 온라인 문화 부분의 내용구성 목록 .....	113

[표 25]	〈세종한국어 1~8〉의 가치관교육 내용	115
[표 26]	온라인 ‘세종한국문화 1’와 ‘세종한국문화 2’의 가치관교육 내용	116
[표 27]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116
[표 28]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117
[표 29]	중국의 국제통용교육과정과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119
[표 30]	한국의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4단계〉와 세종학당의 가치관 교육 내용	120
[표 31]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121
[표 32]	중국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 목표	129
[표 33]	한국 도덕과 학교 급별 목표	134
[표 34]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수행하는 능력들 대조	143
[표 35]	중국의 도덕 교육과정의 가치관	146
[표 36]	한국의 도덕 교육과정의 가치관	147
[표 37]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147
[표 38]	Ⅲ장에서의 분석자료	150
[표 39]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151
[표 40]	중국과의 한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153
[표 41]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수행하는 능력들	161
[표 42]	2030 세계 교육 방향에서 제시된 목표, 내용 및 능력	168
[표 4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된 문화능력	170
[표 44]	중국과 한국의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	177
[표 4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80
[표 46]	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	181
[표 47]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 내용	181

## 그림 목 차

[그림 1] Geert Hofstede의 인간 정신 프로그램에서의 세 수준.....	25
[그림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변천과정 .....	28
[그림 3] 관점, 관행, 산출물간의 관계.....	34
[그림 4] Knapp(1999)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것’ .....	48
[그림 5] Byram(1997)의 상호문화능력 모형 .....	53
[그림 6] Deardorff(2006)의 상호문화능력의 피라미드 모형(Deardorff, 2009: 13에서 제시한 내용) .....	56
[그림 7] UNESCO(2013)에서 제시한 상호문화능력의 나무모형 .....	58
[그림 8] Geert Hofstede의 문화 형태 .....	68
[그림 9] 문화지도-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2010-2014) .....	70
[그림 10] 문화지도-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5 (2008).....	71
[그림 11] 가치관교육 내용의 제시 원칙 .....	77
[그림 12] 상호문화와 가치관의 관계 .....	78
[그림 13] 제2언어교육에서의 가치관 제시 순서.....	79
[그림 14] 분석 내용 및 절차 .....	81
[그림 15]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목표 구성 관계도 .....	86
[그림 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적용 연구(4단계, 2017)>의 문화 교육 목표.....	92
[그림 17]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기준 .....	156
[그림 18]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 방법 .....	157
[그림 19]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 .....	160
[그림 20] 상호문화적 능력 .....	173
[그림 21]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방법 .....	175
[그림 22]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원칙.....	176
[그림 2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	183
[그림 24] 한국문화교재의 제목 및 학습목표에 대한 제시.....	186
[그림 25]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목표 및 내용의 제시 .....	188

[그림 26] 한국문화교재의 활동에 대한 제시 .....	189
[그림 27] 교수·학습의 1단계 - 교육 내용(주제) 제시.....	193
[그림 28] 교수·학습의 2단계 - 교육 내용 활성화.....	194
[그림 29] 교수·학습의 3단계 - 자료 수집 .....	195
[그림 30] 교수·학습의 4단계 - 과제의 정리.....	196
[그림 31] 교수·학습의 5단계 - 마무리(평가).....	197
[그림 32] 교수·학습의 결과물 .....	198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의식적·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바라보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문화의 중계자 역할을 발휘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국제화 및 다원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

외국어학습자들은 목표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해당 언어권의 사람들과 융화(融和)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목표언어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Milton J. Bennett(1997)는 외국어의 언어체계에 능숙하지만 해당 언어에 포함된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스개로 ‘유창한 바보(a fluent fool)’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는 대상 언어를 이해하지만 해당 언어권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소통하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sup> 또한, Jepersen(1961:9)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는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국 의 사상이나 지식 또는 문화와 문학,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서로 다른 문화권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결정한다. Geert Hofstede는 문화를 ‘양파’로 비유하

---

1) 戴海英(2011), 재인용.

2) 손정(2012), 재인용.

여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상징, 영웅, 의식, 가치관이다. 이 중에서 가치관은 문화의 핵심이며 국가 간 문화 차이는 가치관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은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목표 언어권 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목표 언어권 사람들의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 중에 특히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가장 배우고 싶다는 것을 다음 몇 가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런샤오리(2013)에서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중시해야 하여 더욱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호(2016)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학습자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1, 2위는 취업 및 한국문화의 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연(2010)에서는 중국인 한국어학습자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습요구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치관 문화가 학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로 나타났다. 서옥란, 김송죽(2012)은 박춘연(2010)의 조사결과를 다시 강조하면서, 문화교육에서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문화 항목인 가치문화, 예절문화, 언어문화 분야를 중점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김선미(2004)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과 한국 동포에게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학습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다양한 문화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한다. 그가 조사한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 결과에서 먼저 배우고 싶은 문화 항목 중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1위로 나타났다.<sup>3)</sup>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목표언어의 학습은 바로 목표언어권 문화의 학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교육현장 혹은 한국문화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문화교육 현장에서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의 부수적인 것으로

---

3) 강현화(2007), 재인용.

로 보아 수업하거나 문화의 기초 지식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교수자의 문화 지식 부족하여 문화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 황인교(2017)는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논의는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들러리의 모습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의 핵심인 가치관 부분은 한국어학습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이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문화교육에서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한국문화교육에 있어 한국어 학습과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문화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능력을 습득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일상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학습을 통하여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인식하고, 문화의 중개자 역할을 발휘하여,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의 국제화 및 다원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 한국문화교육과 가치관교육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의 현황과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 1.2 연구사 검토

연구사 검토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국인 학습자에 관한 한국문화교육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중국인 학습자 및 중국에서의 한국문화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화교육 내용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변수를 도출한다. 나아가 연구사 검토를 토대로 하여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 반영하여 개선안이나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1.2.1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문화교육<sup>4)</sup>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언어 학습자 대상의 문화교육도 같은 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간의 연구에서 ‘무엇을’의 문제는 제스처, 어휘 (색깔, 친족, 관용 표현 등), 화행(문법과 연계한 내용), 문화 내용(정보 성취, 행동 문화), 문화 이론(문화 적응,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정체성) 등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화행 교수는 문화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비교적 활발히 다루어져 왔으며, 문화 연구는 대조 문화적 접근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많았다. ‘어떻게’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언어 교수 현장의 실정이나 태도와 연계되어 있다. 주로 현장 학습을 통한 문화교육이나 언어 교재의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형식으로 주로 읽기 자료나 말하기 활동 등이 다루어져 왔는데, 선행 연구들은 ‘무엇을’에 치중되어 있고, ‘어떻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주로 아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 .거시적 관점 : 언어와 문화의 일반론 한류와의 연관성, 다문화 사회 개념 적용, 국제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 정립
- .미시적 관점 : 교재 개발 방안, 교수 항목 설정, 요구분석, 문학작품. 매체를 통한 실제 수업에의 적용

조항록(2004:292)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교육 관련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편협한 양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논의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위론적이고 원칙론적인 접근, 교수 방법론, 내용 구

---

4) 강현화. 원미진. (2017) 재인용.

성론 등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학습자 요구 분석, 교육 자료 개발,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문화 능력 등은 아직 논의의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또한, 국어학 전공자는 국어 문화론 중심으로, 일반 문화론 접근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의 유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지적하였다.

강승혜 외(2010:36)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교육 방안으로 가르쳐야 할 문화 항목 및 내용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한 후에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별로 문화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기존의 초·중·고급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서 교재나 교과 과정에 들어갈 문화교육 내용을 범주화하고 그에 근거하여 항목을 수준별로 선정하고 배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법으로는 수준별로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는 수업을 제시하였다. 5)

강승혜 외(2010)는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시적이고 귀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국면이 문화이므로 어떤 내용이 한국 문화인가 아닌가, 그리고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어떤 계층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르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가르칠 때 그런 행동과 사건의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함의를 살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황인교(2017)는 ‘문화가 언어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들러리의 모습이고, ‘어떻게’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렇게 이론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해도 교사는 교실에서 문화를 빼고 수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5) 이 논문에서는 문화교육방법의 문제점으로 기존의 언어 수업과 유사하거나 학습자의 목표어 이해 능력의 부족과 같이 주요한 변인을 간과하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문화능력 수준의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능력과 연계된 문화 내용이 수준별로 분리된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문화능력을 교재의 문화 내용에 근거하여 수준을 선정할 때, 교재의 등급은 문화능력이 아니라 한국어능력을 나타낸 것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집단별로 문화능력의 숙달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에 맞는 문화 중심의 수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문제의 해결책으로 문화는 실제 언어 사용과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따로 가르쳐야 하며, 학습할 어휘 및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무엇을’에 포함되는 제스처·화행·문화 이론, 문화 내용, 교수 방법론, 내용 구성론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에 포함되는 학습자 요구분석, 교육자료 개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문화 능력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보다 빈도 높게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의 유리 현상이다. 국어학 전공자는 국어 문화론 중심으로, 일반 문화론 접근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용이 쉽지 않다. 문화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셋째, 문화교육은 연구와 교수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문화교육은 현장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언어 교재의 읽기 자료나 말하기 활동과 같은 부가적인 내용으로 다루진다. 다섯째, 교육내용 설정의 오류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중·고급의 한국어교재를 분석해 문화교육 내용을 범주화하고 선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과 연계된 문화 내용을 언어 수준별로 분리된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문화능력 수준의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여섯째, 외국어교육의 교수법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언어 수준별로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는 수업으로 기존의 언어 수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이해 능력의 부족과 같은 주요한 변인을 간과하고 있다.

### 1.2.2 중국의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을 언급한 연구도 1980년대 말부터 일찍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무려 100편정도의 연구논문들이 있다. 이 논문들은 문화교육 일반론, 교육내용 및 교수법, 교육자료(교재) 등으로 나누어 보면 90편 정도가 일반론과 교수법에 관한 논문이고 교재에 관한 논문은 10편이었다.

런샤오리(2013)에서 한국어교육의 현장 수요와 거리가 먼 교육과정인 문

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문화교육을 중시하는 차원 높은 한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 한국어교육은 아직까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한국인의 의식 구조나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 대략 85%의 졸업생들이 한국회사나 한국회사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회사에 취직하였다. 예컨대, 장차 한국 회사에 취직할 학생이 한국의 기업문화를 모르면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회사 취직에 성공하였지만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 둔 사례가 많다. 또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한 단계 높은 한국어를 배우려면 언어와 문화 지식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중 교수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어학과의 젊은 교수진은 대부분 한국어전공 출신이며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젊은 교수진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부족과 연구 능력 저하, 전공 지식과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정작 교육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념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서옥란, 김송죽(2012)에도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수진 문제를 지적하였다. 비교적 일찍 한국어학과를 설립한 학교의 교수진은 조선족 고급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어학과의 교사는 대부분 금방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사들인데, 그 중 일부는 한족교사들도 적지 않으며 현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어교사는 교수의 주도자로서 중한 문화의 중개자와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 자체가 한국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문화 지식에 대한 전환과정에서 서로의 차이가 생기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즉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에 침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교학 중에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결핍으로 문

---

6) 각 대학 한국어학과의 개설과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뚜렷한 특색을 찾기 어렵다. 학기 배당과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1~2학년에 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문법 등 기본적인 언어 지식과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3~4학년에 주로 한국 문학, 한국어 어휘학, 한국어 언어학, 한국 문학작품 읽기, 한국 신문 읽기 등과 한국 문학 지식, 고차원적인 회화 능력과 쓰기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경제무역 상식과 기본적인 용어 등을 교수한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문화에 대한 교과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화배경지식을 주동적으로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통역과 의사소통에는 문제없으나 조금 더 깊은 경제, 문화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고급인재가 적다. 또한 최근 한류의 붐으로 많은 한국드라마와 영화들이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데 자막이나 더빙의 통역은 이상적인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수준이 낮은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각 대학에서 쓸 수 있는 문화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내용은 교사가 손수 준비해야 하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조절하기도 한다.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 많은 강의시간을 담당하고 있고, 본인이 한국문화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자료 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며,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거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교사진이 부족한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전공이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경험 했던 교사들을 ‘한국문화’관련 강의를 담당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였는데 문화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해야 하며 중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요소부터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 학습은 목표 사회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문화적 이해, 태도, 수행기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박춘연(2010)에서는 학습자 요구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문화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가치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 학습자들은 문화교육이 국제협력정신과 결합하여 매우 적극적인 학습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학습을 통해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민족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문화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여,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대한 학습은 한국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에 문화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문화의 보편성 및

7) 한국에 유학을 왔거나 교환학생으로 온 중국 학생들을 보면 중국에서 2년간의 한국어 학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적절한 호칭어와 경어를 사용할 줄 모르며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한국인과 갈등을 맺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수업에서 이러한 일상문화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덜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성을 다룰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념을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

이상 연구사의 검토를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은 소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한국 회사나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의 자막이나 더빙을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수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또한, 중국 한국어교육에서 가치 관념의 교육은 교학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교수진 자체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결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차이가 생겨 문화를 주동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과 교육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념이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한국문화에 관한 교원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점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1.2.3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위 양식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 사고방식에 대한 내용은 논의는 많지 않다.

한국어교육에서 가치 관념과 관련된 연구는 강현화(2007), 박숙영(2007), 홍문주(2010), 유문명(2012), 서경혜(2013), 최윤영(2017), 김태운(2017) 등 있다.

강현화(2007)에서는 문화교육에 있어 가치적 측면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인 5C 중 '문화 터득(Cultures)'을 살펴봄으로써 '가치문화'란 개념을 내렸다.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웹 교재를 개발하며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웹 강의의 목적은 대상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한 정보과 지식

---

8) 이 논의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의 소론을 인용하여 중국 내 한국어학과 교학의 중점은 한국문화의 중핵을 이루는 가치관, 도덕관, 사고방식, 민족심리 등의 심층적인 요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을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교수방안은 ‘도입 - 문제제기 - 문화현상 - 문화 분석 - 문화 함의 - 문화 대조 - 문화 키워드 찾기 - 관련 담화 표현 - 마무리 - 생각해보기 -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항목의 제시는 매우 신선한 시도였다. 학습자가 웹 강의를 통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에 관련 참고문헌을 통해 도움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유문명(2012)은 중국인을 위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응답자는 한국 가치문화 학습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학습 요구가 미치지 못한다고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문화 충격을 받은 영역은 일상생활문화 영역과 언어문화 영역이 아니라 가치문화 영역이고 문화 충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이러한 학습자 요구 조사를 참고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서경혜(2013)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가치체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인의 가치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21편의 드라마를 선정하여 Condon(1980)의 가치 지향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전통적 가치체계인 집단주의, 권위주의, 인본주의, 자연수용과 한국의 근대화와 함께 확대된 근대적 가치체계인 개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 자연통계로 체계화하였다. 이 가치체계에 의한 한국문화의 특성을 제시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제시

9) 이 논의에서는 가치문화를 ‘집합주의’, ‘권위주의’, ‘남성중심’, ‘불확실성회피’ 4개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남성중심’, ‘집합주의’ 순으로 학습 요구가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들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항목: ‘나이와 서열’, ‘종교관’, ‘빨리빨리문화’, ‘우리주의’
- 학습자들이 큰 차이 느끼지 않는 항목: ‘직업관’, ‘결혼관’, ‘효의 중시’, ‘가족공동체 의식’
-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항목: ‘배타성’, ‘여성에 대한 차별’, ‘솔림문화’, ‘우리주의’
-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항목: ‘효의 중시’, ‘예의 중시’, ‘옹집력’, ‘건강관’
- 높은 학습이 요구되는 항목: ‘홍문화’, ‘나이와 서열’, ‘체면과 타인 의식’, ‘솔림문화’, ‘우리주의’, ‘배타성’, ‘관계중시’, ‘통과의례 중시’, ‘고백락문화’, ‘예의 중시’, ‘교육 중시’, ‘가부장제’, ‘여성에 대한 차별’, ‘빨리빨리문화’, ‘동질성추구’
- 낮은 학습이 요구되는 항목: ‘가족주의 경영관’, ‘직업관’, ‘결혼관’, ‘정의 중시’

하는 정도에 그치고 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다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최운영(2017)은 한국문화 교육 항목 분석을 중점적으로 한국 내에 출간된 한국어교재 11종에 나타난 문화 내용을 분석하여 수준별로 한국문화 교육에서 다를 수 있는 문화교육 내용 항목 및 가치문화 교육내용 항목을 선정하여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치문화 교육내용은 수준별 한국문화 내용항목 및 빈도수 조사를 토대로 박숙영(2007), 강현화(2007)에서 제시한 ‘가치문화 내용 요소’를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문화 내용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통해 다를 수 있는 가치문화를 추측하여 제시한 것<sup>10)</sup>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김태윤(2017)는 한국문화 교재들에 나타난 여러 주제들을 문화 가치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가치체계별로 추가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한국문화 교재들이 주제와 이에 따른 내용을 선정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문화 주제들을 가치체계에 따라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국어교육 중 문화 분야의 가치 관념에 중점을 둔 것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어교육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 체계에 대한 연구나 가치문화 교육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교재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가치관교육의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교재의 각 단원 주제를 통해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인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치관의 개념 및 가치체계의 분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다음 이론에서 우선 가치관의 개념 및 가치체계의 분류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한 후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상 한국문화교육 및 가치관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

10) 최운영(2017)는 초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다음에 밥 한번 먹자’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거절의 의미나 한국인 체면과, 배려, 눈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통해서 한국인의 체면문화를 알 수 있다.

## 1)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들:

- ① 대부분 논의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위론적이고 원칙론적인 접근, 교수 방법론, 내용 구성론 등에 치우쳐 있다.
- ② 국어학 전공자는 국어 문화론 중심으로, 일반 문화론 접근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어교육과의 유리현상이 나타난다.
- ③ 문화교육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여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 ④ 문화교육 내용은 기존의 초·중·고 급의 한국어교재를 분석해, 문화교육내용을 범주화하고 선정한다.
- ⑤ 문화내용이 한국어능력과 연계돼 수준별로 분리된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⑥ 중국에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90% 정도가 일반론과 교수법에 관한 논문이고, 교육내용이나 교육 자료에 관한 논문이 그 나머지이다.

## 2) 가치관교육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들:

- ①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 및 가치관교육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 ② 교재 분석에서 교재의 각 단원 주제 항목만을 통해 가치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였다.
- ③ ‘가치관’이라는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보면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위론적이고 원칙론적인 접근, 교수 방법론, 내용 구성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현정(2015)은 그동안의 문화교육 관련 연구가 주로 문화를 학습 내용의 범주로 설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골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한국 문화를 ‘왜’ 배우는가, 즉 그들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궁극적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당위적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에 대해 질문을 붙인다.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왜 배우고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한국문화를 왜 가르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에서 출발하여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문화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은 가치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문화는 매우 광범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문화교육을 연구하는 데에 편파적(偏頗的),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자료 분석,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도록 한다.

문화교육 내용은 언어숙달능력과 같이 간주하여 등급별 한국어교재를 분석해 범주화하고 선정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는 문화교육이 언어교육의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교육은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교육 내용에 접근할 때 언어 수준과 통일시켜 연계하지 않고 문화 그 자체로 보며, 문화의 역동성 등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하는 데에 모국 문화가 전제되므로 학습자의 모국 문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문화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관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관’이라는 용어 사용의 혼란이다. 또, 문화교육에 대해 연구한 경우는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치관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논의할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 교육이므로 다음 장에서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

적 접근'과 '가치관교육'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교육 내용인 가치관에 있어 선행연구의 용어 사용 혼란을 해결하여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1.3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한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감안하여 대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사 검토에서는 한국 문화교육과 가치관교육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밝혔다. 즉,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를 제안하고 여기서 출발하며,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을 밝히고 연구 범위를 제시하였다.

II 장은 논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할 것이다. 위의 I 장에서 제시했듯이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2.1은 문화교육에 있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을 검토한다. 우선, 문화의 개념을 검토하여 기술하고 문화교육은 언제부터 중시되어 왔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등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으로 들어와 문화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의 중요성 및 발전 방

향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문화교육 목표를 분석과 설정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화교육과 이를 연구하는 데에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이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출하여 이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2는 문화교육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 문화의 다양한 내용 중 핵심인 가치관이 교육에 있어 어떠한 양상 또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하고 이의 뜻을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각 혹은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교육에 있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가치관교육 내용의 분석과 설정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2.3은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가치관교육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가치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인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다.

Ⅲ장은 I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교육 및 문화교육연구에 있어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에 기반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해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I장에서 제시된 기존 연구들의 문화교육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본 연구는 먼저 문화교육 내용에 접근할 때 언어 수준과 통일시켜 연계하지 않고 문화 그 자체로 볼 것이며, 다음으로 문화의 역동성 등 특성을 살리고자 한다. 또한,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하는 데에 전제되므로 필수 요소가 되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 등과 같은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문화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즉,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호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병행(並行)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과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3.1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와 가치관교육 내용’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3.2는 자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 두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문화능력을 포함한 문화교육의 목표 및 중국과 한국의 교육에서 다루는 가치관 내용을 도출될 것이다. 이를 중국과 한국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3.3에서는 가치관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제안하고 분석 데이터를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IV장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IV장은 I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완 혹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I장에서 밝혔던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에 되돌아가 답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4.1‘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4.2‘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4.3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간단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III장에서도 출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교육 현황을 기초자료로 하여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할 것이다.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모국 문화가 전제이고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하며 이는 문화교육의 전 과정에 관통하고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교육에 있어 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나 문화교육 내용(즉,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할 때부터 역시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이 관통하여야 진정한 상호문화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을 한다면 문화교육 목표 및 내용의 설정할 때부터 상호문화적 접근을 해야 문화교육할 때 교육 목표를 이탈하거나 감가(坎峒), 정체되는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V장은 앞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하여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하여 중국인학습자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며 유의미한 연구가 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제시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Ⅱ.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

Ⅱ장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 장에서 제시했듯이 본 연구의 논제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2.1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과 2.2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3에서는 두 내용을 연결하여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본 연구의 목적인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을 연구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물이든 그에 대해 논의할 때 그의 개념부터 내리는 것이 유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 근거를 살피기 전에 먼저 ‘문화’와 ‘가치관’의 개념부터 정하고자 한다. 문화 및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어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대표적인 언어사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한국어의 대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sup>11)</sup>, 중국어의 대표 사전은 <現代漢語詞典><sup>12)</sup>, 영어의 대표 사전은 <Oxford English Dictionary><sup>13)</sup>이다. 이에 더하여 ‘문화’ 및 ‘가치관’이라는 개념을 활발하게 다루는 분야(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2.1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이 절은 문화교육에 있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어떠한 목표를

---

11) 《표준국어대사전》(標準國語大辭典)은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사전이다.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한국어사전이다.’(‘국가기록원-한글이 걸어온 길’ 재인용.)

12) <現代漢語詞典(第7版)> 재인용. ‘중국의 오랜 명성을 지닌 하나의 규범적인 사전이다.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편집되어 어휘의 규범을 결정하므로 목적이며, 표준어를 홍보하여 한어의 표준화를 촉진한다.’

13) 시사상식사전 재인용. ‘1857년 영국 언어학회의 발의로 1천 수백명의 학자가 동원돼 1928년에 초판이 완성된 영어사전으로, 미국의 웹스터 사전과 함께 대표적인 영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어 출판물이나 영어로 쓴 문서에서 인용문을 발췌하여 어휘의 뜻을 정의하는 방식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으며, 어원상의 분석, 철자법, 발음 등을 알려준다.’

달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검토하여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중시되어 왔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등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적 접근’의 중요성 및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입각한 점과 지향점은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에 있음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문화교육 및 문화교육연구에 있어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에 기반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 2.1.1 문화의 개념

‘문화’란 것은 무엇일까? 이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문화는 영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두세 가지 단어들 중의 하나이다. ... 왜냐하면 이제 여러 구별이 확연한 지적 분야와 사유 체계에서 모두 그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므로 우선 언어 사전에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 세 언어의 대표적인 사전에서 ‘문화’의 개념을 찾아보았다. 세 언어 사전에서 ‘문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4) Raymond Williams, 1976, pp76~77.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중국어 〈現代漢語詞典(第7版)〉	영어 〈Oxford English Dictionary〉
문 화	<p>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p> <p>②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p> <p>③ 학문을 통하여 인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p>	<p>① 인간이 사회적,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창조된 물질적 자산(資産)과 정신적 자산(資産)의 통합, 특히 문학 및 예술 교육 과 학과 같은 정신적 자산(資産)을 말한다.</p> <p>② 문자(文字)를 사용하는 능력 및 일반 지식을 의미</p> <p>③ 고고학 용어, 동일한 역사적인 시기의 위치에 따라 이전되지 않는 유물의 복합체. 동일한 공구, 기구, 동일한 제조 기술 등. 동일한 문화의 특징을 의미</p>	<p>① 인간의 지적 성취한 예술과 다른 징후들이 집합적으로 간주되는</p> <p>②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의 생각, 풍습 및 사회적 행동</p> <p>③ (생물학) 영양물을 함유 한 인공 배지에서 박테리아, 조직 세포 등의 배양</p> <p>④ 식물 재배</p>

[표 1]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사전에서의 문화의 개념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 각각의 사전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어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다른 언어의 사전들보다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세 언어에서 ‘문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미를 확인될 수 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이룩한 물질적 및 정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가 최소한 가져야 할 성격이다.

인류가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고작 100년밖에 안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문화’라는 표현의 뿌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한국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것에 대한 이름표를 한국의 역사 안에서 길어 올리지 못했다. 한국어 국어사전이나 철학사전에서 문화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곳엔 서양의 문화 개념에 그 근원이 있다.<sup>15)</sup>

중국은 문화(文化)에 대한 기록은 ‘문(文)’과 ‘화(化)’는 따로 사용하여 동한(東漢)의 <설문해자(說文解字)>등 문헌에서 있다. ‘문(文)’과 ‘화(化)’를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서한(西漢)의 <설문·지무(說苑·指武)>에서 기록한 바가 있다.<sup>16)</sup> 여기서의 ‘문화(文化)’의 의미는 혹(或) 자연과 대응하거나 혹(或) 야만(野蠻)과 대응하여 말한다. 한어의 시스템에서 ‘문화(文化)’는 흔히 ‘무화(武化)’와 대응하여 문(文)으로 교화(教化)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9세기말쯤의 ‘서학동점(西學東漸)’<sup>17)</sup>에 의해 서양의 ‘culture’라는 단어를 접하여 이를 학자들은 ‘文化’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文化’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을 모두 서양의 ‘culture’를 번역해 온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 ‘culture’의 개념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문화(culture)는 라틴어 ‘cultura<sup>18)</sup>’에서 유래하여 영어에서 초기 사용에 있

---

15) 처음에 서양의 문화 개념인 ‘culture’를 중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culture’를 ‘사물(事物)’이라고 이해하였으나 사물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다음으로 ‘수련(修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어 지금의 ‘문화(文化)’라는 개념이 정착됐다.

16) 西汉刘向将“文”与“化”二字联为一词，在《说苑·指武》中写道：“圣人治天下也，先文德而后武力。凡武之兴，为不服也。文化不改，然后加诛。”“文化内辑，武功外悠”（《文选·补之诗》）。

17) 서학동점(西學東漸)은 “서양 학문이 동양으로 점차 들어오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18) ‘문화(culture)’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 ‘colere’인데, 이 동사는 ‘땅을 갈다’, ‘경작하다’라는 의미였다.

어서 동물과 농작물의 '재배(cultivation)', 종교적 숭배와(따라서 'cult'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었다.<sup>19)</sup> 문화라는 개념은 수 세기에 걸쳐 발달된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sup>20)</sup>

Raymond Williams(1976:80)에서 '문화'를 이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 뜻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는 첫째, 예술과 예술적 활동, 둘째, 일차적으로 상징적 특징을 지니는 특정한 생활 방식, 셋째, 발전의 과정을 뜻한다.<sup>21)</sup>

### ① '예술과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문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문화를 '지적이고 특히 예술적인 활동의 실천이나 작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는 '음악, 문학, 회화, 조각, 연극, 영화'를 묘사하는 단어다(Williams(1983b:90)). 이런 의미의 문화는 흔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련된' 활동을 뜻한다.

### ②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문화는 모든 것이며 또한 모든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 문화 연구들이 있으며, 특히 인류학적인 관점에 기울어진 문화연구가 그렇다. 19세기 영국의 인류학자 E. B. Tyler(1871:1)는 문화를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에서는 사회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산물인 동시에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과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

중세 후기에 최초로 문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곡물 경작과 동물 사육, 즉 농업을 뜻하였다. 그 후 문화는 정신의 계발을 묘사하는 단어로 변

---

이 동사에서 과거분사 'cultura'가 파생했고, 이 과거분사가 중세 프랑스어를 거쳐 15세기 영어로 들어가 'culture'가 되었다. (장한업, 2018재인용. p265)

19) Philip Smith, (2003) 재인용.

20) 16세기 사람들은 이 'culture'를, '교육을 통한 교화'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는 19세기 초부터는 '문명의 지적 측면'이라는 의미로, 1867년부터는 '한 국민(또는 민족)의 집단적 관습과 업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search?q=culture>)

21) Elaine Baldwin 외 4명, 2004, p25, 재인용.

화하였다. 문화라는 단어가 이런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되자 후에 개인의 능력 개발 전반을 포함하게 되었고, 나아가 사회적·역사적 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sup>22)</sup>

이 세 가지 의미의 문화는 각자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예술적 또는 지적 활동은 보통 인문학자들의 연구 영역으로, 생활 방식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의 영역으로, 문화 발전은 역사적 문헌과 방법론을 사용하는 역사학자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문화가 처음 그 모습을 취한 형태는 지배계층의 삶의 취향으로서 ‘예술과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문화였다. 그것이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 사회를 특징짓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로까지 개념의 외연이 커졌다. 이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을 고려에 넣든 사회를 고려에 넣든, 개인과 사회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며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한다는 ‘과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 개념이 그 밑바탕에 깔리게 된다. 인간이 과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는 발전되고 진보되어 간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 안에는 개인의 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사회적, 역사적 과정 전반이 포함된다.(엄정식 외6명, 2012 ;38~39)

이 중에서 E. B. Tyler(1871:1)는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에 대해 정의한 것은 가장 오래된 정의이자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통용되고 있다.<sup>23)</sup>

미국의 인류학자 Kroeber & Kluckhohn(1952)은 E. B. Tyler 이후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철학자 등이 내린 정의를 분류해 보았는데, 그 수는 무려 164개에 달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정의가 존재했다는 것은 E. B. Tyler 이후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에 문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합의 부재의 문제는 다시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결로 남아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22) Williams, 1983, pp90~9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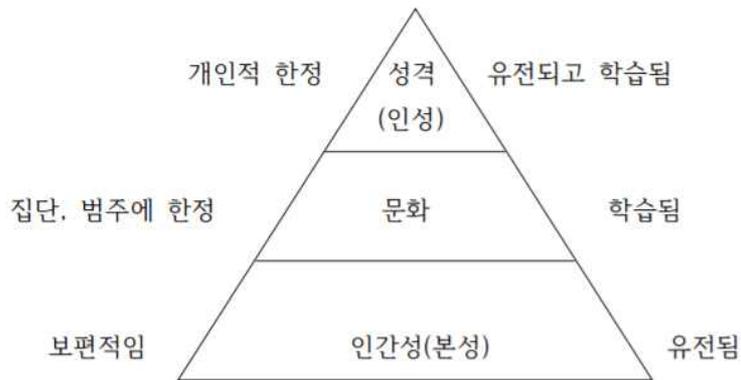
23) " the culture is defined as: a completed system including knowledge,faith,art,law,morality custom,and all the abilities and habitits from which a social member would aquire."

Verbunt(장한업 역, 2012:18)는 문화는 기술할 수 있어도 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sup>24)</sup>

이상을 보면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란 함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인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문화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UNESCO(1992: 5)에서 문화는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모든 징후들(signs)... 또한,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제시하였다. UNESCO(2006: 12)에서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문화는 개인 및 사회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사회적 응집력의 틀 내에서 집단 정체성의 조화(reconciliation)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문화 논의에서 개인의 사고 방식, 믿음, 감정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방식을 패턴화하는 모든 요소가 언급된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Geert Hofstede(2014)는 인성, 문화 및 인간성에 대해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1] Geert Hofstede의 인간 정신 프로그램에서의 세 수준

24) 장한업, 2017, 재인용.

문화를 '정신의 소프트웨어'<sup>25)</sup>라고 정의하며 이는 인간이 자라고 생활 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문화는 한 집단 또는 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른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들과 구별케 하는 집단적 정신 프로그램이다. 문화는 학습되는 것이지 유전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전인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여 인성, 문화 및 인간성에 대해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문화는 사람간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 현상이며 집단 간의 심리적 경계기능을 한다.<sup>26)</sup>

이상 '문화'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제시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야	의미
언어사전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것
E. B. Tyler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
UNESCO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모든 징후들(signs) 또한,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됨 (개인의 사고방식, 믿음, 감정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방식을 패턴화하는 모든 요소)
Geert Hofstede	한 집단 또는 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른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들과 구별케 하는 집단적 정신 프로그램

[표 2] 문화의 다양한 개념들

본고에서는 문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5) 정신 소프트웨어 주입은 가족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 이웃, 학교, 서클, 직장, 지역사회에서도 일어난다. 정신 소프트웨어를 습득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면 정신 소프트웨어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26) 최성욱, 2015, p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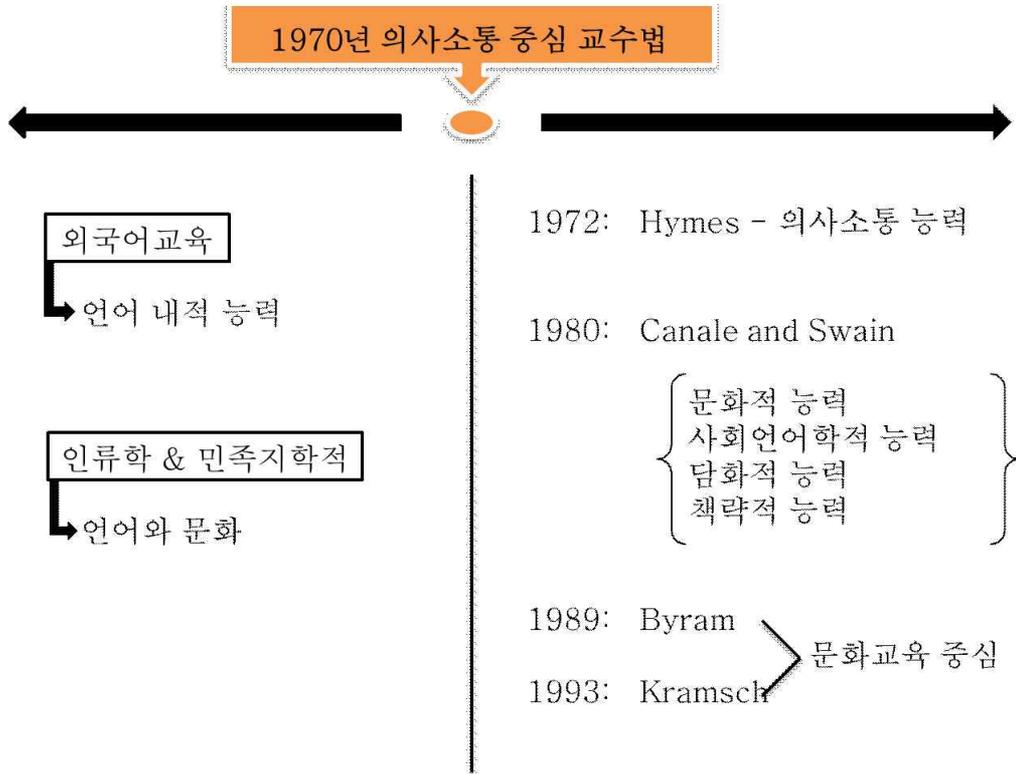
‘문화(文化, Culture)’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한 사회(집단) 구성원에 의해 형성하여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케 하는 것이며, 사회(집단), 범주에 한정하여 학습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광범위 내용을 포함한 문화를 교육에 있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2.1.2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향상

UNESCO(2006: 12-13)는 교육(education)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화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교육(education)은 ‘인류의 모든 발전과 사회생활 참여에 관한 도구이며 가족, 지역 사회 또는 작업 환경과 같은 많은 기관의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결정될 때이다.’ 문화(culture)와 교육(education)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문화는 교육 내용, 운영 방식 및 맥락을 구축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참고기준 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 우리의 신념 및 심지어 감정까지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은 또한 문화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집단적이고 역사적 현상으로서 문화는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전파와 풍요로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조직화된 교육은 종종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중시된 것은 언어학적 능력이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또는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림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변천과정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변천과정은 [그림 2]<sup>27)</sup>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하는 조향록(2000)<sup>28)</sup>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 무렵 외국어교육 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은 대부분 중급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그 내용은 문학교육에 국한되었다. 즉,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이 동일시되었고, 주로 고전 문학 작품들을 교육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1960년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ism)이 등장하였고,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및 문화가 학습 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7) 그림 2는 연구자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28) 조향록(2002),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pp. 153-174.

이 시기에는 문화 관련 사진들, 문화 노트, 문화 캡슐 등 문화 관련 내용이 교재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어 문화교육이 외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언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Hymes(1972)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Chomsky<sup>29)</sup> 적인 언어학 연구는 메마른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언어학 이론은 의사소통과 문화를 결합하는 좀 더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언어 교수의 목표는 어떤 표현이 형식적으로 가능한가? 어떤 표현이 실제로 생성이나 이해의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가? 어떤 표현이 상황에 적절한가? 어떤 표현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즉 언어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언어가 사용된 당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80년 이후, 언어학의 발전, 특히 언어 기능, 의사소통, 언어사용 맥락 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폭이 넓어지면서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언어학 연구의 범위가 이전의 언어 형태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언어의 기능적 요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언어 기능, 언어 사용 맥락 의사소통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외국어교사들이 외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법에 중점을 둔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서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Canale and Swain(1980)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또 하나의 논의를 제기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를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책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세분한 이 논의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문

29) 조향록(2002),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pp. 153-174.

화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즉 화행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의 올바른 어법의 사용과 기능의 수행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후 외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와문화의 통합적-접근을 위한 이론적 주장은 사회언어학의 학문적 영역 안에서 교차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perspectives, 의사소통 민족지학적 접근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등의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문화교육을 위한 표준(standards) 제시, 기술 활용,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었다(Byram 1989, 2010, Byram & Grundy 2003, Byrnes 2010; Kramsch 1993; Paige, Jorstad, Siaya, Klein & Colby 2003). ; Byram(1989)은 문화학습을 외국어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Kramsch(1993)도 문화를 단순히 언어교육의 구성요소가 아닌, 문화를 일반 교육의 독립적 요소로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화 학습 없이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으며, 아울러 문화란 음식, 사물, 민속, 통계 자료와 같은 가시적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구성원의 세계관, 신념 등 내재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박갑수(2015)에서 지난날에는 언어교육이 언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언어교육은 그 첫째 시간부터 문화교육과 더불어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언어의 교수·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문화교육을 통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함은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 대두된 이후 제기된 문화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eyle(1988)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0) 조향록(2002),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pp. 153-174.

1. 학습자로 하여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2. 나이, 성, 사회 계급, 거주지와 같은 사회적 변인이 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3. 목표 문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키우도록 한다.
4. 목표 언어 속에 들어있는 문화적 함의가 있는 단어나 구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5.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일반화를 평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6.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리하거나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키우도록 한다.
- 7 목표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감정 이입을 북돋운다.

이상의 문화교육 목표는 목표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현상의 이해하는 것이 위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목표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감정이입을 북돋우는 항목들도 제시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에서는 모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fayette(1988)는 학습자 중심의 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를 제시 하였다.

1. 주요 지리적 기념물을 인식/설명 할 수 있다.
2. 주요 역사적 사건을 인식/설명 할 수 있다.
3. 주요 제도(행정, 정치, 종교, 교육 등)를 인식/이해할 수 있다.
4. 주요 예술적 기념물(건축물, 미술, 문학)을 인식/이해할 수 있다.
5. 일상의 “비활동적인(passive)” 문화적 패턴(사회 계급, 결혼, 직업 등)을 인식/이해할 수 있다.

6. 일상의 “활동적인(active)” 문화적 패턴 (식사, 쇼핑, 인사 나누기 등)을 인식/이해할 수 있다.
7.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다.
8. 상투적인 제스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9. 다른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다.
10. 목표어와 관련이 있는 인종의 문화를 인식/설명 할 수 있다.
11. 목표어를 사용하는 비유럽인(non-European peoples)의 문화를 인식/설명 할 수 있다.
12. 문화 관련 설명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 문화 관련 정보를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 Seelye(1988)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 Seelye(1988)의 문화교육 목표에 포함된 목표 문화의 여러 가지 현상보다 Lafayette(1998)에서 문화의 현상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리적 기념물, 역사적 사건, 주요 제도, 예술적 기념물 등이다. 이 주장은 문화교육 목표를 보다 세부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에서 여전히 모국문화의 중요성과 목표문화와 모국문화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가 언어문화, 행위문화를 넘어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지어 사회적-경제적 능력(socio-economic competence)<sup>31)</sup>까지 키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Tomalin & Sterpleski(1993)는 교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Seelye (1988)의 7 가지 목표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래의 내용이 실제 교수 원리 설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습하는 언어를 통하여 문화에 접근한다.
2. 각 단원의 학습과 함께 문화적 행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야한다.
3. 학습자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의 사회문화적 능력을 갖추도록

---

31) Council of Europe Waystage 90 and Threshold 90 specifications for English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culturally-influenced) 행위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능력 (socio-economic competence)을 포함시켰다. Tomlin & Stempleski (1993) 참조.

이끌어간다.

4. 모든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 모국 문화와 목표어 사회 문화 사이의 문화 간 이해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5. 문화 관련 교육이 행위 변화를 함축하기도 하지만 이문화 간 문화적 영향에 대한 자각 및 안내를 의미함을 인식해야 한다.

Tomalin & Sterpleski가 제시한 문화교육 목표와 Seelye(1988)가 제시한 문화교육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국 문화와 목표어 문화 사이의 문화간 이해’를 추가한 것이다. Seelye(1988)의 문화교육 목표는 목표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현상의 이해,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감정이입을 북돋우는 데에 있는 것에 비해 Tomalin & Sterpleski (1993)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있어 모국 문화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외국어학습 기준(The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NSFL)(2006)<sup>32)</sup>에서도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 (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 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문화<sup>33)</sup> 부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타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또한 핵심적 문화 자질과 개념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것들을 선별, 종합, 해석해

---

32) 1996년 미국외국어교사 협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가 주축이 되어 외국어교육 국가표준 프로젝트(The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NSFL)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학습 표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 Century 196, 2006)을 제시하였다(Arens 2010: Philips 2003). NSFL은 미국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교육되고 있는 주요 외국어(프랑스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교육의 표준을 제시한 일종의 교육지침서로서, 문화를 외국어 교육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박준언 201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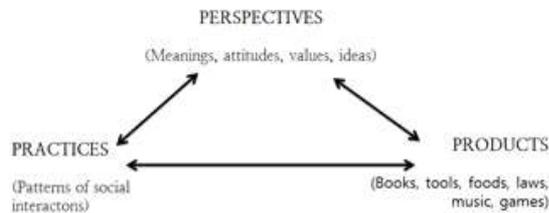
33) 문화의 개념은 사회의 유형, 무형의 철학적 관점(philosophical perspectives), 관행(behavioral practices), 산출물(products)을 포함한다. 관행과 산출물은 철학적 관점에서 도출되며,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NSFL 2006)(박준언, 2012 재인용.)

서 타 문화권 사람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sup>34)</sup> 책략<sup>35)</sup>을 학습해야 한다.

① 학습자들이 타 문화의 세상사적 공헌, 인류의 공통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비롯해, 그들의 관점, 생활 방식, 행동양식들에 대한 이해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이 민족중심주의적 태도(ethnocentrism)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②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문화의 관행과 관점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문화적 관행은 한 사회에서 수용되는 행동양식으로서, 성인 의식, 담화형식 사용, 사회적 위계질서, 공간 사용 등과 같은 문화적 양상을 지칭한다. 이것은 문화적 행위의 대상, 행위 시기, 행위 장소에 관한 지식을 나타낸다.

③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 문화의 산출물과 관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이는 학습 목표 문화의 산출물이 그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산출물은 그림, 교회건물, 문학작품, 젓가락 등 유형의 산출물이나 이야기, 춤, 신성한 의식, 교육체계 등 무형의 산출물이 있다. 산출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한 문화의 산출물의 존재는 해당 문화의 기저 신념과 관념에 의해, 정당화되며, 중심적 문화적 관행은 그러한 산출물을 포함한다.



[그림 3] 관점, 관행, 산출물간의 관계  
(NSFLL 2006)

34) 박준연, 2010, 제인용.

35) NSFLL에서 외국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책략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회적으로 말하기, 현명한 추측하기, 맥락 속에서 의미 파악하기,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이해, 해석, 산출하기, 명확화 요구 및 제공하기, 가설 제시 및 점검하기, 추론/예측/일반화하기,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해 반추하기/타당한 결론 도출하기, 의사소통과정에서 유머, 인내, 지속성 유지하기, 등

NSFLL의 문화교육 목표는 보다 더 광범위 것으로 제시하였다.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관계에서 나아가, 모국 문화가 목표 문화에 의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또한, 목표 문화의 세상사적 공헌, 인류의 공통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는 능력까지 문화교육 목표에 포함하였다. 또한, NSFLL의 문화교육 목표는 목표 문화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표문화의 관행과 관점간의 관계, 목표문화의 산출물과 관점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목표는 제2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있어 목표 문화의 관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문화는 교육을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의 관계, 더 나아가 인류의 공통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세 하에 한국문화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문화교육의 지향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있다.

김정숙(1997)은 문화교육이 정보 전달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언어 학습은 언어와 문화의 상호 교육과정이므로, 언어교육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 실시되어야 하며,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진, 음성 자료, 비디오 자료, 실물 등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사용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기철 (2001)은 문화교육의 목표를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분류한다. 상위 목표로는 문화 이해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설정하였으며 하위목표로는 ① 문화의 다원성 이해, ② 일상적 생활방식 이해, ③ 보편적 사고방식 이해, ④ 보편적 문화 지식 이해, ⑤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 ⑥ 인위적, 자연적 산물 이해, ⑦ 문화 이해와 실천의 태도 ⑧ 일상생활 적응력 등을 들고 있다. 이는 다분히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의 신장을 강조함을 엿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인위적, 자연적 산

물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킴으로써 성취문화를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항록과 강승혜(2001)는 Tomalin과 Stempleski가 제시하는 문화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문화교육의 목표는 목표어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 ① 학습자로 하여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 ② 나이, 성, 사회 계급, 거주지와 같은 사회적 변인이 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 ③ 목표 문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키우도록 한다.
- ④ 목표 언어 속에 들어 있는 문화적 함의가 있는 단어나 구에 대한 이해를 키우도록 한다.
- ⑤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일반화를 평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⑥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리하거나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키우도록 한다.
- ⑦ 목표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감정 이입을 북돋운다.

윤여탁(2002)은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넘어서 문화능력의 함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문화 관련 제재가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문화 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수단 등을 풍부하게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보면 이때까지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에 넘어 문화능력까지 중시하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에 '상호문화'에 관한 항목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박영순(2006)은 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sup>36)</sup>

- ①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매력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② 모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③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
- ⑤ 목표 언어를 구사할 때는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김영만(2009)에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의 수용과 이해 차원의 교육 방법을 지양하여, 학습자 자국과 한국, 혹은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습자의 개인적인 필요와 개성, 목적 등을 고려하고 새롭고 독특한 특성을 살린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목표와 내용이 수정·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강승혜 외 5명(2010)에서 언어교육에서 다루는 문화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위한 문화만이 아니라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을 위한 문화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말과 함께 가치, 정신, 삶 또는 취향을 교육하되 목표 문화를 다양한 문화와 함께 다루는 비교 문화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방향에 관한 주장에 근거하여 이의 방향을 제시하여 이는 한국어교육 시 문화교육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한국 또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은 이제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 더 넓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확보하고, ‘상품과 정보 유통 시의 중간 이익의 절약’이 가능하므로 외국어교육은 ‘유대감의 바탕 위에서 이익의 성을 쌓아주는 역할’이라는 보편적

---

36) 강승혜 외, 2010, pp 62. 재인용.

인 담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 대상 문화교육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외국인 학습자 목표어 화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사전적 의미나 문장의 구조적 의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정서의 배경을 공감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② 문화 수용 및 적응 능력이다. 한국어 능력과 별도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며, 즉 이질 문화 수용과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해 목표어 지역의 특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질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갈등이 상존하게 되어 있고 이질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목표에 대한 관심을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수용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두지 않고 외국인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다.

③ 인류 보편 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이다. 국제화 시대의 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소통 혹은 목표어 국가의 일반적인 문화 이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인류문화의 보편성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마음 작용과 본능 작용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지역적 공간의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특성을 초월하여 한 인격체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게 한다. 한국어 교사는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모문화와 상호연계하여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국제화 시대 인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하고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갑수(2015)에서 문화교육이란 문화적 활동과 그 산품을 이해하고, 나아가 가치관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상적 생활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자문화(自文化)가 아닌 다음 문화의 교육이 되면 이문화간(異文化間)에 이해와 공감의 이루어지게 하고,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각하게 함으로, 그 교육 목적을 인류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둔다.

임경순(2015)에서는 박영순(2002)이 제시한 문화교육의 목표인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자기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외국 문화를 학습하는 일은 반드시 자국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오랜 시간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를 습득한다.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를 통해 습득된 문화는 자신의 삶을 규정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역량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이문화교육(異文化教育)은 자기 문화교육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언어문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②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외국 문화에 융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아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을 확장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나’와는 다른 문화를 통해 삶의 흔적을 읽어 내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문화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는 것이다.

③ 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긍정적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가 인간성을 말살함으로써 인간을 질곡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화교육의 지향점은 Edward T. Hall이 말했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문화를 초월하여 고된 여행”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며, 무의식적인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신과 인류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과업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및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① 자기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며, ② 이를 토대로 타문화 이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문화 간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2차적인 목적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①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고도 심도 있게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②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형성해 가는 데에 2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외국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반드시 자국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를 통해 습득된 문화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다른 문화와의 교류하는 데도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역량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이문화교육은 자기 문화교육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으로 오면서 문화교육에 있어 모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문화’, ‘문화 간’ 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문화교육의 의의도 역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점차 넓은 범위로 변화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영순(2006)의 문화교육 목표부터 모국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모국문화와 목표 문화의 비교를 강조하여, 강승혜 외 5명(2010)은 상호문화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임경순(2015)은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면서 모국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서 문화교육은 세계적 차원에서 요구한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① 문화교육이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인 대상으로 하든 그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 ②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은 모국 문화가 전제이므로 반드시 모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③ 상호문화적 시각을 갖추어,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이루어지게 한다.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더 나아가 인류문화의 보편성 및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인류 공동체 문화 향성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내용으로 수용하고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궁극적으로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교육할 때는 모국 문화가 전제되며,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하게 되므로 다음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에 대해 검토 하도록 하고자 한다.

### 2.1.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여기에서는 상호문화적, 즉 intercultural이라는 단어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본고에서 사용할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적(intercultural)’는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세계 학술적 담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데 있으므로 상호문화능력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3.1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의 개념

영어로 ‘intercultural’로 표시하여 한국어는 ‘비교 문화’, ‘문화 간’, ‘상호

문화’, ‘교차문화’, ‘상대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이를 ‘跨文化(과문화)’로 번역되고 있다. 넘을 ‘과(跨)’로 사용하여 ‘문화 간(間) 혹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번역한 용어들은 모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공통적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영어의 ‘inter-culture’가 한국어로 ‘상호문화’가 번역되어야 하며, ‘intercultural’는 ‘inter’의 접두사를 ‘culture’의 형용사인 ‘문화적(cultural)’와 합쳐 된 것으로 ‘상호문화적’으로 번역을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파생된 여러 용어들을 한국어나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跨文化教育)’,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s, 跨文化能力), 상호문화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跨文化交际)’등) 모두 이를 하나의 명사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파생된 용어들(예를 들어,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능력, 상호문화의사소통’ 등)을 기존에 사용된 용어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intercultural’이 단독적으로 제시할 때는 형용사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호문화적<sup>37)</su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Martine Abdallah-Preteuille(2004: 65)에 따르면 ‘연구대상에 ‘상호문화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분석이다. 다시 말해,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호문화적 교수법,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상호문화적 관계라 부를 것이며, 이런 용어들은 그것이 상호문화적 원칙에 따라 분석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였다. 이는 형용사인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의 특성을 강조하며 명사인 ‘상호문화(inter-culture)’와 구별케 한다.

### 1) 용어 사용 양상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관련된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cultural)’라는 형용사 앞에 inter-, bi-, multi-, cross-, pluri-, trans-와 같은 접두사를 붙여 문화의 의미를 한정하여 다양하게 쓰고 있다.

---

37) Martine Abdallah-Preteuille(2004: 65)는 ‘상호문화적 사회’나 ‘상호문화적 대화’ 같은 표현은 사실 언어적 남용(濫用)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에 대한 검토하는 데에 이 용어가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걸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질문들을 해결함으로써 관련된 용어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용어	입증된 사용년도	의미
intercultural	1930년대 중반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간(간)혹은 사이
bicultural	1940년	두 가지 별개의 문화에 관련된
multicultural	1941년	사회 내의 여러 문화적 또는 민족적 집단 들의
cross-cultural	1942년	문화 간의 차이점을 관련하거나 연결하는
transcultural	1951년	둘 이상의 문화에 걸쳐 관련, 포함 혹은 확장되는
pluricultural (multicultural) <sup>38)</sup>	1960년대	다원문화는 다문화와 동의어이며, 언어 학 습을 통해 다원문화가 될 수 있다.

[표 3] 문화적(cultural)에 관련된 용어들

Arslan, Hasan & Rata, Georgeta(2013: 4-10)에 따르면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1930년대 중반에 생긴 단어로 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간혹 사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bicultural은 1940년에 생긴 단어로 ‘두 가지 별개의 문화에 관련된’라는 의미로 쓰인다. multicultural은 1941년에 증언되는데 ‘사회 내의 여러 문화적 또는 민족적 집단들의’의 의미로 쓰인다. 또 cross-cultural은 1942년에 생긴 단어로 ‘문화 간의 차이점을 관련하거나 연결하는’의 의미로 쓰이고 transcultural은 1951년에 생긴 단어로 ‘둘 이상의 문화에 걸쳐 관련, 포함 혹은 확장되는’의 의미로 쓰이고 60년대 사용된 pluricultural은 multicultural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 2) ‘상호문화적’과 ‘다문화적’

38) Arslan, Hasan & Rata, Georgeta(2013)에 따르면 1960 년대의 첫 번째 개념화(first conceptualisations) 이후, 다문화교육은 다시 개념화되고, 집중되어 변형되었다.

이 다양한 용어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다.

Maddalena de Carlo(1998: 49)에 따르면 ‘상호문화적(intercultural)’라는 용어는 대개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용어와 대립해 사용된다. 이 두 용어는 각각 프랑스와 앵글로색슨(Anglo-Saxon)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생겨났으며, 하나는 행동에, 다른 하나는 서술에 비증을 두는 두개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M. Abdallah-Pretceille(Maddalena de Carlo, 1998: 49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상호문화적은 ‘문화적 다양성과 결부해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인 반면에, 다문화적은 ‘집단의 복수성’을 인정하지만 ‘공동의 단일성의 파괴’는 피하려 하면서 교육적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sup>39)</sup>

Martine Abdallah-Pretceille(2004: 65)는 ‘상호(inter)’라는 접두사는 집단, 개인,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을 관련 짓고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원문화적(pluricultural), 다문화적(multicultural)라는 용어가 확인 차원에 멈춘다면,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절차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UNESCO<sup>40)</sup>(2006: 17)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다문화적(multicultural)’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문화적(multicultural)라는 용어는 ‘인간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민족 문화 또는 국가 문화의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적, 종교적,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

39) 이런 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 명확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 주제가 야기한 정치적 문제제기와 지적 열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부터 특히 미국에서는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적인 학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호문화라는 개념이 프랑스 밖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에게도 낯선 개념이 아님을 입증 해준다.

40) 유네스코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아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 모인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여 유네스코를 창설하였다. 유네스코의 사명은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출처: <https://www.unesco.or.kr/>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은 역동적인 개념이며 문화 집단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한 공유 문화 표현의 가능성’(UNESCO, 2005)으로 정의된다.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전제로 하며,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교환의 결과 및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의 대화를 말한다.

이상으로 종합해 보면,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다문화적(multicultural)’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다문화적(multicultural)
발생지	● 프랑스	● 앵글로색슨
관점	● 행동	● 서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다양성과 결부</li> <li>● 사회·교육적 문제 이해 도움</li> <li>● 절차 중시</li> <li>● 역동적</li> <li>● 문화 집단 간의 상호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집단의 복수성(다양성)만 인정</li> <li>● 공동의 단일성 파괴 피함</li> <li>● 교육 목표가 분명하지 않음</li> <li>● 확인 차원</li> </ul>

[표 4] ‘상호문화적’과 ‘다문화적’의 차이점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프랑스 지역에서 생겨났으며, 역동적인 개념이고 행동에 비중을 두고 절차를 중시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결부해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며 문화 집단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다문화적(multicultural)은 앵글로색슨 지역에서 생겨났으며, 서술에 비중을 두고 확인 차원에 멈춘다. “집단의 복수성”은 인정하지만 “공동의 단일성의 파괴”는 피하려 하면서 교육적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다문화적(multicultural)은 하나

는 동태적(動態的)이고 하나는 정태적(靜態的)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상호 문화적(intercultural)의 'inter'는 문화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다문화적(multi cultural)의 'multi'는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 3) '상호문화적'

유럽 평의회(1986)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nter'라는 접두사의 의미를 최대한 고려한다면, 'inter-cultural'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 교환, 장벽 제거, 상호성, 진정한 연대성을 의미한다. 만약 'culture'라는 단어가 가진 모든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라는 개념 속에서 참조하는 상징적 표상, 생활방식, 가치 등을 인정함을 의미한다.<sup>41)</sup>

Maddalena de Carlo(1998: 49)는 상호문화적인 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문제가 던진 도전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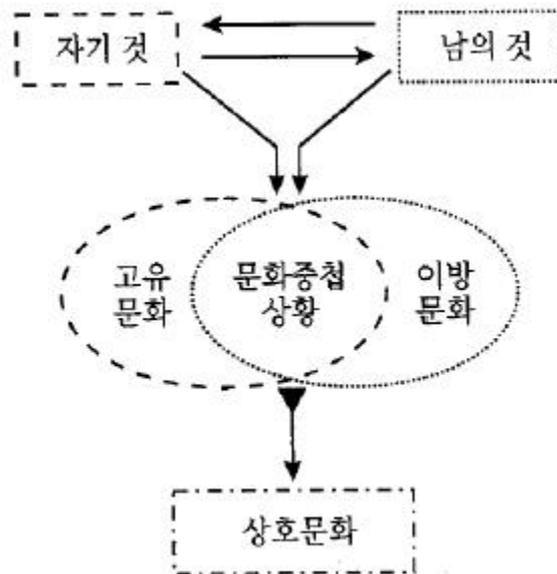
김순임(2005:102-103)은 Knapp(1999)의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것<sup>42)</sup>' 개념을 다음 [그림 4]<sup>43)</sup>과 같이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

41) Conseil de l'Europe. (1986), L'interculturalisme: de l'idée à la pratique didactique et de la pratique à la théorie(Maddalena de Carlo, 1998, p50 재인용).

42) 김순임(2005)은 제시한 그림은 상호문화로 되어있지만, '상호문화'를 독일어 'das Interkulturelle'로 제시하는 것은 역시 여기서 말하는 '상호문화'는 형용사인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여기서 'das Interkulturelle'를 하나의 명사로 보기 때문에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것'으로 표시한다.

43) 김순임, 2005, pp102-103, 재인용.



[그림 4] Knapp(1999)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것’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만남이 있고, 그들이 의사소통 파트너가 되면 ‘자기 것(das Eigene)’과 ‘낯선 것(das Fremde)’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 삼의 것이 나타난다.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고유문화(Eigenkultur)와 이방 문화(Fremdkultur) 그리고 문화중첩상황(kulturelle Überschneidungssituation)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제삼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인 것(intercultural, das Interkulturelle)’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역동적이다. 즉, 고유문화와 이방 문화 개개의 구성 요소인 정위적 특징들의 단순한 교집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상황으로 드러난다. 그림이 보여주듯이 문화중첩상황은 ‘낯선 것’이 ‘자기 것’에 중요한 것이 되고, 이 둘 사이에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 또한 고유문화와 처음에는 아주 동떨어졌으나, 점차 가까워지는 이방문화 사이에는 중간지대(Zwischenraum)가 생성된다. 이것은 이문화간 행위에 위협적으로

도 고무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불분명하고 애매한 색다른 틈새이다.

②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상대적이다. 고유문화와 이방문화의 문화중첩상황은 파트너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가 이문화간 의사소통 파트너가 될 때와 한국과 독일의 경우와는 문화중첩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문화중첩상황은 후자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본다.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인 것’ 안에서 ‘자기 것’과 ‘낯선 것’은 서로 간에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는 교집합의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③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상호 행위적이다. 왜냐하면 문화중첩상황의 활동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이문화적 행위나 행동양식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문화 행위자<sup>44)</sup>의 행위 자체가 상호적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행위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주어진 만남에서의 모든 것이 의사소통의 결과 또는 성과를 공동결정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고유문화와 이방문화의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선택된 요소는 그 어떤 것도 홀로 의사소통의 결과에 책임 져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문화간 행위는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르면 ‘상호문화적’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고유문화와 이방문화의 문화중첩상황은 파트너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고유문화와 이방문화는 지속적으로 교환되며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러므로 문화교육에 있어 교육내용의 설정은 학습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Verbunt, Gilles(2001: 80-81)는 상호문화는 지구촌 사회와 소규모 인간공동체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개인과 관련해서 상호문화는 자기 고유의 문화를 상대화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것을 풍요롭게 하며, 단지 친근한 문화 속에서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도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한다.

---

44) Moosilller은 'Interkulturalisten'이라는 이 용어를 Dahlén의 설명을 빌려 이문화 영역, 즉 상이성 훈련, 통문화적인 상담, 이문화간 협상, 이문화간 의사소통 훈련, 통문화적 민감성 훈련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문화간 의사소통 참여자 또는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상호 행위자를 의미한다. (김순임, 2005, p103, 재인용)

### 2.1.3.2 상호문화능력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교육(education)와 함께 전 세계 학술적 담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45)</sup>. 즉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다. 이는 역시 앞에 논의한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다문화적(multicultural)과 같이 상호문화교육은 늘 다문화교육과 같이 논의하게 된다.

장한업(201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거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그들 각각의 국민국가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식인 정했음을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고 본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유럽 국민국가들은 점점 국가를 초월하는 상황에서 흔히 다수-소수 간의 통합 또는 적응의 상호적 전략으로 정의되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념에 대해 1992년 UNESCO는 ‘상호문화교육’ 및 ‘다문화교육’ 두 개념을 통용적인 개념<sup>46)</sup>으로 보고 2006년의 <상호문화교육지침서(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에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다음과 같이 구별을 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 문화들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관용하고자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통해 다원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수동적인 공존을 넘어서고자 한다.’

---

45)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은 20세기 내내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명사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 형용사는 education 외에도 communication, philosophy와 같은 명사와 함께 전 세계 학술적 담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ntercultural education은 1935년 미국에서, 그리고 1970년대 유럽에서 출현한 교육이고,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고, interculturalism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서서히 출현한 정책이고, intercultural philosophy는 1990년대 독일어권에서 부상한 교육철학이다.

46)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Cultural Development> 참조.

다문화교육은 다원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는 상태인 반면에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 및 상호 작용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이병준(2007)에서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유럽의 다민족 국가 내의 민족 갈등 해소와 공존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되어 외국인교육을 통해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상호문화교육의 모형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하였다.<sup>47)</sup>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기르는 것이다. UNESCO(2013: 16)에서 상호문화능력이란 ‘특정 문화에 대한 적절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앞에 말한 두 지식과 태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즉, 상호문화능력은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포함한다.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적절한 지식,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다. 태도는 수용적인 태도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술은 지식과 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상호문화능력의 기본 요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실행해 왔다(Byram, 1997; Chen & Starosta, 1996; Guilherme, 2000; Deardorff, 2009). 장한업(2018)에 따르면, 상호문화능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다. 이후 지금까지 약 50년 간 많은 학자들은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 개념, 방법, 평가를 가능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상호문화능력과 관련된 22개의 모형, 300여 개의 개념이 제안되었다(Spitzberg & Changnon, 2009: 45).

상호문화능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Byram(1997), Deardorff(2006), UNESCO(2013)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통해 상호문화능력의 구성 요소를 어떻

---

47) 장한업(2017)에서는 한국의 학계나 교육계가 ‘다문화’하면 ‘다문화교육’할 정도로 다문화교육만 강조하고 상호문화교육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문화교육 목표 설정하는 데에 토대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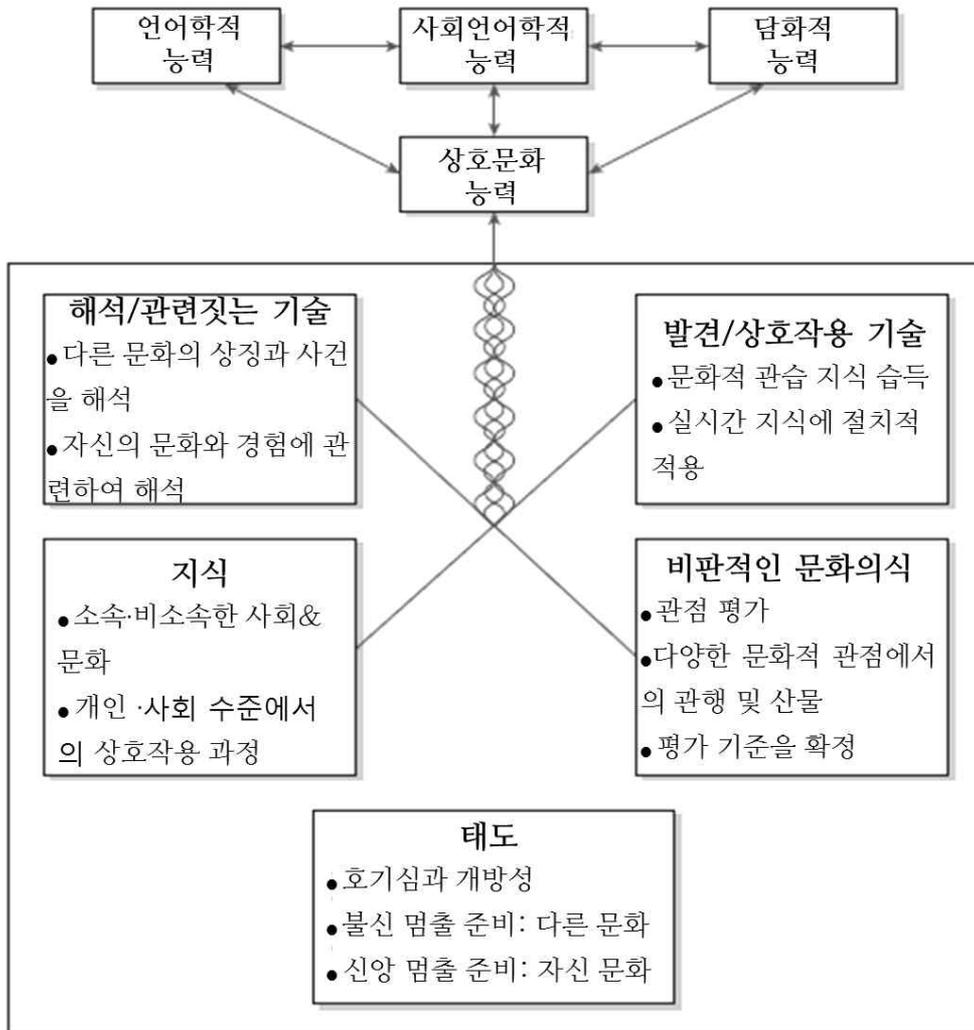
Byram(1997)의 상호문화능력모형은 상호문화교육에 있어 오랫동안의 주류(주류)이론이며, 여전히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Byram(1997)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사회 배경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에서 우리는 상호문화적 화자<sup>48)</sup>(intercultural speaker)가 되어야 하여,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상호문화능력이 필요하다. 즉, 외국어학습자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서 의사소통할 때 서로 문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Byram(1997)는 상호문화능력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지식(knowledge), 해석/관련짓는 기술(skills of interpreting/relating), 발견/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interaction), 태도(attitudes), 비판적인 문화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이다. 구체적인 내용 다음 [그림 5]<sup>49)</sup>과 같다.

---

48) 원어민이 있으며 원어민(native) 또는 '원주민에 가까운(near-native)'능력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학습자가 있다는 이미지에 비판을 받고 있다. 원어민언어의 능력(native speaker linguistic 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부정확하고 사용할 수 없다.(Kramsch, in press) 또한, 단일 언어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분기(分岐)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문화적 스타일과 재치를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Kasper, 1995). 예를 들어, 두 대화 상대는 서로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기 나라의 누군가와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이유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참여한 대화 상대를 묘사하기 위해 '상호문화적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개념을 소개한다.Byram(1997: 32)

49) 그림은 필자에 의해 번역된다.



[그림 5] Byram(1997)의 상호문화능력 모형

태도(attitudes)는 호기심(curiosity)과 개방성(openness)에 관한 것이며, 타인의 의사(意思), 신념 및 행동과 관련하여 불신과 판단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사(意思, meanings)에 대한 믿음(혹은 신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성공한 상호문화적 상호작용(intercultural interaction)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편견(positive prejudice)이라 할지라도 상호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0)</sup> (태도와 타인과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이다. p34-35)

지식(knowledge)은 개인이 다른 나라의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느 한 개인이 속하는 사회 집단과 그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다른(상호대화자) 사회 집단과 그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다.<sup>51)</sup> 다른 하나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다소 정제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존재한다. 반면에 두 번째 범주는 상호작용의 개념과 과정에 관한 지식으로 성공적인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이지만 자동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해석/관련짓는 기술(skills of interpreting/relating)은 다른 문화(혹은 목표 문화)의 상징, 자료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문화와 경험(혹은 관점)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각각의 문화체계 내에서 설명하여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매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김옥선, 2009: 13, 재인용) 해석/관련짓는 기술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문제는 정식 교육, 특히 외국어 교실을 통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 기술은 상호대화자(interlocutor)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문서 작업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상호작용 기술과 구별될 수 있다.

발견/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interaction)은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소통가담자에게 내면화된 관념이나 가치관, 상호문화 소통 현상 속에 전제된 문화적 함의를 발견해 내고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상호행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어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비추어 인지하여 실제 소통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진 지식과 태도, 능력을 종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김옥선, 2009: 13, 재

---

50) 이것은 Kohlberg 등이 'decentre'하는 능력이다. (1983)은 심리적 발달의 진보된 단계이며 Melde(1987)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이라고 제안하였다(Byram et. al., 1994 : 20-24 참조). 극단적인 경우, Berger와 Luckmann은 '교대(alternation)'(1966: 176)라고 부르는 '재 사회화'(re-socialis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이전 주관적인 현실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규범에 따라 그것을 재구성한다. Byram, 1997, p34, 재인용)

51) 김옥선(2009: 12)에 따르면, 학습자는 세상과 세상의 작동방식에 대하여 고도로 발달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모어의 어휘나 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이 지식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일컫는 세상에 대한 지식인데 여기에는 한 언어공동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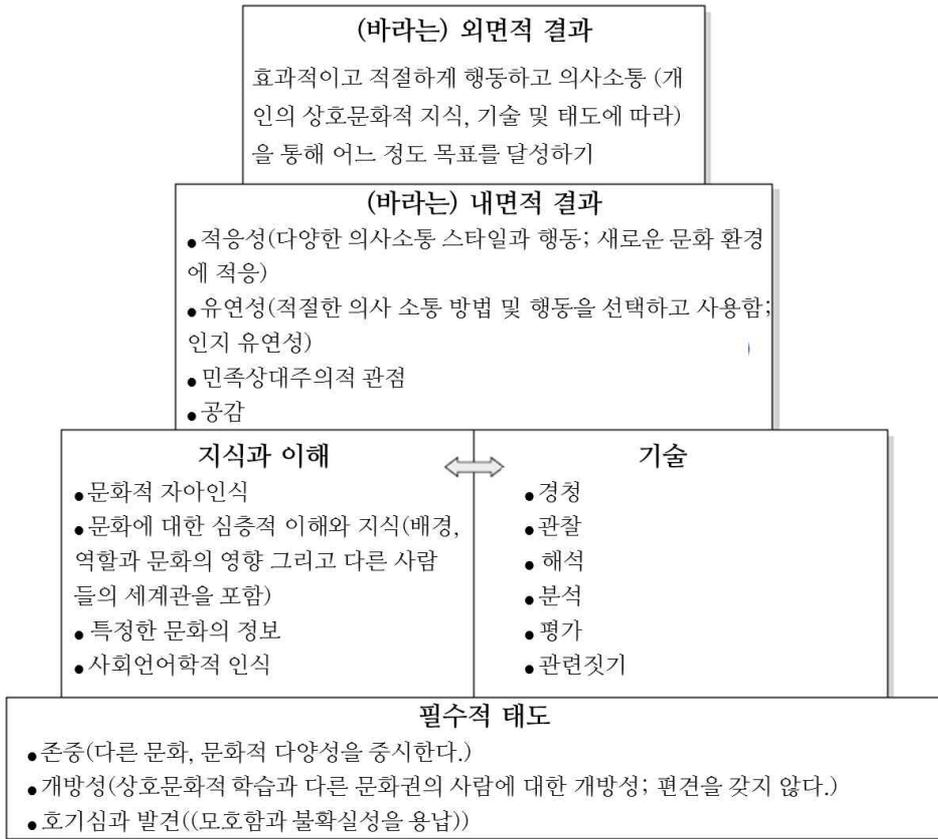
인용).

비판적인 문화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은 자문화와 목표문화의 산물, 관습, 관점을 준거를 갖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문화 의사소통의 경험을 통해 위에 언급된 지식, 태도, 능력의 세 영역에서 민감해진 학습자는 한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 신념, 행동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는지,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 문화 의식이란 이러한 준거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자료나 사건에 대해 합당한 분석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자신의 지식, 능력, 태도를 활용하여 가치나 준거를 수용하는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김옥선, 2009: 13, 재인용)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때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신(origins)과 정체성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지며 발견 및 해석 기술을 운용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장애(dysfunctions)를 관리하여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상호대화자(interlocutor)의 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출신(origins)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관계를 수립하고 기능장애를 관리하며 조정하는 기능은 상호문화적 화자(intercultural speaker)를 구별하며, 원어민과 다르게 만든 것이다. Deardorff(2009: 18)에 따르면, 상호문화적 화자(intercultural speaker)는 중개자 역할을 더 많이 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양쪽에서 협상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여러 문화의 측면을 결합할 수 있다. 가장 유능한 상호문화적 중개자는 자신의 언어와 언어 품종(language varieties),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사회와 서로 다른 사회집단에 속하는 문화들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언어(품종)와 문화(들) 사이(inter)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Byram, 2003, p.61)

Deardorff(2006)는 델파이(Delphi) 방법론을 사용하여 상호문화능력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는 23명의 상호문화적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호문화능력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이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를 문서화한 최초의 연구이다.

Deardorff(2009: 13)는 연구의 결과 데이터를 두 가지 시각적 모형, 즉 그 중 하나는 상호문화능력의 피라미드 모형(pyramid model)이며, 다른 하나는 과정 모형(process model)이다. 여기서는 상호문화능력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 설명한 피라미드 모형을 살펴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그림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6] Deardorff(2006)의 상호문화능력의 피라미드 모형(Deardorff, 2009: 13에서 제시한 내용)

Deardorff(2009: 13)에 따르면, 많은 인지법과 유사하여 이 피라미드 모형은 동기 부여(필수적인 태도), 인지(지식과 이해)와 기술 요소를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내에서 맥락을 통합하였다. 반대로 다른 인지법과 달리 이 모형은 비유적으로 기본 요소에 대한 개념과 요소의 암시적 순서를 나

타내려고 시도하며, 이를 통해 출현한 외면적(가시적(可視的)인, visible) 결과는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과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위층(lower levels)은 상위층(higher levels)의 기초이 된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상호문화능력의 요소는 ‘필수적인 태도’, ‘지식과 이해’, ‘기술’, ‘내면적 결과’, ‘외면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 다섯 개 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네 층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조화하였다.

필수적 태도(Requisite Attitudes)는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고 이는 동기 부여 영역으로 상호문화능력에서 다른 요소의 기본 전제가 되며, 하위층의 요소가 상위층의 요소를 갖추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필수적 태도는 존중, 개방성 및 호기심과 발견(혹은 탐구)을 의미한다.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Comprehension)는 인지적 영역이며, 기술(Skills)과 같은 층위에 위치한다. 문화에 대한 인지 과정에서 ‘지식과 이해’와 ‘기술’이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를 화살표로 구현하고 있다(장의선, 이소연, 강민경, 한건수. 2016: 34, 재인용). 지식과 이해는 문화적 자아인식,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특정한 문화의 정보, 사회언어학적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기술은 경청, 관찰, 해석, 분석, 평가와 관련짓는 기술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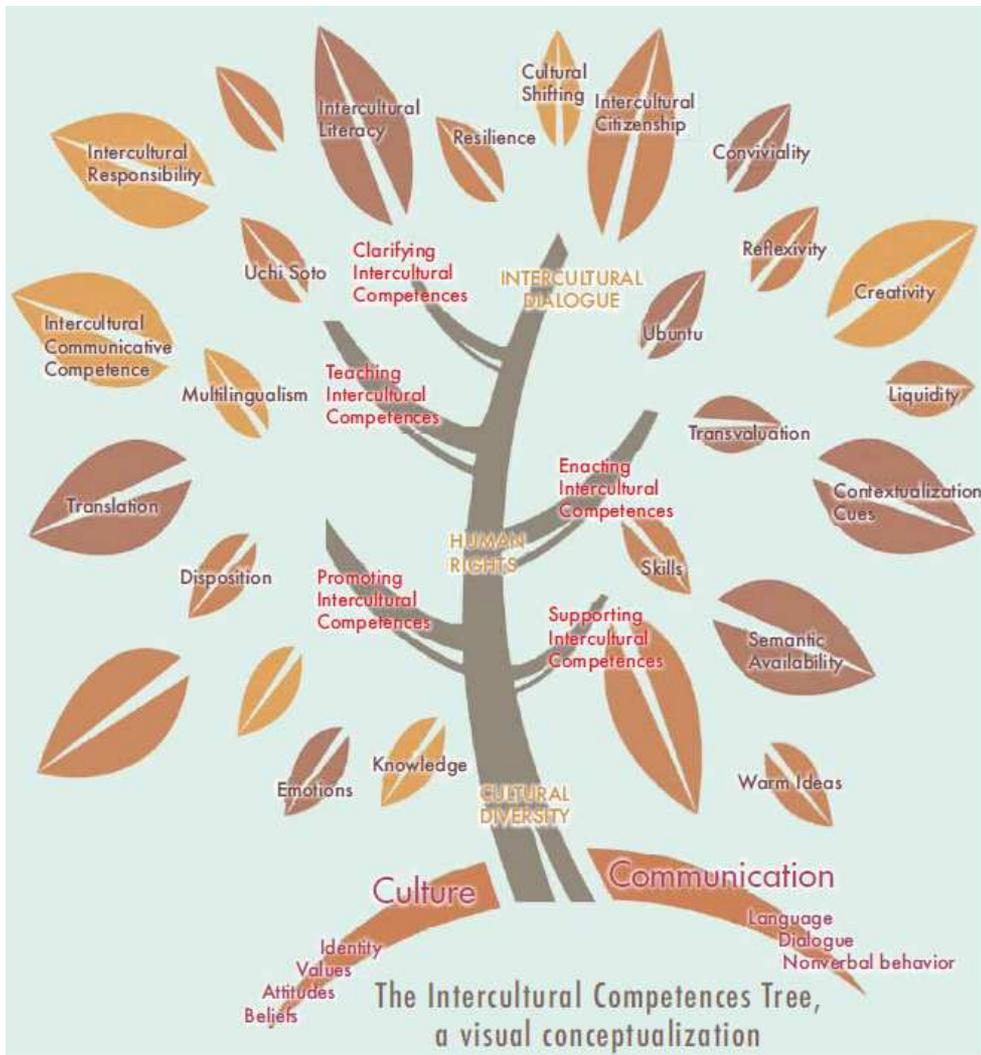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층 구분으로 보아 내면적 결과에 기반하여 외면적 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장의선, 이소연, 강민경, 한건수. 2016: 34, 재인용).

내면적 결과(Desired Internal Outcome)는 적응성, 유연성, 민족상대주의적 관점 및 공감을 의미하며, 외면적 결과(Desired External Outcome)는 개인의 상호문화적 지식, 기술 및 태도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능력 증진의 최종 목표이다.

Deardorff(2009:14)에 따르면, 지식과 이해 및 기술은 일부 태도의 성향들을 전제로 하며, 전제적으로 태도, 지식과 이해, 그리고 기술은 능력의 재귀적(recursive)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결과는 그것들(능력의 재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을 생산하는 요소들의 결과이다. 이

러한 경우 태도, 지식, 기술 및 산출된 행동을 말한다.

UNESCO(2013)의 <상호문화능력의 개념 및 운영 체계(Intercultural Competences Conceptual and Operational Framework)>에서 ‘상호문화능력의 나무모형(The Intercultural Competences Tree, a visual conceptualiza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호문화능력에 관한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정합(整合)하여 각각의 관계를 밝혔다.



[그림 7] UNESCO(2013)에서 제시한 상호문화능력의 나무모형

UNESCO(2013: 22)에 따르면, 상호문화능력의 나무모형(Intercultural Competences Tree)은 유기적인 개념체계로서 상호문화능력의 상징적인 견해를 제공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의 핵심 개념은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상호문화적 대화(Intercultural Dialogue), 인권(Human Rights)이다. 이는 전체의 일부로서 다른 많은 개념들이 이를 지원하며, 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의사소통이다.

‘문화’ 및 ‘의사소통’은 나무의 뿌리(Roots)가 되고, 이 모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이 없으면 ‘상호문화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정체성(Identity), 가치관(Values), 태도(Attitudes), 믿음(Beliefs) 등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은 언어(Language), 대화(Dialogue), 비언어적 행위(Nonverbal behavior) 등을 포함한다.

나무의 몸통(Trunk)은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인권(Human Rights), 상호문화적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를 포함한다. 이는 핵심이다. 상호문화능력은 이 3가지 개념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이 3가지 목표로 돌아온다. UNESCO(2013: 22)에 따르면, 상호문화능력(지식, 기술 및 태도뿐만 아니라 그림7에서 언급한 새로운 개념들을 모두 포함한다)은 문화 다양성의 존재에 대한 필수적인 응답(response)이다(일반적인 문화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에도 밀접한 연관된다). 상호문화능력은 상호문화적 대화에 투입한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특히 언어와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 또한, 인권은 상호문화적 대화를 요구하며 이에 의해 생긴다. 이 관계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UNESCO 협약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된다면 보호되고 촉진 될 수 있다"(2005, 미술. 10A).

나무의 5개의 가지(Branches)는 상호문화능력을 운영하는 5개 단계이다. 즉, 상호문화능력의 분명함(Clarify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상호문화능력의 교수(Tea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상호문화능력의 촉진(Promot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상호문화능력의 지원(Support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그리고 상호문화능력의 실시(Enacting Intercultural Co

mpetences)이다.

나머진 부분은 나무의 잎이고, 그림에서 제시한 듯이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탄력성(Resilience), 창조력(Creativity), 공유 정신(Ubuntu) 등이 있다. 일부 잎은 자유롭게 남겨져, 살아있는 이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문맥의 다양성에 보완 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보면, UNESCO(2013)의 상호문화능력 요소는 이전 연구보다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였다. UNESCO(2013: 22)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은 warm ideas로 모사될 수 있다. 이들은 상호문화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상호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을 상호문화능력의 나무모형(Intercultural Competences Tree)에 보여 지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이들 사이의 더 정확한 관계가 있다.

Deardorff(2011)는 UNESCO를 위해 준비된 5개 지역 보고서(Dragičević Šešić & Dragojević, 2009; Grimson, 2011; Holmes, 2009, Steyn, 2009, Youssef, 2011)를 요약하여 상호문화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이해되는 기술 및 능력의 최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52)</sup>

- 존중(‘타인의 가치 평가’);
- 자아인식/정체성(‘우리가 각각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를 이해하기’);
- 다른 관점/세계관에서 보기(‘이 두 시각이 어떻게 비슷한지와 다른지’);
- 경청(‘진정한 상호문화적 대화에 참여’);
- 적응(‘일시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동 가능’);
- 관련짓기(‘지속적인 상호문화적 개인 유대(紐帶)를 구축하기’);
- 문화적 겸손(‘자아인식과 존경을 결합하기’).

종합하여 보면 상호문화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요소들로 제시하였지만, 공통적으로 ‘태도(Attitude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태도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장 기

---

52) UNESCO, 2013, p14, 재인용.

초적인 요소로 보고, 상호문화능력의 전제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능력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하며, 최소한 가져야 할 요소는 ‘태도, 지식, 기술’ 세 가지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 태도: 상호문화능력의 다른 요소들, 즉 (여기서는)지식 및 기술을 갖추는 기반이다. 상호문화적 상호작용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편견이라 할지라도 상호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수성/ 수용적인 태도 -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와 일종의 상호 의존 관계이며,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수립하고 유지하는데에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호기심, 개방성, 존중 및 유연성을 포함한다.

. 호기심(curiosity)

· 개방성(openness): (자신에 의한 믿음(혹은 신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상호문화적 학습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 대한 개방성(열려있는 마음)/ 편견을 갖지 않다/편견 보류. )

. 존중(respect): 타인의 의사, 신념 및 행동과 관련하여 불신과 판단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문화적 겸손(자아인식과 존경을 결합하기)

. 유연성(flexibility): 상호문화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감수한다. 자아인식(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각각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를 이해한다. 다양한 관점과 인지적 유연성을 갖추으로써 상호문화적으로 공감한다.

- 지식: 문화에 대한 지식(자국 문화 지식과 (상호대화자가 속하는)상대국 문화 지식) 및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의)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문화에 대한 지식은 다소 정제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존재한 것이다.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지식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며, 성공적인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이지만 자동으로 획득되지는 않다.

- 기술: 지식과 태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해석, 경청, 변환, 관련짓기, 발견/상호작용, 평가, 적응, 중계 기술을 포함한다.
- .해석 기술: 다른 문화의 상징, 자료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문화와 경험(혹은 관점)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 .경청 기술(진정한 상호문화적 대화에 참여)
- .변환 기술: 다른 관점/세계관에서 보기(이 두 시각이 어떻게 비슷한지와 다른지) 또한, 공감
- .관련짓는 기술: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각각의 문화체계 내에서 설명하여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매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속적인 상호문화적 개인 유대(紐帶)를 구축하는 기술이다.
- .발견/상호작용 기술: 상호대화자에게 내면화된 관념이나 가치관, 상호문화 소통 현상 속에 전제된 문화적 함의를 발견해 내고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상호행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어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비추어 인지하여 실제 소통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진 지식과 태도, 능력을 종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 .평가 기술: (비판적인 문화의식)
- .적응 기술: 일시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동 가능,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한다.
- .중계 기술: 예민한 상황/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문화 사이에 중계자 역할

### 2.1.3.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방향

UNESCO(2006)에서 상호문화교육은 21세기 교육 발전의 추세이며, 문화 다양성의 기회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교육의 발전 방향을 밝혔다. 교육 방법, 교수 내용, 사회 집단의 의무, 원칙, 교사에 대한 요구 및 미래의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호문화교육의 정의와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며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한다.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문화 가치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상호문화교육은 각 학습자에게 사회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학습자가 의사소통능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를 듣고 참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접근법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개인, 사회, 민족, 문화, 종교 집단, 국가 간의 공존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민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인정한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적 접근법으로 통해 성취된다.

UNESCO의 발전 방향과 본 연구의 2.1.2에서 제시한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방향과 종합하여 보다 구체화를 높이는 문화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교육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 대상으로 하든 그의 고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은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어,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이루어지게 한다.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더 나아가 인류

문화의 보편성 및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인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내용으로 수용하고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은 모국 문화가 전제이며, 모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문화충첩상황(즉, 상호문화적인 것)이 나타난다.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속하는 집단에 따라 교육 내용, 교육 목표 등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에 있어 지식보다 기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sup>53)</sup>

다섯째, 상호문화적의 상호<sup>54)</sup>는 타인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있으므로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호되는 상대 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상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방향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해야 하고, 상호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의 연구부터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으로 Ⅲ장의 데이터 분석과 Ⅳ장의 한국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

53) Byram(2018)에 따르면, 문화교육에 있어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학습자의 발견 기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내용은 생활경험과 연결해야 수업활동에 학습자들에게 발견의 기회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郑晓红, 2018: 82, 참조).

54) 유럽의 상호문화교육<sup>75</sup>: 상호문화에서의 '상호'라는 접두사는 사람들이 타인을 보는 방법과 자신을 보는 방법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식은 타인이나 자신의 특성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주어진 문화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관계 그 자체이지 관계를 정의하는 특성이 아니다.

## 2.2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이 절에서는 문화교육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 문화의 다양한 내용 중 핵심인 가치관이 교육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하고 이의 뜻을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각 혹은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가치관교육의 내용을 분석과 설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기초 이론이 될 것이다. 마지막 2.3은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가치관교육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다.

### 2.2.1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관점이다’이라고 직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치관이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 나라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가치관들이 있고 개인 차원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과 앞에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하였던 가치관이라는 용어의 사용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 세 가지 언어의 대표적인 사전에서 가치관의 개념을 찾아본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가치, 가치관, 가치문화, 관념문화, 정신문화, 사상문화 등 유사하면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가치’라는 용어를 위주로 하여 그에 ‘관’을 붙여서 ‘가치관’, ‘문화’를 붙여서 ‘가치문화’로 사용하

고 있다. 용어 사용의 혼란 혹은 번역 상 상의를 피하기 위해 보다 이의(異議)없는 영어인 ‘values’에서 출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sup>55)</sup> 영어의 ‘values’는 한국어로 ‘가치’ 및 ‘가치관’으로 번역되어 있고 중국어로 ‘价值观(가치관)’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values’, 한국어의 ‘가치’ 및 ‘가치관’, 중국어의 ‘价值观(가치관)’을 세 언어 대표적인 사전에서 제시된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중국어 〈現代漢語詞典(第7版)〉	영어 〈Oxford English Dictionary〉
가치관	가치 <sup>56)</sup> -관(價值觀)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	가치에 대한 특정 신념, 경향, 주장 및 태도에 대한 관점, 행동지향, 평가 기준, 평가 원칙 및 척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동의 원칙 또는 기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의 판단

[표 5]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사전에서 가치관의 개념

한국어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치관’을 ‘가치(價值)’의 어원에서 ‘관(觀)’을 덧붙여 가치관(價值觀)이라는 용어 형성하여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라는 뜻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어의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는 가치관을 ‘가치에 관한 일정한 신념, 경향, 주장 및 태도의 관점으로 행동지향, 평가기준, 평가원

55) Geert Hofstede는 가치관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제시하는 데에 ‘values’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대표 설문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世界價值觀調查, World Values Survey)〉에서도 ‘values’를 사용한 것이다.

56) ‘가치06(價值)

「1」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2」 「철학」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3」 「철학」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치’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values’는 사람의 관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values’에 대한 ‘가치’라는 번역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칙 및 척도의 역할을 한다.’의 뜻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의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가치관(values)을 가치(value)의 해석의 두 번째 뜻에서 values로 제시하여 ‘행동의 원칙 또는 기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의 판단’의 뜻으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언어사전에서 제시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가치관(價値觀, values)’이 가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두 번째, 가치관은 사람의 판단 혹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 언어사전에서 ‘가치관’에 대한 해석은 매우 간단하게 제시하였으나 이 해석들로 가치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에 무리가 있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학용어사전> 및 <행정학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교육학용어사전<sup>57)</sup>의 가치관(價値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생활의 여러 국면(局面)과 과정(過程)에서 가치판단이나 가치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되게 작용하는 가치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혹은 신념의 체계적 형태. 인간 생활의 여러 국면과 과정에 따라서 세계관·인간관·사회(국가)관·역사관·예술관·교육관·직업관 등의 어느 하나 혹은,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학 용어사전<sup>58)</sup>에서는 가치관(價値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觀點).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가치관의 개념에는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있다. 개인적 가치관은 개인의 선호 의지에 따라 명백해지는 데 반하여 사회적 가치관은 개인적 가치관이 보다 추상화될 수 있는 보다 범위가 넓고 안정적이며 공식성(公式性)을 지닌 전체 사회 문화의 공약(公約)을 의미한다.

또한, Geert Hofstede의 문화와 가치관의 관계를 ‘양파’모형<sup>59)</sup>으로 제시하

5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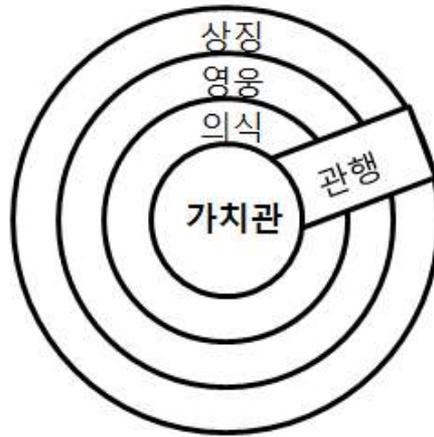
58)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59) 문화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가장 피상적인 수준인 상징이며, 가장 깊은 수준인 가치관,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영웅과 의식이다.

상징 · 영웅 · 의식을 관행(practices)으로 구분한다. 관행은 문화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문화집단 내 구성원들의 관행에 대한 해석이 문화의 의미가 된다.

상징은 문화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 · 동작 · 대상 · 그림을 가리키며 집단 내에

면서 문화의 핵이 가치관이라고 명명하여 이에 대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림 8] Geert Hofstede의 문화 형태

가치관(values)는 어떠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어린 시절 기본적인 가치를 습득하고 확고한 가치체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가치관은 인간 정신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가치관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른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문화에서 가치관은 관행보다 더 안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화 비교연구는 가치관의 측정을 기점으로 한다. 집단의 문화차이는 관행 수준에서 나타나지만 국가 간 문화 차이는 가치수준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世界價値觀調查 World Values Survey)<sup>60</sup>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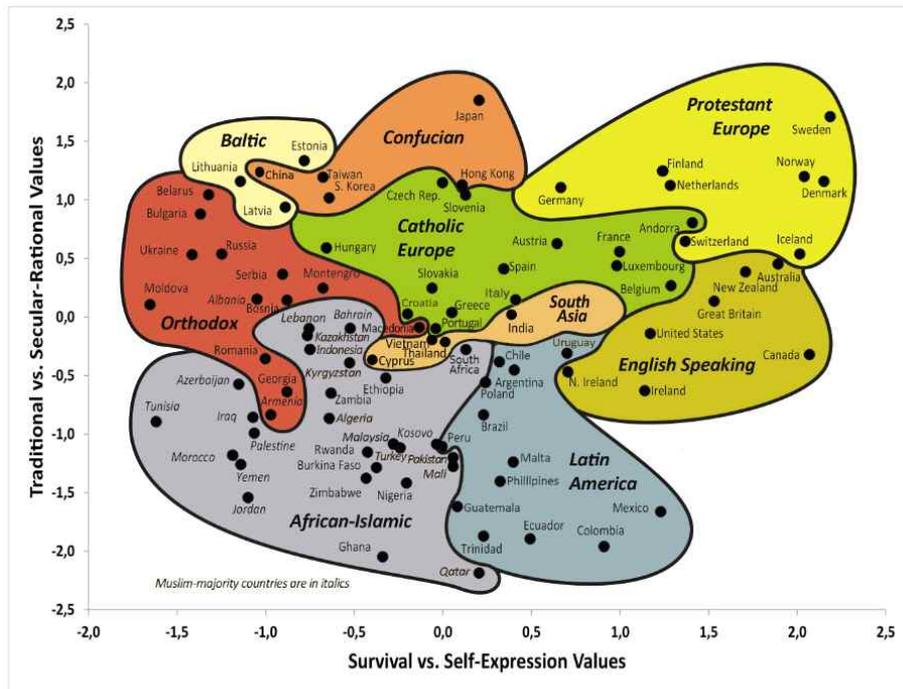
---

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다른 문화집단들로 확산되기도 한다.  
 영웅이란 문화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뜻하며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환상이나 콘텐츠 속의 주인공들도 문화적 영웅으로 볼 수 있다.  
 의식은 문화 내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하며 관습이나 사회적, 종교적 의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 실천된다.

60) 세계 가치관 조사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두고 있는 WVS Association과 WWSA Secretariat가 있는 국제 학자 팀이 주도하여 변화하는 가치와 사회적 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WVS는 공통 설문지를 사용하여 세계 인구의 거의 90 %를 차지하는 거의 100 개 국가에서 실시 된 전국 대표 설문 조사로 구성된다. 전 세계의 주요 문화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를 겪고 있는 유일한 학문 연구이다.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가치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중국과 한국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세계 가치관 조사(WVS)는 Wave 6 (2010-2014)에 해당하여 중국은 2012년, 한국은 2010년에 조사하였다. 문화지도(61)를 통하여 양국은 모두 유교문화권에 속하더라도 가치관이 차이 있다는 것을 보이며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다음에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2010-2014)년의 가치관 조사결과를 반영된 문화지도이다.



[그림 9] 문화지도-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2010-2014)

세계 문화지도는 두 차원에서 사회의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이 지도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 이성적으로 이동하

61) 잉글 하트 - 웰젤 문화지도

정치 과학자 인 Ronald Inglehart와 Christian Welzel이 작성한 WVS 데이터의 분석은 세계에서 교차 문화 변동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가치와 세속적 - 합리적인 가치 Traditional values versus Secular-rational values  
생존 가치 대 자기 표현 가치. Survival values versus Self-expression values

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생존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로의 이동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종교의 중요성, 부모 - 자녀 관계, 권위에 대한 존중 및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한다.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한 이혼, 낙태, 안락사 및 자살을 거부한다. 이 사회는 높은 수준의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주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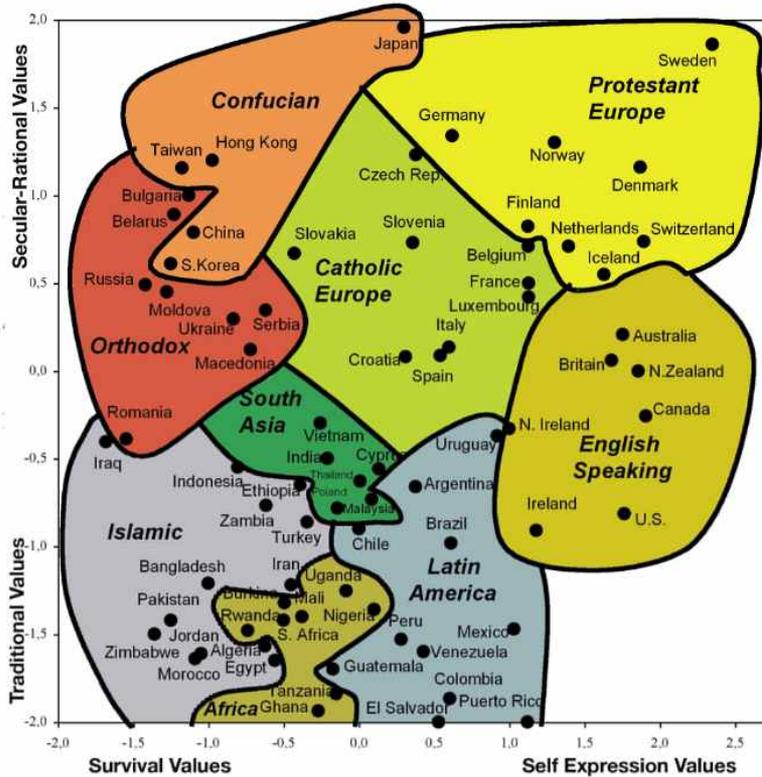
세속적 - 합리적인 가치는 전통적 가치와 반대의 선호를 갖는다. 이 사회는 종교, 전통적인 가족 가치 및 권위에 대해 덜 강조한다. 이혼, 낙태, 안락사 및 자살은 비교적 받아들일 만하다.

생존 가치는 경제 및 물리적 안전에 중점을 둔다. 상대적으로 민족 중심적인 전망과 낮은 수준의 신뢰와 관용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표현 가치는 환경 보호, 외국인, 게이 및 레즈비언 및 남녀평등에 대한 관용 증가,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의 의사 결정 참여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을 우선시한다.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2010-2014)을 반영한 문화지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세속적 - 합리적, 생존이고, 한국인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며 자기표현에 속한다.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가치관조사를 반영한 2008년 문화지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0] 문화지도-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5 (2008)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5(2008)을 반영한 문화지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세속적 - 합리적, 자기표현이고, 한국인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며 생존에 속한다. 이는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2010-2014)에 결과를 비하여 중국인의 가치관이 생존 가치 관념에서 자기표현 가치 관념으로 변화하여, 한국인의 가치관이 반대로 자기표현 가치관에서 생존 가치관에 가까워 졌다. 전통적인 가치 관념 대 세속적 - 합리적인 가치관은 양국에 지향성이 변함없지만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5 (2008)의 결과보다 wave 6(2010-2014)의 결과에 양국은 모두 세속적 - 합리적인 가치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가치관은 한자는 價值觀<sup>62)</sup>로 표시하며, 영

62) 이는 중국어의 价值观念和 호응한 것이다.

어는 values이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의 하나 독립된 개념과 구별하여 보다 광범위 개념으로서 ‘가치관(價値觀, values)’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치관(價値觀, values)’이란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이 사상(事象)에 대한 근본적 태도: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생활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의 가치관은 태도, 생각, 관점, 의식, 관념, 사상, 사고방식, 믿음 등 다양한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한다.

② 광범위적인 개념: 세계관·인간관·사회(국가)관·역사관·예술관·교육관·직업관 등의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

③ 사회적 가치관: 국가 간 문화 차이는 가치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관이 아닌 그 나라에서 주도(主導)가 된 사회적인 가치관,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한 사회(집단)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집단)적인 가치관이다. (개인적 가치관은 명백한 특성의 반면에 사회적 가치관은 넓고 안정적이다. 추상화이며 공식성(公式性)이 있다. )

④ 대립 면을 가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옳거나 틀리다,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이다.

⑤ 현시성(現時性) 및 역동성(逆動性)이 있다.

## 2.2.2 가치관교육 논의 양상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서구의 인류학자에 의하여 시작하였다. 그 뒤로 일부의 심리학자 및 인류학자들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가치관의 구성요소 등 면에서 각자 다른 나라 혹은 민족의 가치관에 대해 비교 및 대비를 진행하여, 여러 가지의 가치관 이론모형을 제의되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론은 Kluckhohn & Strodtbeck(1961), Geert Hofstede(1980, 2010)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kluckhohn & strodbeck(1961)	Geert Hofstede (1980, 2010)
① 인성 지향	① 권력거리: 평등 및 불평등
②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향	②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③ 시간 지향	③ 남성적 및 여성적
④ 인간의 행동양식의 지향	④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및 수용
⑤ 타인과 관계의 지향	⑤ 장기지향 및 단기지향

[표 6] 가치관의 여러 이론들

Kluckhohn & Strodbeck(1961)는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책에서 5 가지 가치관지향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많이 사용하게 된다. Kluckhohn & Strodbeck(1961)은 모든 사회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선호되는 해결책이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luckhohn & Strodbeck(1961)의 가치관 지향 이론의 기초는 3가지의 가정에 있다. 첫 번째,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민족이든 특정한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한적이거나 임의적이지는 않으며, 일련의 선택 혹은 가치관 지향에 따라 변화한다. 셋째, 각 가치관 지향은 모든 사회와 개인에 존재하지만, 각 사회와 개인이 가치관 지향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따라서 5가지 가치관 지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인성 지향: 인성의 착함(Good), 인성의 사악함(Evil) 혹은 착함과 사악함의 혼합함(Mixed);
- ②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향: 지배(정복)(Mastery), 복종(순종)(Submissive) 혹은 조화로움(Harmonious);
- ③ 시간 지향: 과거(Past), 현재(Present) 혹은 미래(Future);
- ④ 인간의 행동양식의 지향: 존재(being), ...이 되다(being-in-becoming) 혹은 하다(doing);
- ⑤ 타인과 관계의 지향: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부수적(Collateral) 혹은

계급적(Hierarchical).

Geert Hofstede의 가치관 측정 척도는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분석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나 세계조직행태과성(GLOBE)의 측정도구도 이 가치관 척도를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최성욱, 2015: 2, 재인용). Geert Hofstede는 미국 IBM에 근무하는 50여 개국의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가치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마다 권위·불평등·개인과 집단의 관계·젠더·감정표현 등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며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문화차원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의 연구에서 드러난 국가 혹은 사회의 공통된 문제들을 권위와의 관계·개인과 사회의 관계·남성성과 여성성 개념·공격통제와 감정표현을 포함한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홉스테드는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켈리스와 심리학자 레빈슨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문제이며 국가나 집단, 그리고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통된 기본적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Geert Hofstede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남성적 및 여성적·권력거리·불확실성회피의 4가지 차원에서 문화적 속성을 구분하였으며 이후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의 5번째 문화차원을 제시하였다. 5가지 가치관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권력거리: 한 사회가 조직의 권력이 각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②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개인 및 집단 간의 관련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주의는 한 국가의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집단주의와 대립된다.
- ③ 남성적 및 여성적: 성별 및 사회 역할을 의미한다.
- ④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및 수용: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조직이나 집단이 느끼는 위협과 안전 규칙 및 기타 수단을 개발하여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시

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⑤ 장기지향 및 단기지향: 유교적 노동 역동성이라고 하며, 인생 태도를 의미한다. 인생 태도가 형성되는데 미친 ‘공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치관은 대립 면을 가지며,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지향이 나타난다. 가치관 지향의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 혹은 집단을 구별하게 된다. 이는 역시 앞에 제시한 본 연구의 가치관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 내용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에서 제시한 가치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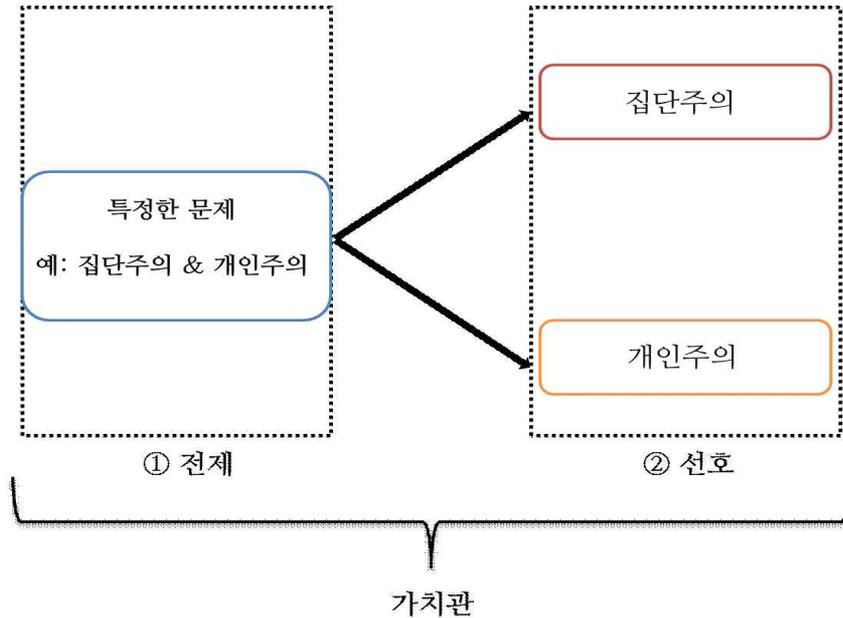
제안자	가치관에 대응한 용어	구체적인 내용
조향록(2004)	사상 문화	홍익인간, 주자학적 인간관, 불교사상, 유교사상, 실학사상, 동학사상 등 한국인의 사상적 원류와 주요 특징, 한국의 근대적 민족주의, 한국에 존재한 냉전 이데올로기, 한국적 상황의 자주 이데올로기 등
	관념과 가치관	‘우리 의식’, ‘가족주의’, ‘효(孝)’, ‘정(情)’, ‘한(恨)’, ‘체면’ 등 한국인의 관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주요 개념,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물질 중시 관념, 새마을 정신, 세대 갈등 등 현대에 등장한 주요 관념 또는 가치관. 그 밖에 한국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행위 규범과 사회 예절
박영순(2006)	정신문화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 체계, 사상, 종교 및 종교관
강현화(2007)	가치문화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다른 것은 틀

		린 것, 유교적 역동성, 한국인의 신명, 한국의 종교와 엑스터시, 혼돈을 통한 한국인의 미의식, 남·북한의 문화와 통일 지향, 변화하는 가치보기
임경순(2008)	관념문화	가치관, 정서, 종교, 사상, 제도 등
권오경(2009)	관념문화	가치관, 민족성, 정서, 사상, 신앙

[표 7] 한국문화교육에서 제시된 가치관 내용

본 연구의 가치관 개념에 따라 조항록(2004)의 ‘사상 문화’ 및 ‘관념과 가치관’ 항목은 모두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가치관 항목들은 주로 한국인의 가치관 내용들로 제시하였다. 박영순(2006), 임경순(2008)과 권오경(2009)은 가치관 내용을 보다 개괄적으로 광범위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강현화(2007)는 Geert Hofstede의 가치관 척도를 응용하여 다시 재분류한 것으로 Geert Hofstede의 가치관 척도 내용과 한국인의 가치관 내용을 혼합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권위주의, 유교적 역동성’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가치관 내용(남북한의 문화와 통일 지향 등)을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한 문제에 대한 선호도 혹은 대립 면을 가진 가치관 개념이 아니라 한국인만의 가치관(사상 혹은 정신)을 위주로 제시한 것이다. 즉, ‘하나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제가 된 것은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에 대한 제시는 서구와 한국문화교육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구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가치관 지향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 혹은 집단을 구별하게 된 것으로 가치관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지향(즉 선택, 혹은 선호)이나 대립 면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문화교육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Geert Hofstede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척도와 혼합하여 제시하거나,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에 있어 가치관교육 내용은 가치관의 개념에 충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림 11] 가치관교육 내용의 제시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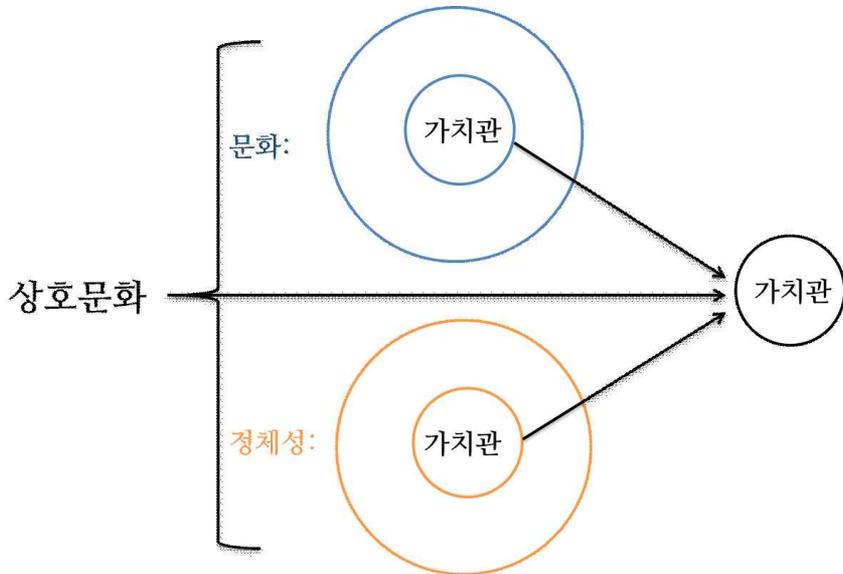
가치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혹은 주제)가 전제되어야 이에 대한 선택, 판단 혹은 선호가 나타나며, 이 선호도에 따라 가치관(혹은 문화)이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전제인 특정한 문제(혹은 주제)가 먼저 나타나야 문화 집단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라는 특정한 문제(혹은 주제)에 한국은 집단주의(혹은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 2.3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교육

Geert Hofstede에 따르면, 문화의 핵심은 가치관이다. 상호문화의 핵심은 문화와 정체성이며(Martine Abdallah-Pretceille(2004: 15)<sup>63</sup>), 정체성의 핵심은 가치관(가치체계)이다(Verbunt, Gilles(2001: 144)). 따라서 상호문화의 가

63) ‘상호문화에는 문화, 정체성, 민족, 인종, 민족성과 같은 개념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핵심을 이루는 문화와 정체성 개념은 재능, 자유, 지능처럼 이론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므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장 핵심은 가치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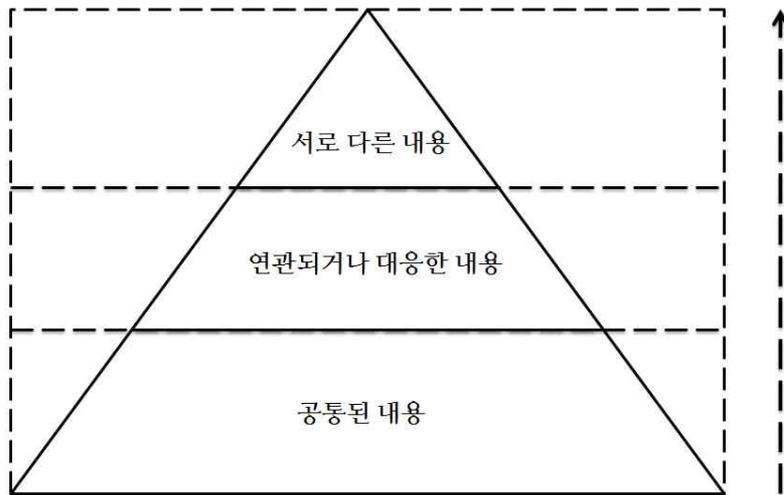
[그림 12] 상호문화와 가치관의 관계

가치관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의 복합적이고 위계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즉 가치체계를 구성한다. 가치체계는 상호문화적 만남의 핵심이다. 실제로 사회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자기 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여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체계와 사회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Verbunt, Gilles, 2001: 144, 재인용).

앞에 제시했듯이 가치관은 문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의 핵심은 가치관교육이다.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하며, 상호문화적 만남의 핵심은 가치관(가치체계)이다. 이를 정리하면, 상호문화적 접근과 가치관은 서로 얽혀있으며 불가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적 만남에 있어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가치관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가치관을 실제로 교수할 때 어떠한 가치관을 먼저 교수할까?

문화교육, 가치관교육은 언어교육의 부가적인 것이 아님으로 언어 수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가치관 교육

은 상호문화적 만남이다. 이에 제2언어교육에서 가치관을 교수할 때는 모국문화와 목표문화의 가치관을 비교대조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두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 후 두 문화에서의 비슷한 가치관이나 대응시킬 수 있는 가치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순서로 교수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제2언어교육에서의 가치관 제시 순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문화교육을 할 때 학습자는 모국문화에서 이미 습득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목표문화를 학습한다. 그러므로 가치관교육에서 이미 모국문화에서 습득한 가치관을 먼저 교수한다면(보편) 그렇지 않은 가치관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후에 두 문화 간에 대응시킬 수 있거나 비슷한 가치관을 교수하여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시각, 상호문화능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문화의 접점이 없는 가치관을 교수한다.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가치관을 학습한 학습자는 상호문화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 드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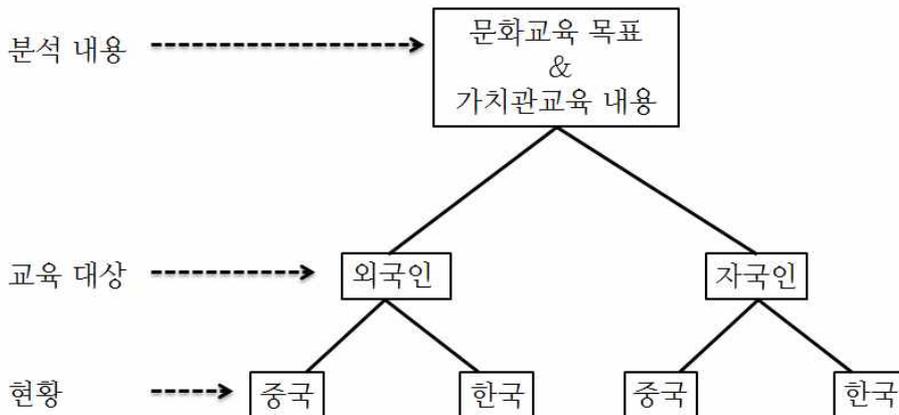
Martine Abdallah-Pretceille(2004: 27)는 ‘우리 고유의 사회 속에서 문화라는 변수, 즉 문화 개념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에 속한다고 자처

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문화의 사회적·의사소통적 사용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화교육에 있어 가치관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느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아닌 두 나라(혹은 두 문화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가치관교육 양상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나라의 가치관교육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두 나라(혹은 두 문화권)을 한 세트로 묶어 분석해야 한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대한 연구이므로 Ⅲ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Ⅲ. 상호문화적 접근을 위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 보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가치관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 체계나 한국어교재 분석을 통하여 가치관교육 항목을 살펴보는 데 그친다. 그러나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있어 모국 문화가 전제되므로 한국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외국인과 자국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혹은 관점)이 병행(並行)하므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하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4] 분석 내용 및 절차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모국 문화를 전제로 학습되므로 양국 간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하며, 상호문화적 접근(혹은 관점)이 문화교육의 전 과정에 관통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역시 상호문화적 접근(혹은 관점)이 병행(並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 상호문화적 접근(혹은 관점)이 관통한다.

앞에 1.2에서 제시했다시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3.1에서는 문화교육 목표의 문제점들을 실제로 파악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제2외국어의 문화교육이므로 상호문화적 접근(혹은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과 한국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므로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모국의 문화를 전제로 학습된다.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3.2에서는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필연적인 중국인의 모국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로 한국의 의무교육을 통해 형성된 여러 능력들과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인의 모국문화 교육을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2외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는 모국문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외국 문화를 교육할 때는 상호문화적 교수법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모국문화가 필연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데(학습하는 데) 중국문화를 전제로 하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3.2.에서는 중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분석을 통해 자국인을 교육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에게

내재되어 문화교육을 연구할 때나 교수할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능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즉 한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국가	교수학습대상	분석자료		추출 항목
중국	외국인 학습자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		문화교육의 목표 문화능력 가치관
		공자학당 교재		가치관
한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		문화교육의 목표 문화능력 가치관
		세종학당 교재		가치관
중국	자국인 학습자	의 무 교 육 신 ( 新 ) 과 표 (2011년판)	어문	문화능력
			도덕	문화교육의 목표 문화능력 가치관
한국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	국어과	문화능력 문화교육의 목표
			도덕과	문화능력 가치관

[표 8] 분석 자료

정리하여 보면, 중국과 한국 양국의 3.1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 및 3.2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하며 교육대상에 따른 양국의 문화교육의 양상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양국의 문화교육 능력을 대조하고자 한다. 또한, 가치관교육의 내용을 대조하여 IV장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 3.1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

이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실제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은 양국의 국가 차원 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제2외국어교육의 양국 언어교육에 있어 대표적인 참조 기준이다. 분석 자료로서 보다 대표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I장에서 제기한 문제와 같이 문화교육 내용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이러한 참조 기준에 따라 교육하는 양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이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의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해 다루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은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자국의 가치관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가치관교육 내용의 차이, 그리고 참조 기준에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도 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절의 분석 결과는 다음 절의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의 분석 결과와 대조하여 양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과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에 있어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3.1.1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 중에 문화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은 중국의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이

고, 한국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이다.

중국의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이하 <대강>으로 약칭)은 (이하 <대강>으로 약칭) 전 세계적인 한어교학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여, 한어교학 내용의 표준화에 대한 각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자학원본부/국가한판(國家漢办)<sup>64</sup>에서 조직하여 개발한 것이다. <대강>은 한어가 제2외국어로서 과정 목표 및 내용을 정리 및 설명한 것이며, 한어교학기관 및 교사가 교육 계획 개발, 학습자의 언어능력평가 및 교재개발 등에 참고근거와 참조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sup>65</sup>(4단계, 2017)>(이하 <4단계>으로 약칭)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춰 변형·적용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참조 기준이다. 이는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sup>66</sup>와 체결하여 작성되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범용화와 범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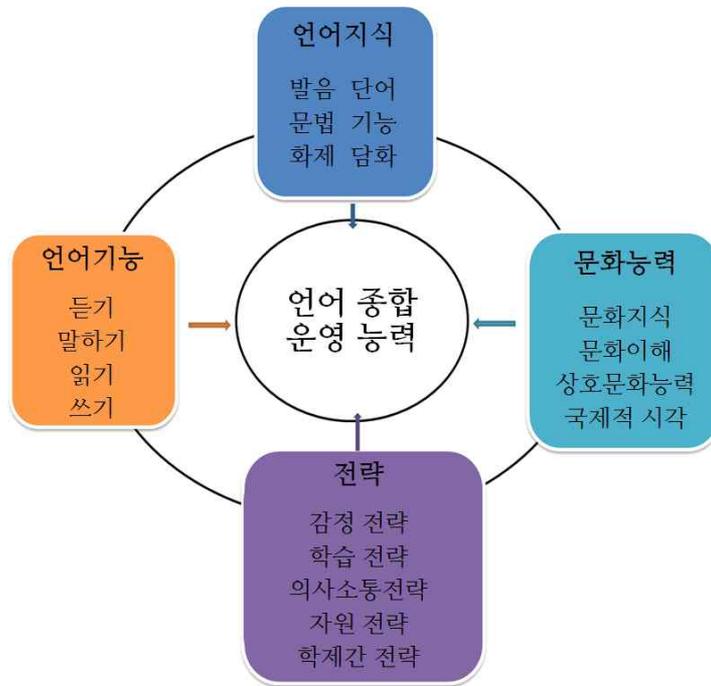
### 3.1.1.1 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강>은 제2외국어로서 한어교육의 총괄 목표의 구성관계도를 [그림 ]과 같이 제시하였고, 그 후에 등급별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64) 국가한판(國家漢办)은 중국 교육부 직속 교육기관이며, 전 세계의 한어언문화의 교육 자원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해외 한어 학습자의 요구를 극대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다원문화를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국가한판(國家漢办)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나라에 모든 수준과 부문의 교육기관의 한어교학 및 중화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에 지원한다. 국제한어교사표준, 국제한어능력표준 및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의 개발, 완성 및 홍보한다. 해외 한어교사 및 자원 봉사자를 선발 및 교육한다. 한어능력시험을 개발 및 시행한다. ‘공자신학(漢學)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중국 연구의 발전을 지원한다. 공자학원 장학금을 조직하여 관리하며, ‘한어 브리지(Chinese Bridge)’ 시리즈 경기 등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한어교학 네트워크, 텔레비전, 입체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원을 제공한다. (공자학원본부/국가한판 홈페이지 <http://www.hanban.edu.cn/>)

65)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국립국어원), pp. 192-209.

66)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은 한국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개정하거나 표준말을 사정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며, 또한 어문 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발간하여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 연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국어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그림 15]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목표 구성 관계도

<대강>은 한어 교육을 통해서 언어 종합 운영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 종합 운영 능력은 언어지식, 언어기능, 전략, 문화능력 네 가지로 구성된다. 문화교육과 관련된 것은 문화능력(文化能力, cultural competence)으로 문화교육의 목표는 여기에서 제시된 문화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능력은 학습자가 국제적 시각<sup>67)</sup>(国际视野, international perspective) 및 다원(multicultural)문화능력을 갖추며, 보다 더욱 적절한 언어 사용의 배양하는 데에 필수요소이라고 제시하였다.

<대강>의 문화능력 부분은 문화 지식(文化知识, cultural knowledge), 문

67) ‘国际视野, international perspective’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국제적 시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国际, international’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视野, perspective’는 중국어(視野)에 따르면 한국어로 ‘시야’가 되고 영어(perspective)에 따르면 한국어로 ‘관점, 시각’으로 번역된다. 중국어의 ‘视野’는 ‘国际’와 같이 사용할 때 ‘안목 혹은 시각’의 뜻이며, 여기서 영어(perspectiv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과 같이 ‘시각’과 통일하다. 그러므로 용어를 ‘국제적 시각’이라고 번역한다. 국제적 시각은 국제적 안목 혹은 관점을 포함한다.

화 이해(文化理解, cultural understanding), 상호문화능력(跨文化能力, cross-cultural competence<sup>68</sup>)과 국제적 시각(国际视野, international perspective)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연령별 특성과 인지 능력에 맞추어 가르칠 문화 지식의 내용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생의 시야를 넓히고, 학습자가 세계 다원 문화 속의 중국 문화 지위와 작용 및 세계 문화 공헌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능력(문화지식, 문화이해, 상호문화능력, 국제화시야)을 등급별 총괄 목표로 제시하였다. 등급별 총괄 목표 중에서 제시한 문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등급	문화의 목표
1급	중국의 문화 지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초보적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추기 시작한다.
2급	중국의 문화 지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초보적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춘다.
3급	간단한 중국 문화 지식을 이해하며, 일반적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춘다.
4급	기본적인 중국 문화 지식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춘다.
5급	중국 문화 지식을 비교적 깊게 이해하며,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춘다.
6급	중국 문화 지식을 깊게 이해하며,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춘다.

[표 9]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등급별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

등급별 총괄 목표에서 제시한 문화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도표 형식 총

68) 龙滨, 李雪艳(2013)에 따르면, 중국은 1988년에 출판된 <교육대사전>에서 ‘상호문화교육(cross-cultural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편저(編著)하여, 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 후 이에 관한 연구는 UNESCO의 연구보고서에 많이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UNESCO는 ‘상호문화적’의 영어는 ‘intercultural’로 표시하여, 중국어는 ‘跨文化’의 용어로 영어의 ‘cross-cultural’ 및 ‘intercultural’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

괄 목표에서 제시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문화교육의 목표의 4가지 요소 즉, 문화지식, 문화이해, 상호문화능력, 국제적 시각을 등급화를 시켜,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문화지식과 문화이해는 시작에서 깊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은 초보적 수준에서 갖추는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이든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교육이든 그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이점에서 <대강>의 문화교육 목표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상호문화적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는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대강>의 등급별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의 모든 등급에서도 상호문화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급별 상호문화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등급	상호문화능력
1급	1.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2.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배양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 3. 교사의 지도하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 상호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의식을 배양하기 시작한다.
2급	1. 초보적으로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해 생각;

	<p>2.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진일보 상호문화능력의 중요성 이해;</p> <p>3.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문화의 대비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현상에 대해 초보적·객관적인 사고하기 시작;</p> <p>4. 교사의 지도하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 상호 촉진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기 시작한다.</p>
3 급	<p>1. 초보적으로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이해;</p> <p>2.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초보적인 상호문화능력을 배양 시작;</p> <p>3.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문화의 대비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풍습과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p> <p>4. 교사의 지도하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 상호 촉진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p>
4 급	<p>1. 기본적으로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이해;</p> <p>2.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진일보한 상호문화능력을 배양;</p> <p>3.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문화의 대비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풍습과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p> <p>4.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 상호 촉진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p>
5 급	<p>1.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이해;</p> <p>2.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배양;</p> <p>3.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문화의 대비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풍습과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p> <p>4. 적극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 상호 촉진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p>
6 급	<p>1. 진일보한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이해;</p>

2. 진일보한 중국문화의 학습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배양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중국의 문화 교류 과정 중의 징검다리 역할을 의식적으로 배양;
3. 진일보한 중국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문화의 대비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중국 문화 중 풍습과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심화;
4.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상호 이해, 상호 학습, 상호 촉진, 상호 감상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표 10]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의 등급별 상호문화능력

위에서 보드시피 <대강>의 상호문화능력은 4가지 면에서 제시하였다. 양(兩)문화의 비교, 상호문화능력을 배양하여 징검다리 역할의 배양, 양(兩)문화(풍습과 관습적인 사유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양(兩)문화 사이에 긍정적인 기여이다. 이는 본고의 II장에서 검토한 상호문화능력의 범위보다는 개괄적이고 간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인 <대강>의 문화교육 목표 확인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II장에서 검토하였던 문화교육 목표보다 다소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상호문화적 문화교육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은 일치한다. 다만, 상호문화능력에 대한 목표는 본고에서 제시한 상호문화능력보다 간략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1.1.2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4단계>은 문화의 목표는 우선 총괄 목표<sup>69)</sup>에서 등급별로 기술하고, 다시 문화 목표를 따로 제시하였다. 우선, <4단계>에서 제시된 총괄 목표 중의 문

69) 총괄 목표는 각 등급의 한국어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각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한다.

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등급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 <sup>70)</sup>
초 급	1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중 급	3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고 급	5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의 등급별 총괄 목표 중 문화 목표

<4단계><sup>70)</sup>의 등급별 총괄 목표에서 제시한 문화교육 목표를 보면, 1급에서 4급까지는 단순히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급은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지식에 대해 <4단계>는 문화지식을 일상생활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제시하였다. 1~2급은 일상생활 문화만 제시하고, 3~4급에 올라가서 일상생활 문화에 행동 문화와 성취 문화를 추가하며 5~6급에서는 이에 관념 문화까지 추가하였다.

또한 <4단계>에서는 등급별 목표와는 별개로 문화교육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행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으며 또한 관점을 가지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sup>71)</sup>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4단계>에서 기술한 문화교육 목표는 다음과

70) 각주 63번과 동일.

7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2010)에서는 문화의 하위 범주를 산물, 행위, 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지식, 문화행위, 문화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같다.

문화 목표 기술
1.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의 근현대문화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5.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6.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7. 한국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8. 한국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적용 연구(4단계, 2017)>의  
문화교육 목표

<4단계>의 문화교육 목표를 보면, 문화 교수학습에서 필요한 능력보다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 즉 문화 지식을 많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1~5번까지는 모두 한국의 다양한 문화 내용이 중심되고 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하였다. 다음 6~8번 목표는 여러 가지의 문화능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비교,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 가지기, 한국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 평가하기 등이다. 이는 등급별 총괄 목표에서 제시한 문화교육 목표와 일치하면서 보다 문화지식 혹은 문화능력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총괄목표에서 제시한 4가지 문화 분류(일상생활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더 세부적으로 한국인의 생활방식,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한국의 근현대문화와 전통문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문화 능력은 총괄목표에서 제시한 자국문화와의 비교,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에 한국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를 가지기, 한국문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추가 제시하였다.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인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II장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문화교육 목표보다 제한적이다. 또한, 상호문화능력의 범위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단계>에서 제시한 문화교육 목표는 상호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소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문화능력은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여, 이 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인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상호문화능력보다 한국의 문화지식에 대한 제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화교육의 목표인 상호문화능력을 기르고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하는 것보다 ‘한국문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1.1.3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이상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를 대조하여 보면 다소 차이가 보인다.

국가	중국의 <대강>	한국의 <4단계>
등급 별 목표	① 문화 내용: 중국 문화 지식을 이해하기 시작 ↓ 중국 문화 지식을 깊게 이해  ② 상호문화능력: 초보적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추기 시작 ↓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을) 갖추기	① 문화 내용: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문화를 이해 ↓ 다양한 행동문화, 성취문화, 관념문화를 이해  ② 상호문화능력: 자국의 문화와 비교 ↓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

[표 12]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위 표를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에 위한 문화교육에서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상호문화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에 위한 문화교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호문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대강>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문화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반면에, 한국의 <4단계>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비교나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 이해, 평가 등을 제시하여 상호문화능력을 광범위한 개념이 아니라 제한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교육의 등급별 목표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강>은 등급에 따라 문화 내용(지식)을 ‘기초 - 심층’, 문화능력을 ‘초보 - 갖추기’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4단계>는 등급에 따라 문화 내용과 상호문화능력들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등급이 올라갈수록 문화 내용과 능력이 추가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문화교육 목표는 1급부터 6급까지 똑같은 문화 내용인 ‘중국 문화 지식’, 그리고 문화능력인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이 존재하

나 급에 따라 심화시키는 것뿐이고,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는 1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수록 문화 내용 및 문화능력이 추가된다.

문화 내용을 보면, 중국의 <대강>은 1급부터 6급까지 ‘중국 문화 지식’이라는 문화 내용으로 다루었다. 문화 내용을 세부 분류하지 않았으며, ‘중국 문화 지식’을 하나로 통칭하여 포괄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4단계>는 문화 내용을 네 가지(일상생활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로 분류하여 등급화 시켰다.

문화능력을 보면, 중국의 <대강>은 1급부터 6급까지 ‘상호문화능력과 국제적 시각’이라는 문화능력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문화능력은 등급에 따라 문화능력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것뿐이다. 한국의 <4단계>는 문화 내용과 같이 문화능력도 등급화시켰다. 전 급별에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고 초급에서 자국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5급부터 이에 추가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강>과 한국의 <4단계>에서 제시한 등급별 문화교육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상호문화능력의 범위가 상이하다. 둘째, 한국의 <4단계>는 문화 내용 및 문화능력을 모두 등급화시키고 있다. 셋째, 한국의 <4단계>에서 문화능력 내용보다 한국의 문화지식에 대한 제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3.1.2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 및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중국과 한국이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모국의 가치관들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가치관교육 내용과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이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자국의 가치관들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차이도 확인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외국인을 위한 교육 참조기준인 국제통용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현장인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도 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1.2.1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 1) 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강〉에서의 가치관 내용은 〈부록 5 한어교학 화제 및 내용 제안표〉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속 및 금기(나이, 수입, 혼인상황, 건강상황, 종교신앙, 정치면모, 문화 성향을 가진 색상 및 숫자, 서로 다른 문화 중에 프라이버시와 금기에 대한 차이 및 기피 등), 종교신앙(세계 주요 종교의 소개와 비교, 일상 종교활동, 종교 금기 등), 중서방(中西方)의 가치관 비교, 인권, 개인과 집단, 권위와 평등, 경쟁과 조화, 아름다움과 추악함, 사상과 행동, 도덕관념, 전통과 현대, 다원문화의 존중 등

〈대강〉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인의 고유한 가치관이 아닌 문화를 구별하는 데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내용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치관은 대립 면을 가지며, 특정한 문제(혹은 주제)에 대한 선택 혹은 선호가 나타나, 이에 따라 가치관(혹은 문화)이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과 추악함, 개인과 집단, 권위와 평등’ 등이다. 또한, 특정한 문제(혹은 주제)는 ‘혼인 상황, 문화 성향을 가진 색상 및 숫자, 인권, 다원문화의 존중’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강〉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인의 가치관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서 필요한 가치관의 척도를 내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4단계〉에서 가치관 내용은 문화 부분의 ‘문화의 세부 기술’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 분 류	중분류	교수내용	숙달도		
			요구 수준		
			초	중	고
가 치 관	사고방식	한국의 특징적인 사고방식(빨리빨리, 유교 사 상, 체면 중시, 가족주의, 외모지상주의, 가부 장주의 등)			
	정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정(情), 한(恨), 신명)			
	종교	한국의 주요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의 민간 신앙(미신과 금기 행동, 사주, 굿, 풍수지리 등)			
가치관의 변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과 시대에 따른 변화(세 대별 가치관, 성역할, 직업관 등)				

[표 1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의  
가치관교육 내용

<4단계>에서 가치관교육 내용은 네 가지로 중분류하고 이에 대해 세부적  
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분류는 사고방식, 정서, 종교, 가치관의 변화 네 가  
지이다. 사고방식은 한국의 특징적인 사고방식(빨리빨리, 유교 사상, 체면 중  
시, 가족주의, 외모지상주의, 가부장주의 등), 정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정(情), 한(恨), 신명), 종교는 한국의 주요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와  
한국의 민간 신앙(미신과 금기 행동, 사주, 굿, 풍수지리 등), 가치관 변화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과 시대에 따른 변화(세대별 가치관, 성역할, 직업관 등)  
로 제시하였다.

### 3)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관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중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  
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국의 <대강>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인의  
가치관이 아닌 문화 구별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관 척도 내용들을 제시한 반  
면에, 한국의 <4단계>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들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대강>에서 제시한 가치관은 상호문화적 만남에서 다른 문화와 구별하고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한국의 <4 단계>에서 제시된 가치관은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가치관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관념, 태도 등을 알 수 있다.

### 3.1.2.2 중국과 한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중국과 한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은 각각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이다.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문화 및 중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주도형 언어기반 문화 보급기관이다. 통칭인 공자학당은 공자아카데미와 공자교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국가한판(国家汉办)에 따르면 공자학원이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어 학습에 대한 세계의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국어의 보급에 경험이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등의 국가들을 참고하여 2004년 해외 도시들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 보급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중국어 보급을 위한 전달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통해 이루어진다.<sup>72)</sup>

세종학당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sup>73)</sup> 세종학당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 따라 한국어 교육 단계, 내용, 시간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를 사용한다.<sup>74)</sup>

72) 공자학당총부/국가한판(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2017), <http://www.hanban.edu.cn/resources/>. 2017년 8월 기준.

73) 세종학당재단 <http://www.ksif.or.kr/intro/jaedanprJudge.do>. 2017년 8월 기준.

74) 세종학당재단-한국어교육, [http://www.ksif.or.kr/business/businessKoreanedu.do#korean\\_2](http://www.ksif.or.kr/business/businessKoreanedu.do#korean_2). 2017년 8월 기준.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다. 또한, 두 기관은 모두 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단계,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가치관교육 내용은 보다 공식(公式)적이고 대표적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기관의 가치관교육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운영교육기관	분석대상	분석기준
중국: 공자학원	1. 주(主)/표준 교재	단원 혹은 실제 다루는 내용이 가치관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통하여 분석
한국: 세종학당	2. 문화교재	
	3. 온라인의 문화부분	

[표 14] 중국과 한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 방법

여기서 분석 대상은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에서 사용하는 주(主)교재, 문화교재 그리고 온라인의 문화부분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이다. 분석 기준은 I장에서 제시한 문제점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재를 분석할 때 단원의 주제를 통해 가치관인지 아닌지 확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I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가치관 개념에 충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세 가지 교재의 주제가 아닌 해당 단원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이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교재 혹은 자료의 주제가 가치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매우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치관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 (가) 분석 대상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공자학원에서 주로 사용된 교재의 문화부

분, 문화교재 및 공자학원 온라인 문화부분을 대상으로 삼는다.<sup>75)</sup> 구체적인 교재 및 온라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순서	분석 대상	정보	소개
1	 <p>장성한어(1~6)</p>	<p>저자: 국가한판(공자학원)</p> <p>출판일: 2005년 7월</p> <p>출판사: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출판사</p> <p>페이지 수: p70~74</p>	<p>중국교육부 지원으로 전세계 150개국 나라에서 사용하는 대외한어 전문 교수진에 의해 8여 년에 걸쳐 개발 완성된 신개념 长城汉语(Great Wall Chinese) <sup>76)</sup>교재</p>
2	 <p>중국문화상식</p>	<p>저자: 국무원교무(国务院侨务)사무실, 국가한판</p> <p>출판일: 2007년 2월</p> <p>출판사: 고등교육출판사</p> <p>페이지 수: p281~296</p>	<p>해외 한어학습자들은 중국문화의 수요를 고려하고 중외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국가한판에서 &lt;중국문화상식&gt;을 개발하였다.</p>
3	 <p>온라인의 '사상관념'부분</p>	<p>2017년 8월 기준</p>	<p>공자학원의 온라인 부분은 국제한어교재편집지남이라는 웹 응용 플랫폼에 위치하는데, 즉시(即時)적인 온라인 미디어의 핫이슈를 포착하여, 즉시 교재 편집의 응용자료로 전환하는 기능을 보여준다.</p>

[표 15] 공자학원의 분석 대상

75) 공자학원은 국제통용한어교학대강에 따라 교육하며, 국제통용한어교학대강은 2014년에 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이후에 출판 된 교재를 분석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된 교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퇴일보 공자학원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① <장성한어> 교재

<장성한어> 교재는 공자학원 본부/국가한판에서 개발되어 전세계 150개국 나라에서 사용하는 대외한어 교재이다. 1권부터 5권까지 2005년에 출판되었고 6권은 2006년에 출판되었다. 전체 교재는 ‘창업, 애정, 전설, 당대(當代)’ 네 개의 스토리로 단서를 되며, 화제는 경제, 문화, 체육, 윤리 등 영역에 이른다. 교재는 <장성한어(长城汉语) 1>, <장성한어(长城汉语) 2>, <장성한어(长城汉语) 3>, <장성한어(长城汉语) 4>, <장성한어(长城汉语) 5>, <장성한어(长城汉语) 6>의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권은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어휘, 본문, 어휘 색인, 병음대조, 영문주석을 포함한다. <장성한어 1~6>교재 구성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분석 대상	장성한어 1	장성한어 2	장성한어 3	장성한어 4	장성한어 5	장성한어 6
교재 구성	머리말 - 주요 인물소개 - 품사의 약어표(简称表) - 목록 - 단원 구성 - 어휘색인					
단원 구성	어휘 - 제1과(본문/대화문) - 제2과(본문/대화문) - 제3과(본문/대화문)					
단원 주제	1.Hello,I'm Mike 2.My surname is Kim, and my full name is Kim Tae-sung 3.I come from London	1.October 1st is my birthday 2.Where are you now 3.My bag is red 4.How can I get there from	1.Today is cloudy again 2.He is on the Internet 3.Jogging in the morning is my habit 4.Is it cool	1.Now let's begin our class 2.What's your major in the university 3.Are you used to	1. How do you play video games 2.Let's go to see the acrobatics show tonight	1.It is very comfortable all the year round in our country 2.I want to celebrate the Spring Festival

76)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renew.kongzi.co.kr/?c1=2&c2=0101>. 2017년 8월 기준.

don of t	m here	nvenient	o the ca	3.She ha	stival rig
he Great	5.One h	for you	mpus lif	s a slend	ht now
Britain	undred a	to live t	e in Chi	er figure	3.We us
4.I work	nd eight	here	na	4.Till we	ually sta
in a com	y-eight	5.I want	4.What	meet	y in a f
pany	yuan,eig	to post	do you	5.You ar	our-star
5.How ol	ht jiao	a letter	want to	e welco	hotel
d are yo	and eigh	6.What i	do in th	me to o	4.What
u	t fen in	s today's	e future	ur home	hairstyle
6.Her bo	all	exchange	5.What	6.He is	do you l
yfriend is	6.You pl	rate	do you t	an extro	ike
very han	ease ord	7.This c	hink abo	vert whil	5.You ca
dsome	er the di	oat is n	ut this c	e I am a	n find t
7.I live i	shes	ot suitab	ompany	n introve	he infor
n Yangg	7.Hello,	le for yo	6.How c	rt	mation o
uang Res	is Man	ung peo	an I go	7.Did yo	n the Int
idential	ager Kin	ple	through	u watch	ernet
District	t h e r e ,	8.I have	the enrol	the matc	6.The se
8.I like a	please	a cold	ling proc	h yesterd	parate r
n extende	8.Is your	9.Let's g	edure	ay	ooms ar
d family	room bi	o to wat	7.Wish y	8. What	e fully b
9.I've bee	g or not	ch the b	ou good	kind of	ooked u
n very b	9.Let's t	all game	luck wit	people d	p
usy recen	ake a ta	10.Have	h your	o you li	7. What
tly	xi	you ever	work, C	ke to m	do you
10.Let m	10.No p	been to	heers	ake frien	plan to
e introdu	roblem,	Beijing b	8.Which	ds with	do durin
ce you	I'll help	efore	country	9. What	g the su

		you		do you plan to study in 9.Our cl ass will go on a n outing this wee kend 10.It's w eekend a gain. Do you have any plan s	kind of TV prog rams do you like to watch 10.I'll ce rtainly p ass on t he messa ge	summer va cation 8.Drinki ng too much is bad for your hea lth 9.Have y ou receiv ed my e -mail 10.There is somet hing wro ng with the TV s et
--	--	-----	--	--	--	--

[표 16] <장선한어 1~6>의 교재 구성 목록

② <중국문화상식> 교재

<중국문화상식> 교재는 공자학원 본부/국가한판에서 해외 한어학습자들의 중국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중외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중국 문화와 민속 관습의 본질을 소개하고 구어체 문자로 여러 나라의 중국어학습자에게 중국의 문화 지식을 소개하고자 하는 교재이며 총 1권으로 구성된다. 교재 구성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분석대상	중국문화상식
교재구성	머리말 - 목록 - 단원구성
단원구성	제목 - 소개 - 세부주제
단원 주제	중국전통사상 중국전통미덕 중국고대문학 중국고대과학기술 중국전통예술 중국문물 중국고대건축 중국공예예술 중국민속 중국인의 생활

[표 17] <중국문화상식>의 교재구성 목록

### ③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부분

공자학원 온라인의 ‘사상관념(思想觀念)’ 부분은 국제한어교재편집지남(国际汉语教材编写指南)<sup>77)</sup>이라는 웹 응용 플랫폼에 위치한다. 이 플랫폼은 즉시(即時)적인 온라인 미디어의 핫이슈를 포착하여, 즉시 교재 편집의 응용 자료로 전환하는 기능으로 교육 내용과 시사(時事)는 통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상관념(思想觀念)’ 부분은 세부적으로 철학 사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네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각 세부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교재링클’ 항목에서는 다시 세부 항목들의 내용에 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77) "국제한어교재편집지남"은 공자학원 본부에서 국내외 100 여명의 전문가를 모여 과학 분야에서 "분류 및 확정(分類標定)"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3년 만에 빅 데이터 및 디지털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 과학 연구 결과, 가장 풍부한 형태소 자료, 가장 권위있는 커리큘럼 표준, 가장 지적인 개발 도구 및 가장 정량적인 교재 평가 체계를 통합하는 대규모 실용적인 웹 응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분석 대상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철학사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내용 구성	철학사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세부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묵자 (墨子)</li> <li>2. 장자 (莊子)</li> <li>3. 유교사상 (儒家思想)</li> <li>4. 공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물을 주워도 자기 것으로 탐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 준다.</li> <li>2. 자식 프라이버시의 권리</li> <li>3.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li> <li>4. 의무, 영광, 나라</li> <li>5. 연공서열을 깨뜨린다.</li> <li>6. 대의멸친(大義滅親)</li> <li>7. 행토관념(남국향토)</li> <li>8. 중국인이 체면을 중시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은 부모</li> <li>2. 고생교육</li> <li>3. 사치품의 과소비</li> <li>4. 근검절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 삶의 질</li> <li>2. 심미관 (審美觀)의 계시 (啓示)</li> </ol>
교재 링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모불발 (一毛不拔)</li> <li>2. 도가사상 (道家思想)</li> <li>3. &lt;중국인의 정신지주(支柱)&gt;: 이혼</li> <li>4. 공자소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물을 주워도 자기 것으로 탐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 준다는 이야기에 관한 편지</li> <li>2. 상용 문장</li> <li>3. 재물을 주워도 자기 것으로 탐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 주는 것과 서로 돕는 것 및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회 문제</li> <li>4. &lt;성공의 길&gt;</li> <li>5.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우호 및 예의, 노인을 공경하다, 연공서열, 안부말의 비교</li> <li>6. 대의멸친의 토론</li> <li>7. 중국 고건축물의 보호 부족</li> <li>8.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식사하거나 영화보고 서로 계산하겠다고 다룬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들은 돌보다 못한다》</li> <li>2. 징계교육</li> <li>3. 신절약주의 (맞는 것만 사고, 비싼 것을 사지 않는다.)</li> <li>4. 근검절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 역할의 변화</li> <li>2. 외재 (外在)미(美)와 내재(內在)미(美)</li> </ol>

[표 18]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부분의 내용구성 목록

(나) 분석 결과

분석 내용은 가치관의 개념에 따라 분석하여 결과는 <장성한어> 및 <중국문화상식>은 오래 전 개발된 교재로서 역시 예상과 같이 문화지식을 소개하는 내용만으로 다루어 가치관교육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부분의 분석 결과는 바로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이 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습금불매(拾金不昧), 개인의 프라이버시, 조인위락(助人爲樂),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연공서열,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대의명친(大義滅親), 향토관념(남국향토),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 감은부모(感恩父母), 부자자효(父慈子孝), 고생교육, 징계교육, 신 절약주의, 근검절약, 가정(家庭) 관념,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심미관(審美觀)

[표 19]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공자학원 온라인 ‘사상관념’ 부분은 국제한어교재편집지남(国际汉语教材编写指南)이라는 웹 응용 플랫폼에 위치하며, 온라인 미디어의 핫이슈를 포착하여 즉시 교재 편집의 응용 자료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 이에 교육 내용과 시사(時事)는 통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의 시사적(時事的)인 가치관 내용 혹은 세계적으로 핫한 화제들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 고생교육, 징계교육, 신 절약주의,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 모두 현재 중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외에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내용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은부모(感恩父母), 부자자효(父慈子孝), 향토관념(남국향토:南國鄉土) 등이 있다.

## 2)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 (가) 분석 대상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은 공자학원의 분석 대상과 같이 세종학당에서 사용된 주요 교재의 문화부분, 문화교재 및 세종학당 온라인 문화부분을 대상으로 삼는다.<sup>78)</sup> 구체적인 교재 및 온라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순서	분석 대상	정보	소개
1	 세종한국어	저자: 국립국어원 출판일: 2013년~ 출판사: 하우출판사 페이지 수: p188~	세종학당의 표준교재이며, 국내외 현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상황을 고려한 실제적인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세종한국문화	저자: 편집부 출판일: 2017.05.02. 출판사: 다락원 페이지 수: p144	외국인이 궁금해 하는 한국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세종학당 및 정규 교육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3 79)	 온라인 '표준과정'의 문화	2017년 8월 기준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누리집이다.

[표 20] 세종학당의 분석'누리-세종학당' 대상

78) 공자학원과 같이 세종학당은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며, 최근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신하여 2018년에 발표되어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8년 이후에 출판된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현재 사용 중이나 개발된 교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일보 세종학당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① <세종한국어> 교재

<세종한국어> 교재는 세종학당의 표준교재이며, 국내외 현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상황을 고려한 실제적인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육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세종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세종학당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개발하였고, 2013년 국내외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출판하게 되었다. 1~4권이 2013년 6월에 출판되고 초급에서 사용하여, 5~8권이 2014년 4월에 출판되어 중급에서 사용한다. 1~8권 교재는 매 권 12~14과로 구성되어 3개과 끝날 때마다 ‘문화’ 단원이 제시되어 있다.

<세종한국어>는 ‘문화’단원을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교육 방법과 수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문화’ 단원이 교실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단원마다 교육 방법과 수업 활동을 제시하였고, 특히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 비교 활동을 강화하였다. <문화>에는 현대문화와 생활 문화를 비롯하여 전통 문화나 성취 문화까지 포함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재의 문화부분은 당연히 중심으로 분석할 부분이며 단원마다도 같이 분석하도록 한다.

<세종한국어 1~8>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79) ‘세종학당’ 온라인 종합과정의 문화 분야에 ‘한국문화이야기’라는 과정이 있는데. 하지만 한류스타, 한국문화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문화 이야기로 외국인이 관심있는 한국문화(한국전통음악, K-POP, 한국 음식 등)를 보여주는 동영상으로서 본 연구와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 대상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2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
교재 구성	발간사 - 차례 - 교재 구성표 - 일러두기 - 단원구성 - 듣기대본 - 정답 - 문법설명 - 어휘색인			
단원 구성	주제 - 학습목표 - 도입 - 대화1,2 - 어휘와 표현 - 문법 - 연습 1,2 -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 새 어휘와 표현 - 자기 평가 - 문화			
단원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소개</li> <li>2. 일상생활</li> <li>3. 의치</li> <li>4. 물건 사기1</li> <li>5. 물건 사기 2</li> <li>6. 어제 일과</li> <li>7. 날씨</li> <li>8. 시간</li> <li>9. 약속</li> <li>10. 주말 활동</li> <li>11. 한국어 공부</li> <li>12. 계획</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부</li> <li>2. 취미 활동</li> <li>3. 음식</li> <li>4. 교통</li> <li>5. 길 찾기</li> <li>6. 전화</li> <li>7. 외모</li> <li>8. 가족</li> <li>9. 여행</li> <li>10. 건강</li> <li>11. 모임</li> <li>12. 고향</li> <li>13. 기분과 감정</li> <li>14. 미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li> <li>2. 좋아하는 것</li> <li>3. 축하</li> <li>4. 할일</li> <li>5. 휴가 계획</li> <li>6. 쇼핑</li> <li>7. 여행과 방문</li> <li>8. 공공 예절</li> <li>9. 생활 습관</li> <li>10. 물건 찾기</li> <li>11. 날씨</li> <li>12. 부탁</li> <li>13. 살고 싶은 집</li> <li>14. 꿈</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황</li> <li>2. 외국 생활</li> <li>3. 초대</li> <li>4. 결심</li> <li>5. 문화 차이</li> <li>6. 감사</li> <li>7. 공공시설 이용</li> <li>8. 예약</li> <li>9. 경험</li> <li>10. 요리</li> <li>11. 영화와 드라마</li> <li>12. 패션</li> <li>13. 성격</li> <li>14. 소감</li> </ol>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인사법</li> <li>2. 한국의 화폐</li> <li>3. 한국의 사계절</li> <li>4. 한국인의 주말 활동</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음식</li> <li>2. 한국의 대중교통</li> <li>3. 한국의 여행지</li> <li>4. 한국 사람들의 모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축하하는 날</li> <li>2. 한국인의 휴가</li> <li>3. 한국인의 공공 예절</li> <li>4. 한국의 날씨와 음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주거 생활</li> <li>2. 한국인의 결혼 문화</li> <li>3. 한국의 대중문화</li> <li>4. 한국의 지리</li> </ol>

[표 21] <세종한국어 1~4>의 교재구성 목록

분석 대상	세종한국어 5	세종한국어 6	세종한국어 7	세종한국어 8
교재 구성	발간사 - 차례 - 교재 구성표 - 일러두기 - 단원구성 - 듣기대본 - 정답 - 문법설명 - 어휘색인			
단원 구성	주제 - 학습목표 - 도입 - 대화1,2 - 어휘와 표현 - 문법 - 연습 1,2 -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 새 어휘와 표현 - 자기 평가 - 문화			
단원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로</li> <li>2. 날씨와 계절</li> <li>3. 대중음악</li> <li>4. 길 묻기</li> <li>5. 기념일</li> <li>6. 쇼핑</li> <li>7. 여가 생활</li> <li>8. 약속</li> <li>9. 안부</li> <li>10. 명절</li> <li>11. 부탁과 거절</li> <li>12. 감정</li> <li>13. 전자 제품</li> <li>14. 소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행 경험</li> <li>2. 사과</li> <li>3. 나라에 따라 다른 문화</li> <li>4. 도시</li> <li>5. 동물</li> <li>6. 예절과 규칙</li> <li>7. 우리 집</li> <li>8. 스타와 팬</li> <li>9. 일하고 싶은 회사</li> <li>10. 소식</li> <li>11. 전달</li> <li>12. 수선과 수리</li> <li>13. 언어와 문화</li> <li>14. 이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미 생활</li> <li>2. 증상과 치료</li> <li>3. 인터넷과 컴퓨터</li> <li>4. 가족</li> <li>5. 구인구직</li> <li>6. 소비 습관</li> <li>7. 첫인상</li> <li>8. 소문</li> <li>9. 결혼</li> <li>10. 방송</li> <li>11. 사고 경험</li> <li>12. 면접</li> <li>13. 지리</li> <li>14. 나라 소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생계획</li> <li>2. 건강과 운동</li> <li>3. 존경하는 인물</li> <li>4. 건축</li> <li>5. 자연</li> <li>6. 기술의 발전</li> <li>7. 찬성과 반대</li> <li>8. 자연재해</li> <li>9. 업무 지시</li> <li>10. 이야기</li> <li>11. 습관</li> <li>12. 사회 변화</li> <li>13. 업무 협의</li> <li>14. 졸업</li> </ol>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직업</li> <li>2. 한국의 선물 문화</li> <li>3.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li> <li>4. 한국인의 부탁과 거절 방식</li> <li>5. 소원을 비는 한국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여행 문화</li> <li>2. 한국의 대표도시</li> <li>3. 세계 속의 한국 기업</li> <li>4. 한국의 AS 서비스</li> <li>5. 한국어와 한국문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민간요법</li> <li>2. 한국인의 가족문화</li> <li>3. 한국인의 결혼 풍습</li> <li>4. 한국의 면접</li> <li>5. 한국을 소개하는 유용한 사이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존경하는 인물</li> <li>2. 한국인의 세계문화유산</li> <li>3. 한국의 기업문화</li> <li>4. 한국의 옛날이야기 속 인물들</li> <li>5. 한국의 입학과 졸업</li> </ol>

[표 22] <세종한국어 5~8>의 교재구성 목록

② <세종한국문화1>

<세종한국문화 1>는 한국인의 인사법, 한국 음식, 한국 모임 등 외국인이 궁금해 하는 한국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 한 책이다. 세종학당의 표준교재<세종한국어 1,2>의 문화 소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세종학당 수강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문화의 내용을 문화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수준별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문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세종한국어 1, 2>에 제시된 한국문화 주제 8개를 각각 단원의 대주제로 삼아, 각 문화 주제의 기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흥미로운 세부 주제와 활동을 통해 문화 내용을 보충·확장하였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까지 가능하도록 심화된 내용을 넣어 총 8개 단원을 구성하였다. 특히 <깊이 알기>부분은 해당 단원의 대주제를 깊이 알 수 있는 심화 단계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단원의 주제에 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화 양상을 소개하였다.

<세종한국문화1>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분석대상	세종한국문화 1
교재구성	발간사 - 머리말 - 일러두기 - 차례 - 내용구성표 - 등장인물소개 - 단원구성 - 부록(정답, 자료출처)
단원구성	제목 - 바로알기 - 두루알기 - 깊이 알기
단원 주제	1. 한국인의 인사법 2. 한국의 화폐 3. 한국의 사계절 4. 한국의 주말 활동 5. 한국 음식 6. 한국의 대중교통 7. 한국의 여행지 한국 사람들의 모임

[표 23] <세종한국문화1>의 교재구성 목록

### ③ 세종학당 온라인 문화

세종학당 재단에서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 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 문화에 대해 ‘표준과정’에서 ‘세종한국문화 1’와 ‘세종한국문화 2’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여 가치관의 항목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의 문화 항목에서 ‘한국문화 이야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한국 문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므로 분석 대상에 제외한다. 그러므로 세종학당 온라인 부분의 ‘세종한국문화 1’와 ‘세종한국문화 2’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구성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분석 대상	온라인 세종한국문화 1	온라인 세종한국문화 2
구성	준비하기 - 문화구경하기(어휘배우기 - 더 생각해보기 - 문화 체험 일기)	준비하기 - 문화구경하기(문화 확인하기 - 문화 더 알아보기)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li> <li>2. 한글은 한국의 글자예요</li> <li>3. 안녕하세요?</li> <li>4.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요.</li> <li>5. 한국어로 말해요.</li> <li>6. 한국 친구 집에 가요.</li> <li>7. 쇼핑해요.</li> <li>8. 한국의 화폐를 찾아봐요.</li> <li>9. 한국에서 이렇게 놀아요.</li> <li>10.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li> <li>11. 한국의 명절을 즐겨워요.</li> <li>12. 우리 주말에 만나요.</li> <li>13.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에 다녀요.</li> <li>2. 운동하러 공원에 가요.</li> <li>3. 생일을 축하해요.</li> <li>4. 대학생이 되었어요.</li> <li>5. 휴가 잘 보냈어요?</li> <li>6. 인터넷으로 옷을 샀어요.</li> <li>7. 설명을 들으며 구경해요.</li> <li>8. 지하철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해요.</li> <li>9. 어른 앞에서는 공손하게 인사해요.</li> <li>10. 아름다운 보물을 볼 수 있어요.</li> </ol>

	<p>14. 함께 공부해요.</p> <p>15. 조상님들이 남긴 유산이에요.</p> <p>16.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p> <p>17. 주말에 등산을 해요.</p> <p>18. 음식 맛은 손맛이에요.</p> <p>19.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타요.</p> <p>20.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요.</p> <p>21.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요.</p> <p>22. 첫인상이 중요해요.</p> <p>23. 가족과 함께 살아요.</p> <p>24. 여행은 즐거워요.</p> <p>25.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p> <p>26. 함께 모이면 즐거워요.</p> <p>27. 다 함께 축제를 즐겨요.</p>	<p>11. 계절에 따라 필요한 물건들이 달라요.</p> <p>12.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p> <p>13. 한옥에서 살고 싶어요.</p> <p>14. 해 뜨는 곳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어요.</p> <p>15. 오늘 어디 갈래요?</p> <p>16.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p> <p>17. 친구 결혼식에 갑니다.</p> <p>18. 대통령으로 누구를 찍을 거예요?</p> <p>19. 한국의 대중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워요.</p> <p>20.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p> <p>21. 환승합니다.</p> <p>22.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p> <p>23. 사물놀이 공연을 보니 배우고 싶어요.</p> <p>24. 한국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p> <p>25. 세계적인 축제가 열립니다.</p> <p>26. 그 옷은 어디에서 샀어요?</p> <p>27. 한국의 인터넷</p> <p>28. 성공하길 빌어요.</p>
--	---	--

[표 24] 세종학당 온라인 문화 부분의 내용구성 목록

(나) 분석 결과

① <세종한국어 1~8> 교재

<세종한국어>에서 가치관은 여러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언어기능만을 다루거나, 단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문화항목을 설정하여 소개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문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 사진으로만 제시했을 뿐 보충 설명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순 제시는 가치관교육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종한국어1~8>의 분석을 통하여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여 정리할 수 있다.

<세종한국어>의 가치관교육 내용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업관, 소비 습관, 첫인상, 결혼 풍습, 직장 언어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공공예절, 결혼문화, 선호 직업 변화, 선물 문화, 소원(신앙), 민간요법, 가족(효/ 한 가족), 결혼 풍습,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직장의 수직 관계,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졸업식 선물

[표 25] <세종한국어 1~8>의 가치관교육 내용

② <세종한국문화1>교재

<세종한국문화1>교재는 세종학당 수강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문화의 내용을 문화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수준별로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교재라고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가치관교육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세종학당 온라인 문화 부분

이 부분 역시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온라인 세종한국문화1	온라인 세종한국문화2
첫인상, 가족제도/가족관계, 건강, 모임 문화	소원 빌기,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기원 선물, 응원문화

[표 26] 온라인 ‘세종한국문화 1’와 ‘세종한국문화 2’의 가치관교육 내용

이상 분석 결과를 통하여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원, 결혼 풍습, 선물 문화 등’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을 하나(한 종류)의 가치관교육 내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종합하여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업관, 소비 습관, 첫인상, 결혼 풍습, 직장 언어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공공예절, 선물 문화, 민간요법, 가족(효/ 한 가족),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직장의 수직 관계,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표 27]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보면, 한국의 결혼, 소원, 풍습 및 금기, 직업에 관련 가치관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교육 내용에 있어 바람직한 내용은 학습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전통적인 것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류 가치관들을 많이 다룰 수록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에 공감할 수 있고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과 한국의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앞서 정리한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학원의 가치관	세종학당의 가치관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습금불매(拾金不昧), 개인의 프라이버시, 조인위락(助人爲樂),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연공서열,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대의멸친(大義滅親), 향토관념(남국향토),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 감은 부모, 부자자효(父慈子孝), 고생교육, 징계교육, 신 절약주의, 근검절약, 가정(家庭) 관념,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심미관(審美觀)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업관, 소비 습관, 첫인상, 결혼 풍습, 직장 언어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공공예절, 선물 문화, 민간요법, 가족(효/ 한 가족),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직장의 수직 관계,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표 28]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해보면, 많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 항목은 ‘혼인관념 - 결혼 풍습, 생활방식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가정(家庭) 관념 - 가족(효/ 한 가족), 신 절약주의 - 소비 습관’ 등이다. 그 외 매우 많은 가치관들이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자학원의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 감은 부모, 고생교육, 징계교육,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세종학당의 ‘소원, 선물, 풍속, 금기, 민간요법, 직업(직장)에 관련된 가치관들, 다문화 사회

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 등 항목들이다.

### 3.1.2.3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이상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자국의 가치관들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가치관교육 내용과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과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의 합친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선, 양국의 외국인을 위한 교육 참조기준인 국제통용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현장인 정부운영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가치관교육 내용은 대조하면서 각각 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도출한 다음에, 이를 대조하도록 한다.

#### 1) 중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자학원은 중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단계,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	공자학원의 가치관
풍속 및 금기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종교신앙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중서방(中西方)의 가치관 비교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과 집단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권위와 평등	연공서열
아름다움과 추악함	심미관 (審美觀)
사상과 행동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 고생교육, 징계교육, 습금불매(拾金不昧), 조인위락(助人爲樂), 대의멸친(大義滅親), 향토관념(남국향토)
도덕관념	감은 부모, 父慈子孝 (부자자효), 근검절약, 가정(家庭) 관념
전통과 현대	신 절약주의
경쟁과 조화	
다원문화의 존중	

[표 29] 중국의 국제통용교육과정과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대체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이 미치는 영역보다 좁지만, 대체로 이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은 중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 문화를 구별하고 차이점을 인식하는 척도로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가치관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통용교육과정의 가치관은 제외하고 공자학원의 가치관만을 중국의 외국인들을 위한 가치관교육의 내용으로 본다.

## 2)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4단계>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응되는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4단계>의 가치관	세종학당의 가치관
대 응 하 는 가 치 관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과 시대에 따른 변화(세대별 가치관, 성역할, 직업관 등)	직업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한국의 민간 신앙(미신과 금기 행동, 사주, 굿, 풍수지리 등)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민간요법
	가족주의	가족(효/한 가족)
상 이 한 가 치 관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정(情), 한(恨), 신명) 한국의 주요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의 특징적인 사고방식(빨리빨리, 유교 사상, 체면 중시, 외모지상주의, 가부장주의 등)	소비 습관, 첫인상, 결혼 풍습, 공예절, 선물 문화,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직장의 회식문화, 직장의 수직 관계, 직장 언어예절,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표 30] 한국의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4단계>와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

한국 사회의 변화, 미신과 금기,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정, 첫인상, 종교, 직장의 문화, 유교 사상 등은 두 곳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응되는 가치관은 가치관교육의 내용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치관들 역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곳 모두 한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4단계>와 세종학당에서 제시하

는 가치관 모두를 가치관교육의 내용으로 본다.

### 3)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Ⅱ장에서 이야기했듯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 가치관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서 가치관을 교육할 때도 모국문화인 중국의 가치관과 목표문화인 한국의 가치관을 대조하여 교수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내용을 먼저 교수한 후에 연관되거나 대응되는 내용, 서로 다른 내용의 순서로 교수해야 한다.

중국 공자학원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한국의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4단계>와 세종학당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국	한국
공통된 가치관	체면 중시, 가족주의	
대응된 가치관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한국인의 민간 신앙
	신 절약주의	소비 습관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결혼 풍습/문화
	심미관	첫인상
	감은부모	효
	부자자효	가부장주의
	연공서열	직장의 수직 관계
다른 가 치관	습금불매, 개인의 프라이버시, 조인위락,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대의명치, 향토관념. 고생교육, 징계교육, 근검절약	빨리빨리, 유교 사상, 외모지상주의, 세대별 가치관, 성역할, 직업관, 정(情), 한(恨), 신명, 종교,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장 언어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공공예절, 선물 문화, 민간요법,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	--	--

[표 31]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된 내용으로 체면 중시, 가족주의가 있고 대응되는 가치관에는 신앙, 소비,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이 있다.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가치관은 습금불매, 조인위락,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향토관념, 고생교육 등이 있고,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가치관은 빨리빨리, 유교 사상, 정, 한 등이다.

앞의 두 영역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가치관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서로 다른 가치관 영역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가치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3.1.3 소결론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II장에서 말했다시피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문화를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길러야 하며 지식보다는 기술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에서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문화능력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이다. 상호문화능력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석까지 빈틈없이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보다 구

체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 및 정부운영교육기관의 가치관교육 내용의 분석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은 두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 공통되거나 대응되는 가치관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가치관이 대부분이고 상이한 가치관 교육내용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가치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3.2 중국과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sup>80)</sup>에서 제시된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과정(敎育課程)<sup>81)</sup> 또는 커리큘럼(curriculum)은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단지 교육과정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 내용, 교수 활동 및 자세까지 확장하여 말할 수 있으며 교육 접근 자세 자체도 커리큘럼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은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살펴봄으로서 양국의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및 자세 등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방법, 자세 및 태도 등에 영향을 주므로 교육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가 생소할 뿐, 학습 방법이나 능력은 이미 모국어 기초교육에서 양성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인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교육으로 인해 배어있는 학습 방법 및 자세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한국어 교수·학습에 적용하면 보다 사반공배(事半功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확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 즉 학습자의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어문화교육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에게 인재시교(因材施教)<sup>82)</sup>할 수 있으며 사반공배(事半功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80)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81) 위키백과 참조.

82) 인재시교(因材施教): 피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을 하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서, 교육자는 각기 다른 학습자들의 인지 수준, 학습 능력 및 그들 자신의 자질에 따라 각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맞춤형교육을 한다. 학생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생들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확신을 확립함으로써 학생의 완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출처: 《论语·先进篇》

둘째,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나라의 교육 상황(교육 목표, 교육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로서의 문화교육’의 상호문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중·한 양국의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부분은 바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부분은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맞춤형교육을 하고, 학습자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며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중국과 한국의 의무교육과정인 ‘초·중등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의 각각 목표와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을 파악하여 대조할 수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자국의 가치관들을 파악하고 이를 대조할 수 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의 문화교육 목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 그리고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을 모두 ‘초·중등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3.2.1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3.2.2에서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중 문화교육 목표(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을 포함)를 추출하고 대조하며, 3.2.3에서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대조할 것이다.

### 3.2.1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중국 국가 교육과정은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하여 현행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신(新)과표’이라고 하여 2011년에 공포하고, 2011년 12월 28일에 19개 학과의 과정표준(2011판)을 발행하였다. 한국 국가 교육과정<sup>83)</sup>은 대한민국 교

육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다. 7차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2009년 및 2015년 개정판이 있다. 2015년판의 교육과정은 매우 최근에 개정하였으므로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도덕에 관한 과목은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학습자들의 생활태도의 형성,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및 가치관을 세우는 데에 기반이 된다. 국가 기초교육에서의 도덕에 관한 과목 내용을 통해 그 나라의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권위성이 높고 설득력이 강할 것이며 일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에 관한 과목의 목표를 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모국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과 가치관교육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Jepersen(1961:9)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는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국의 사상이나 지식 또는 문화와 문학,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언어에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문/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 모국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중 ‘어문/국어과 교육과정’과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3.2.1.1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

#### 1) 중국 ‘의무교육어문과정표준’의 목표

과정 목표는 지식과 능력, 과정과 방법, 감정태도와 가치관의 세 가지 면에서 설계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상호작용하여 일체가 된다. 이는 의무교육 신(新)과표(2011년 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sup>84)</sup>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8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84) ‘과정 및 방법’: 학습자가 교과 지식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직접적으로 지식의 탐구 과정을 겪으며, 문제의 발견, 사고, 해결의 방법을 습득하여, 창신 정신 및 실천능력을 형성 ‘감정, 태도 및

다.

- ① 어문 학습 과정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 도덕과 건강한 심미관을 배양한다. 개성을 발전하여 창조적 정신 및 협력적 정신을 육성하고,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인생 태도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한다.
- ② 중화문화의 풍부함과 풍요로움을 인식하여, 민족 문화의 지혜를 얻는다. 현대 문화 생활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 존중, 탁월한 인간 문화의 영양을 흡수하고 문화 품위를 향상시킨다.
- ③ 조국의 언어문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어문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어문 습득 습관을 양성하고, 기본적으로 언어 학습의 기본 방법을 습득한다.
- ④ 언어 능력 개발과 동시에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학습하며 점진적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 진지(眞知)를 숭상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양성한다.
- ⑤ 탐험적인 학습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창출하고, 실제로 어문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
- ⑥ 한어 병음을 배운다. 만다린어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 3500 개에 대해 알아본다. 한자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 ⑦ 독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읽기 방법의 사용을 학습한다. 풍부한 축적과 좋은 언어 감각을 가지며 감정적인 경험 강조, 감수(感受)와 이해력을 키운다. 일상의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한다. 참고서의 도움으로 가볍고 쉬운 문어문(文語文) 읽을 수 있다. 우수한 시(문단) 240 장을 외운다. 9 년간의 과외 독서는 400 만 단어 이상이어야 한다.
- ⑧ 구체적이고 간결한 방법으로 자신의 견문, 경험 및 생각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흔히 쓰는 표현방식을 사용해 글을 작성하며, 서면 언어의 사용능력을 키운다.

---

가치관: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태도, 건강한 발전적인 인생태도를 형성하여, 과학정신 및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사회 책임감 및 사명감이 있는 사회 공민이 된다.

⑨ 일상적인 구두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을 가지고 경청, 의사소통 표현 및 교류를 습득한다. 초보적으로 구두 언어를 사용하여 예의적으로 대인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법을 습득한다.

⑩ 상용 어문 참고자료의 사용을 습득한다. 초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를 배우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 2) 중국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의 목표

중국 교육과정 중 도덕에 관한 과목은 세 과목이 있는데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표준(초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초등학교 고학년 과정), 의무교육 ‘사상품덕’ 과정표준(중학교 과정)을 포함한다. 이 세 과목은 목표를 따로 제시하여 먼저 총괄 목표를 서술하고 다시 세 가지 면의 목표에 대해 제시하였다. ‘의무교육신과표’(2011판)<sup>85)</sup>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목별 과정표준의 목표를 세 가지 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면은 ‘지식 및 기능’, ‘과정 및 방법’, ‘감정, 태도 및 가치관’이다. ‘의무교육신과표’(2011판)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 표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가)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사상품덕’의 총괄 목표

초등학교 과정: ‘품덕과 생활’ 과정은 바른 인품과 덕성, 행동 습관을 지니고, 기꺼이 탐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아동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 ‘품덕과 사회’ 과정은 학생들의 바른 인품과 덕성을 키우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에 참여와 적응하고, 사랑과 책임감, 바른 행동 습관과 품성을 지닌 공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중학교 과정: ‘사상품덕’ 과정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에 따라 중학교

85) 다음 5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내용을 참고.

학생들의 올바른 사상관념과 도덕적 자질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이 이상과 도덕심이 있고 문화소양이 있으며 규율을 준수하는 공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나)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사상품덕’의 ‘지식 및 기능’, ‘과정 및 방법’, ‘감정, 태도 및 가치관’의 세 가지 목표

영역	과정표준	세부 목표
‘감정, 태도 및 가치관’	초등 저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중한다. 집단, 고향, 조국을 사랑한다.</li> <li>2.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 및 과학을 사랑한다.</li> </ol>
	초등 고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을 사랑, 생활을 사랑, 스스로 존중, 스스로 단속, 자기 긍정적 태도, 부지런하고 순박한 태도를 양성</li> <li>2. 가족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중, 문명예의, 성실 및 신용을 지킴, 우애 및 포용력, 집단 사랑, 단결 및 협력, 책임감 있는 품성을 양성</li> <li>3. 규칙 의식 및 민주, 법치관념을 형성, 공평공정을 숭상</li> <li>4. 고향 사랑, 조국의 역사 및 문화를 사랑, 중화민족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갖고,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문화 차이를 존중, 초보적으로 개방의 국제시야를 형성</li> <li>5. 자연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감정, 점차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형성</li> </ol>
	중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을 사랑, 스스로 존중, 자신감, 낙관태도로 발전, 의지 강인한 인생 태도를 양성</li> <li>2. 생태환경 및 인류생존의 관계를 체득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근검절역, 자원을 진귀하게 여겨</li> </ol>

‘지식 및 기 능’		<p>아끼는 의식을 형성</p> <p>3. 부모에 효도, 타인을 존중, 성실 및 신용을 지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책임감 있고 공정을 추구하는 품성을 양성</p> <p>4. 규칙 의식, 법치관념을 형성, 공공 정신, 국민 의식을 강화</p> <p>5. 집단 및 조국을 사랑하여, 인민 및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중화문화를 인정하여,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정신을 발양한다. 글로벌 의식 및 국제 시야를 형성, 평화를 사랑</p>
	초등 저학년	<p>1. 자기 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노동기술</p> <p>2. 생활 중 자연, 사회 상식을 파악</p> <p>3. 조국의 초보 지식을 인식</p>
	초등 고학년	<p>1. 일상의 도덕행위 및 문명예의를 이해한다.</p> <p>2. 초보적으로 생산, 소비생활이 일상생활과의 관계있음을 배우기, 과학기술이 생산 및 생활의 중요영향을 안다.</p> <p>3. 지리 상식, 사람과 자연, 환경의 의존관계, 인류가 공동적으로 직면한 인구, 자원 및 환경 등 문제</p> <p>4. 고향의 변화, 서로 다른 환경 중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방식 및 풍습을 안다. 서로 다른 민족, 나라 및 지역 간 서로 존중, 화목하게 지내는 중요한 의미를 이해한다.</p>
	중등	<p>1.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발전의 기본 상식과 방법을 파악, 개인 성장 및 사회 환경의 관계를 이해</p> <p>2. 나와 타인 및 집단관계의 기본 지식, 사회 규범 및 도덕규범을 인식</p>

		<p>3. 인류생존 및 생태환경의 상호의존 관계를 이해, 인류가 직면한 생태환경 문제 및 그 근원을 인식, 환경보호의 기초 지식을 파악</p> <p>4.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안다. 법은 개인, 국가 및 사회생활 중의 기본 작용 및 의미를 알아냄.</p> <p>5.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을 안다. 현재 세계발전의 현황 및 추세를 안다.</p>
‘과정 및 방법’	초등 저학년	<p>1. 문제의 제기, 탐구의 과정을 체험</p> <p>2.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활동을 시도</p>
	초등 고학년	<p>1. 안전, 건강, 환경보호의 양호 생활 및 행동 습관</p> <p>2. 초보적으로 자아 인식하여, 자신의 정서 및 행위를 조절하는 방법을 파악</p> <p>3. 자신의 감정 및 견문을 확실히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타인의 심정 및 요구를 체득하여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 및 협력, 적극적으로 집단 생활에 참여</p> <p>4.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 사물 및 현상에 대한 관찰, 생활 중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활 중 문제에 대한 탐구 및 해결을 시도, 자기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사회 공익활동에 참여</p> <p>5. 초보적으로 메시지를 수집, 정리 및 운용의 능력을 습득,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분석 및 설명</p>
	중등	<p>1. 자신의 정서 조절</p> <p>2. 환경보호의 기본 방법, 환경보호의 능력을 형성</p> <p>3. 교제 및 의사소통의 기술을 파악, 사회 공공생</p>

		<p>활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p> <p>4. 메시지 수집, 처리 및 운용의 능력을 습득, 매개 소양을 높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p> <p>5. 복잡한 사회생활 및 다양한 가치 관념을 대면하여, 올바른 가치관으로 기준하여, 정확한 도덕 판단과 선택한다.</p>
--	--	---

[표 32] 중국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 목표

### 3.2.1.2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 1) 한국 ‘국어과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목표

한국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한국 교육과정의 어문과정의 목표는 중국 교육과정에 비하면 보다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한국 교육과정 목표의 제시는 총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교과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교육과정 목표의 제시인 교과별 목표에 총 목표를 반영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보다 전면적

으로 한국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교육과정의 총 목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2) 한국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목표

한국 교육과정 중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교과목의 총괄목표 및 학교 급별 목표로 제시하여 학교 급별 목표에 대해 영역, 핵심 가치관, 내용요소,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 도덕과 총괄 목표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가치인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가치관계 확장을 전제로 자신에서 타자, 사회와 공동체, 자연과 초월로 이어지는 각 영역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여 인성의 기본 요소를 실천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자신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근간으로 삼는 가치의 차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둘러싼 도덕 현상에 대한 탐구와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일상적 실천을 포함하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3)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계군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 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러한 능력과 성향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도덕적 담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정적 목표를 통해 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국 도덕과 학교 급별 목표

영역	핵심가치관	교육과정	내용 요소	기능
자신과의 관계	성실	초등학교 도덕	근면, 정직, 시간 관리와 절약, 인내,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자주, 자율, 정직한 삶	◦도덕적 자아정체성 자기인식 및 존중하기, 자기감정 조절하기, 자기감정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습관화</li> <li>생활계획 수립하기, 모범사례 반복하기, 유혹 이겨내기</li> </ul>
		중 학 교 도 덕	<p>도덕적인 삶, 도덕적 행동, 자아정체성, 삶의 목적, 행복한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li> <li>도덕적 자기 인식. 존중. 조절하기, 본받기 (모델링)</li> <li>◦도덕적 보전 능력</li> <li>회복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 가꾸기</li> <li>◦고차적 사고 능력</li> <li>비판적 사고하기, 창의적 사고하기, 배려적 사고하기,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li> </ul>
타인과 의 관계	배려	초 등 학 교 도 덕	<p>효, 우애, 우정, 예절, 협동, 사이버 예절, 준법, 공감, 존중, 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대인관계능력</li> <li>경청.도덕적 대화하기, 타인 입장이해.인정하기,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li> <li>◦도덕적 정서 능력</li> <li>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li> </ul>
		중 학 교 도 덕	<p>가정윤리, 우정, 성윤리, 이웃생활, 정보통신윤리, 평화적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대인 관계 형성능력</li> <li>다른 사람의 관점 채</li> </ul>

			<p>해결, 폭력의 문제</p>	<p>택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의사소통 능력</li> </ul> <p>공감 및 경청하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정서 능력</li> </ul> <p>도덕적 정서 이해·표현·조절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악금지 능력</li> </ul> <p>행위 결과를 상상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의식</li> </ul>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초 등 학 교 도덕	<p>공익, 준법, 공정성, 존중, 통일의지, 애국심, 인권존중, 공정성, 인류애</p>	<p>관점 채택하기, 공익에 기여하기, 봉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적 판단 능력</li> </ul> <p>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공동체·세계시민윤리 의식 형성능력</li> </ul>
		중 학 교 도 덕	<p>인간존중, 문화 다양성, 세계시민 윤리,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 북한 이해, 통일윤리 의식</p>	<p>다양성에 반응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공동체의 일원되기, 보편적 관점 채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윤리의식 형성능</li> </ul>

				<p>력</p> <p>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p>
자연·초 월과의 관계	책임	초 등 학 교 도 덕	<p>생명 존중, 자연애, 아 름다움에 대한 사랑, 자아 존중, 긍정적 태 도, 윤리적 성찰</p>	<p>◦실천 능력</p> <p>실천 의지 기르기, 책 임감 있게 행동하기</p> <p>◦윤리적 성찰 능력</p> <p>심미적 감수성 기르기, 자연과 유대감 갖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p>
		중 학 교 도 덕	<p>자연관, 과학과 윤리,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p>	<p>◦생명 감수성 고양 능 력</p> <p>생명 친화적 관점 채 택하기,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p> <p>◦전일적 사고 능력</p> <p>생태 지속가능성 추구 하기, 평정심 추구하기</p> <p>◦실존적 자각 능력</p> <p>도덕적 이야기 구성하 기, 삶의 의미 구성하 기</p> <p>◦실천성향 및 의지</p> <p>실천 방법 탐구하기, 실천 방법 제시하기, 실천 의지 함양하기</p>

[표 33] 한국 도덕과 학교 급별 목표

이상은 중국의 ‘의무교육어문과정표준과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과 한국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3.2.2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문화목표는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중국과 한국의 ‘어문/국어과 교육과정’과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추출할 것이다. 둘째, 3.2.3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 3.2.2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본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의 가치관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여러 능력을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제2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문화교육의 목표는 교과목의 총괄 목표와 교육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를 통해 확인한다. 둘째, 교육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들은 중국과 한국의 ‘어문/국어과 교육과정’과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추출할 것이다.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의무교육어문과정표준’에서는 목표를 열 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언어에 국한되는 능력들을 제외하고 학습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을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의 목표는 영역과 세부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부 목표에 학습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 목표 중 능력에 관한 내용만을 두 번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문화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 능력들을 참고하여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며 중국인 학습자들도 한국문화의 학습에 거부감이 덜하고 손에 여물 것이다.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에서

학습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을 세 번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먼저 총괄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영역, 핵심 가치관, 내용요소,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을 학습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으로 보고, 네 번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능력들을 참고하여 한국문화교육의 연구에 전제되어 있는 능력을 파악한다면 교수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교수·학습하는 데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 3.2.2.1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 1) 중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중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도덕 관련 교과에서 살펴본다.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사상품덕’ 세 개 과정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양호한 인품과 덕성과 행동 습관을 지니고, 기꺼이 탐구하고 삶을 사랑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의 올바른 사상관념과 도덕적 자질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이 이상이 있고 도덕심이 있고 문화소양이 있고 규율이 있는 공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2)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

##### 가) ‘의무교육어문과정표준’에서의 능력들

중국 교육과정의 어문과정의 목표를 보면 어문에 요구한 기본 지식 외에 ‘사회주의 사상도덕’, ‘중화문화’ 등 정체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교육과정의 지도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sup>86)</sup>

86)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덩 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The important thought of Three Represents'의 중요 사상에 의해 과학적 발전관(發展觀)을 구현,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진흥시키는 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 전략을 실시하여, 교육을 우선으로 발전시켜,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현대교육체계를 완성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특색을 나타내는 항목 외에 중국 ‘의무교육어문과정표준’에서의 교육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한다.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사상도덕 배양, 건강한 심미관 배양, 창조적 정신 육성, 협력적 정신 육성, 긍정적인 인생태도와 올바른 세계관/가치관 형성, 중국문화의 풍부함과 풍요로움 인식, 민족 문화의 지혜 연음, 탁월한 인간 문화의 영양을 흡수하고 문화 품위를 향상시킴, 사고능력 개발, 과학적 사고방식 학습, 실사구시(實事求是), 진지(眞知)를 숭상하는 과학적인 태도 양성, 탐구적 학습, 능동적 수행, 상상력 자극, 잠재력 창출, 감수(感受)와 이해력 키움, 문학 작품 감상,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함, 경청, 예의적 대인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행, 참고자료의 사용 습득, 정보 수집 처리 능력,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 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의 능력들

중국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목표에서 나타난 능력들이 다음과 같다.

문제 제기, 탐구 능력, 자아인식, 자신의 정서 조절, 자신의 행위를 조절, 자신의 감정 및 견문 표현, 타인의 의견 경청, 타인의 심정 및 요구를 체득하여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 및 협력, 적극적으로 집단생활 참여,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 사물 및 현상에 대한 관찰, 생활 중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활 중 문제에 대한 탐구 및 해결을 시도, 사회 공익 활동 참여, 메시지를 수집, 정리 및 운용의 능력,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 분석 및 설명, 환경보호의 능력, 교제 및 의사소통의 기술, 사회 공공생활에 참여, 매체 소양을 높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 복잡한 사회생활 및 다양한 가치관을 대면하여 올바른 가치관으로 기준하며 정확한 도덕 판단과 선택.

### 3.2.2.2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 1)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서 제시한 것이다.

인성을 배양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

##### 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능력들

한국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가져야 할 능력들은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제시한다.

자기관리 역량(주도적),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비판적 역량

##### 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능력들

한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인식 및 존중하기, 자기감정 조절하기, 자기감정 표현하기, 생활계획 수립하기, 모범사례 반복하기, 유혹 이겨내기, 경청·도덕적 대화하기, 타인 입장이

해·인정하기,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 관점 채택하기, 공익에 기여하기, 봉사하기,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실천 의지 기르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심미적 감수성 기르기, 자연과 유대감 갖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도덕적 자기 인식·존중·조절하기, 본받기(모델링), 회복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 가꾸기, 비판적 사고하기, 창의적 사고하기, 배려적 사고하기,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공감 및 경청하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도덕적 정서 이해·표현·조절하기, 행위 결과를 상상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다양성에 반응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공동체의 일원되기, 보편적 관점 채택하기,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생명 친화적 관점 채택하기,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평정심 추구하기, 도덕적 이야기 구성하기, 삶의 의미 구성하기, 실천 방법 탐구하기, 실천 방법 제시하기, 실천 의지 함양하기

### 3.2.2.3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 1)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육 목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덕 교육을 통해 다양한 도덕 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 2)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 대조

중국과 한국의 ‘어문/국어 교육과정과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능력 내용을 보면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공통되는 능력도 많이 있다. 다음 표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

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중국 초·중등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난 능력	공통된 능력	한국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만 나타난 능력
<p>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사상 배양 심미관 배양 협력적 능력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세계관/가치관 형성 중국문화의 풍요로움 인식 민족 문화의 지혜 습득 우수한 문화 흡수와 품위 향상 사고능력 개발 과학적 사고방식 학습 과학적인 태도 잠재력 창출 능력 자기 정신세계 풍부하게 함 참고자료의 사용 습득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문제 제기, 자신의 행위를 조절, 자신의 견문 표현,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 및</p>	<p>정보 수집하고 처리 능력, 주동적 능력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자아인식 및 존중하는 능력 자기감정(정서) 조절 능력 자기감정(정서) 표현 능력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탐구 능력 타인 입장 이해·인정하는 능력 공익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능력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의사소통하는 능력 다양성 수용·반응 능</p>	<p>비판적 역량 생활계획 수립하기, 모범사례 반복하기, 유혹 이겨내기,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봉사하기,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행위 결과 상상하기, 자연과 유대감 갖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본받기(모델링), 회복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 가꾸기, 배려적 사고하기,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공동체의 일원되기,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생</p>

협력, 적극적으로 집단생활 참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활 중 문제에 대한 탐구 및 해결을 시도,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분석 및 설명, 환경보호의 능력, 매체 소양을 높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	력 올바른 의사결정과 선택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 공동체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명 친화적 관점 채택하기,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평정심 추구하기, 도덕적 이야기 구성하기, 삶의 의미 구성하기, 실천 방법 제시하기, 실천 의지 기르고 함양하기
---	---	---

[표 34]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수행하는 능력들 대조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을 보면, 공통되는 능력은 타인 이해, 공익 기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다양성 수용, 대인관계 등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아에 관한 능력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수집·처리, 탐구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 등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통으로 제시된 만큼 이는 학습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능력들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 양국의 상이한 능력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난 능력은 심미관 배양, 협력적 능력, 과학적인 태도, 잠재력 창출 능력 등이 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난 능력은 비판적 역량, 생활 계획 수립하기, 유혹 이겨내기,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봉사하기, 배려적 사고 등이 있다.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신할 수 없으나, 이는 양국 교육과정 목표에 제시하는 방법의 차이, 즉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느냐 귀납적으로 제시를 하였느냐에 따라 차이 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결과를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의

교수·학습에서 어느 정도 참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 3.2.3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하여 각각 나라의 가치관을 추출하여 이를 대조 하도록 한다.

#### 3.2.3.1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표준(초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초등학교 고학년 과정), 의무교육 ‘사상품덕’ 과정표준(중학교 과정) 세 과정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나열하면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하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며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귀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관교육 내용들은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가치관을 분류해서 제시한 것과 대략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부 가치관교육 내용들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대조하는 데 더욱 명확하고 간편할 것이다. 귀납적으로 분류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역	세부내용
자아와 관련된 가치관	스스로 존중, 스스로 단속, 자기 긍정적 태도, 부지런하고 순박한 태도, 자신감, 의지 강인한 인생태도
타인과 관련된 가치관	가족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중한다, 우애 및 포용력, 부 모에 효도, 타인 존중,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책임감 있고 공정을 추구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가치관	집단/고향/조국을 사랑한다, 인민 및 사회주의 사랑, 문 명예의, 성실 및 신용 지킴, 단결 및 협력, 책임감, 규칙 의식 및 민주, 법치관념, 공평공정, 공공정신, 공민의식, 조국의 역사 및 문화를 사랑, 중화민족의 소속감 및 자부 심을 갖기, 중화문화를 인정하고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민 족정신을 발양,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문화 차이를 존 중, 개방적인 국제시야, 글로벌 의식, 평화를 사랑
자연·초월과 관 련된 가치관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과 과학을 사랑한다, 생태환경 보호 의식, 생태환경 및 인류생존의 관계를 체득, 환경의 근검 절약, 자원을 진귀하게 여겨 아끼는 의식

[표 35] 중국의 도덕 교육과정의 가치관

### 3.2.3.2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세부내용
자신과의 관계	성실, 근면, 정직, 시간 관리와 절약, 인내,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자주, 자율, 정직한 삶, 도덕적인 삶, 도덕적 행동, 자아정체성, 삶의 목적, 행복한 삶
타인과의 관계	배려, 효, 우애, 우정, 예절, 협동, 사이버 예절, 준법, 공감, 존중, 봉사, 가정윤리, 우정, 성윤리, 이웃생활, 정보통신 윤리, 평화적 갈등 해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공익, 준법, 공정성, 존중, 통일의지, 애국심, 인권존중, 인류애, 문화 다양성, 세계시민 윤리,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 북한 이해, 통일윤리의식
자연·초월과의 관계	도덕적 책임, 생명 존중, 자연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자아존중, 긍정적 태도, 윤리적 성찰, 자연관, 과학과 윤리,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표 36] 한국의 도덕 교육과정의 가치관

### 3.2.3.3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은 모국문화와 목표문화의 가치관을 비교대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먼저 공통된 내용부터 교수한 후에 대응된 내용, 서로 다른 내용의 순서로 교수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도덕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국민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국	한국
공통된 가치관	우애, 성실, 근면, 자아존중, 긍정적 태도, 책임감, 공평공정, 타인 존중, 효, 다른 사회·공동체 존중, 법률 및 규칙, 애국, 자연애, 자연관, 생명 사랑(존중), 과학 사랑(윤리)	
대응된 가치관	스스로 단속, 자신감,	자아정체성, 자주, 자율,

	가족사랑, 문명예의, 단결 및 협력, 공공정신, 공민의식, 개방적인 국제 시야, 글로벌 의식, 의지 강인한 인생태도 평화를 사랑	가정윤리, 예절, 협동, 공익, 도덕적 시민, 세계시민 윤리, 인류애, 문화 다양성, 인내, 평화적 갈등 해결
	민주	인권존중
다른 가치관	순박한 태도, 윗사람 존중, 포용력,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다. 신용 지키, 생태환경 및 인류생존의 관계를 체득, 집단/고향을 사랑한다, 인민 및 사회주의 사랑, 조국의 역사 및 문화를 사랑, 중화민족의 소속감 및 자 부심을 갖기, 중화문화를 인정하고 혁 명전통을 계승하여 민족 정신을 발양,	시간 관리와 절약,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삶의 목적, 행복한 삶, 사이버 공간의 준법과 예절, 공감, 봉사, 성윤리, 이웃생활, 폭력의 문제, 정보통신 윤리, 사회 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윤리적 성찰,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통일의지, 북한 이해, 통일윤 리의식

[표 37]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들 보면,

공통된 가치관은 우애, 성실, 책임감, 공평공정, 타인/다른 사회·공동체 존중, 애국, 법률 및 규칙, 자연관 등이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양국의 대응되는 가치관 및 상이한 가치관들도 많이 있다. 양국의 상이한 가치관은 중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향 사랑이라는 가치관이다. 이는 중국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더라도 문화 및 사고방식 혹은 음식 등이 매우 다양해서 고향에 대한 감정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이웃생활, 공감 등 가치관은 중국의 가치관 중 나타나지 않은 가치관들이다.

### 3.2.4 소결론

Ⅱ장에서 말했다시피 문화교육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이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교육 목표의 일차적 목표는 도덕적 인간을 배양하며, 다음으로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양국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가져야 할 능력들의 대조를 통해 공통된 능력과 상이한 능력으로 도출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 중 공통된 능력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능력들이다. 서로 상이한 능력들,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나는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능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나는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능력들이다. 교육 대상자인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교육으로부터 배어있는 학습 방법 및 자세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화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을 선택하여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치관교육 내용 분석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은 두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 공통되거나 대응되는 가치관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대부분이고 상이한 가치관 교육내용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가치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3.3 가치관교육의 문제점

Ⅲ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및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분석을 통해 양국의 외국인 및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대조하였다. 양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항목별로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교수학습 대상	국가	분석자료	
문화교육의 목표	외국인 학습자	중국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	
		한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	
	자국인 학습자	중국	의무교육신(新)과표(2011년판)	도덕과
		한국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	
문화능력	외국인 학습자	중국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	
		한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	
	자국인 학습자	중국	의무교육신(新)과표(2011년판)	어문/국어 도덕
		한국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	
가치관	외국인 학습자	중국	국제 한어교학 통용과정 대강(2014)	도덕
			공자학당 교재	
		한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2017)	
	세종학당 교재			
자국인	중국	의무교육신(新)과표(2011년판)		

학습자	한국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	
-----	----	-----------------	--

[표 38] III장에서의 분석자료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중국과 한국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양상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대조하며, 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IV장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이에 따른 문화교육에서 학습자가 갖춰야 할 능력,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교육의 모형까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 3.3.1 문화교육 목표

분석한 자료를 통해 도출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	한국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것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도덕적 인간을 배양하여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	

[표 39]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 대조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와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는 이에 따른 상호문화적 능력을 포함하므로 상호문화적 능력에 포함되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문화 능력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강>은 문화능력을 다루고 있으나 제한적이었고, 한국의 <4단계>는 문화 능력보다 문화지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제시하였으며 문화능력을 등급화시키는 문제

점이 있다.

다음으로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문화능력을 살펴보았다.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의 문화능력은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다. 양국의 문화능력은 공통적으로 대인 관계, 자아에 관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 상이한 문화능력이 많았다. Ⅲ장의 자료 분석은 Ⅳ장 상호문화적 능력 설정의 토대가 되므로 중국과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어문/국어과와 도덕 관련 과목에서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구체적인 목록을 추출하였다.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Ⅲ장에서 나타난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육 목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는 보다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Ⅱ장에서 말했듯이 문화교육이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② 상호문화능력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4단계>는 문화능력보다 한국의 문화지식에 대한 제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을 요구하며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문화 지식보다 기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한국의 <4단계>는 문화 내용 및 문화능력을 모두 일방적으로 등급화시키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은 모국문화가 전제이므로 반드시 모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 3.3.2 가치관교육 내용

Ⅲ장의 자료 분석은 Ⅳ장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의 토대가 되므로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과 정부운영기관, 초·중등교육과정의 도덕 관련 과목에서 구체적인 가치관 목록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가치관은 II장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공통된 내용, 대응되는 내용, 상이한 내용의 순서로 교수하여야 한다.

먼저 중국과 한국의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과 정부운영기관을 분석한 결과 공통되거나 대응되는 가치관은 일상적이거나 자주 마주하는 것이었고, 상이한 가치관은 각 나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의 도덕 관련 과목을 분석할 결과 공통되거나 대응되는 가치관은 인류와 세계의 보편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상이한 가치관은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분석 결과와 같이 각 나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중국	한국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개인과 집단 권위와 평등 아름다움과 추악함 등	사고방식 정서 종교 가치관의 변화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자아와 관련된 가치관 타인과 관련된 가치관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가치관 자연·초월과 관련된 가치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외국인&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공통된 가치관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감은부모, 부자자효) 조인위락 집단 및 나라의 영광 강조 향토관념 근검절약(순박한 태도)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 예절

[표 40] 중국과의 한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대조

위의 표를 보면,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모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은 분류상으로 보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즉 중국과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4가지로 귀납할 수 있고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의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교육의 내용과 매우 상이하였다

중국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 서로 다른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가치관 척도로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권위와 평등, 개인과 집단 등’이다.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중분류로 ‘사고방식, 정서, 종교, 가치관의 변화’로 제시하여 세부내용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들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들은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 중 ‘선물 문화, 결혼 풍습, 금기 등’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고,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에서 ‘자아존중, 우애, 긍정적 태도, 다른 사회·공동체 존중, 자연관 등’ 내용들이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국의 외국인에 대한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공통된 가치관에서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가치관 내용은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 조인위락, 집단 및 나라의 영광 강조, 향토관념, 근검절약’이다.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가치관 내용은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 예절’이다.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가치관은 그만큼 중요하며,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본다.

## IV.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

이 장에서는 문화교육의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4.1에서 ‘문화교육 목표’ 및 4.2에서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해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떠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통해 어떠한 문화교육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로(思路)’에 되돌아가 두 내용을 연결하여 4.3에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교육을 할 때와 문화교육을 연구하는 데에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III장의 자료 분석하는 전 과정에 상호문화적 접근을 견지하였고 상호문화적인 교육을 위해 이 장의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역시 전 과정에 걸쳐 상호문화적 접근을 유지할 것이다. 즉,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도록 한다. 진정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을 이루려면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정부터 상호문화적 접근을 해야 논리에 맞는 것이며, 실제 문화교육을 할 때도 교육목표에서 이탈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들을 줄여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설정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그림 17]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기준

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표이다.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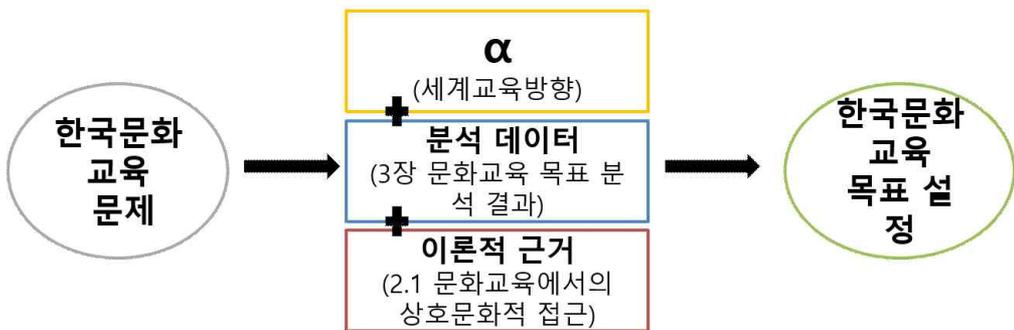
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교육 과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을 위해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위의 [그림 21]에서 제시된 설정 기준에 따라 우선 4.1에서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가치관교육의 내용도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같이 [그림 21]에서 제시된 설정 기준에 따라 4.2에서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도록 한다.

‘어떠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통해 어떠한 문화교육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로(思路)’에 따라 4.2에 제시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통해 4.1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4.3에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에 따른 가치관교육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 4.1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다음 [그림 18]에서 제시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림 18]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 방법

위의 설정 방법에 따르면, 제기된 기존의 한국문화교육의 문제에 대한 보

완 혹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에 토대하여 III장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설정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자 한다.

I 장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교육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위적이고 원칙론적인 연구이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절은 ‘어떠한 목표’에 대한 답이다.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교육의 총괄 목표는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에서 도출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방향’과 ‘2030세계교육방향의 목표’ 두 가지를 종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둘째, 이에 따라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습 능력, 즉 상호문화적 능력을 ① II장의 ‘상호문화능력’과 ② 문화능력<sup>87)</sup> 두 가지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문화능력은 III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IV장에서 새로이 제시할 ‘2030세계 교육방향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므로 IV장의 연구도 역시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을 통해 길러야(학습자가 갖춰야) 할 능력들이다.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과 구별하여,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들을 모두 포함한다.

---

87) III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구별하여, 외국인이 대상 이든 자국인이 대상이든 문화교육을 통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으로 보고, 이절에서 III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2030세계교육방향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능력’을 통해 도출된 능력들을 ‘문화능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4.1.1 한국문화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

한국문화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는 ‘이론적 근거 → 분석 데이터 → 추가 자료’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한국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 목표 설정의 분석 데이터, 목표 설정의 추가 자료’이다.

##### 4.1.1.1 목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

앞에 언급한 듯이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은 총괄 목표와 이에 따른 상호문화적 능력으로 나누어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2.1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의 방향에 따라 문화교육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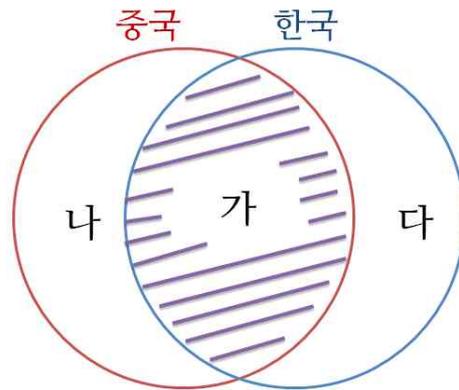
첫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목표는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닌다. 문화교육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 대상으로 하든 그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목표에서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 즉 ‘상호문화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어,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이루어지게 한다.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더 나아가 인류문화의 보편성 및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인류 공동체 문화 향상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내용으로 수용하고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교육의 총괄목표는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총괄 목표를 설정하는 데 토대가 된다.

다음으로, II장의 ‘상호문화능력’과 III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토대로하여 IV장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을 설정할 것이다. 2.1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의 방향에 따르면, 문화교육에 있어 지식보다 기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에 따라 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교육목표에서 요구한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19]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은 중국과 한국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다룬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의 교수·학습은 ‘가’, 즉 중국과 한국 문화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된 능력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 중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된 능력, 마지막으로 ‘다’ 한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된 능력으로 다루어야 한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을 포함한다. 상호문화능력은 이미 2.1에서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상호문화능력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하며, 최소한 가져야 할 요소는 ‘태도, 지식, 기술’ 세 가지라고 보았다.

- 태도: 호기심, 개방성, 존중, 유연성
- 지식: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지식
- 기술: 해석, 경청, 변환, 관련짓기, 발견/상호작용, 평가, 적응, 중계 기술

문화능력은 III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2030세계교육방향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능력’을 통해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설정 원칙에 따라 분석 데이터와 추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즉 총괄 목표 및 상호문화적 능력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 4.1.1.2 목표 설정의 분석 데이터

앞에 제시한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에 따라 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분야	세부 내용
공통된 능력	정보 수집 처리 능력, 주동적 능력,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자아인식 및 존중하는 능력, 자기감정(정서) 조절 능력, 자기감정(정서) 표현능력,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탐구 능력, 타인 입장 이해·인정하는 능력, 공익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능력,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의사소통하는 능력, 다양성 수용·반응 능력, 올바른 의사결정과 선택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 공동체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중국의 문화능력	애국주의/집단주의 사상 배양, 심미관 배양, 협력적 능력,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세계관/가치관 형성, 우수한 문화 흡수와 품위 향상, 사고능력 개발, 과학적 사고방식 학습, 과학적인 태도, 잠재력 창출 능력, 자기 정신세계 풍부하게 함, 참고자료의 사용 습득,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문제 제기, 자신의 행위를 조절, 자신의 견문 표현,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 및 협력, 적극적으로 집단생활 참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활 중 문제에 대한 탐구 및 해결을 시도,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분석 및 설명, 환경보호의 능력, 매체 소양을 높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
한국의 문화능력	비판적 능력, 생활계획 수립하기, 모범사례 반복하기, 유혹 이겨내기,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봉사하기,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행위 결과 상상하기, 자연과 유대감 갖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본받기(모델링), 회복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 가꾸기, 배려적 사고하기,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공동체의 일원되기, 생명 친화적 관점 채택하기,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평정심 추구하기, 도덕적 이야기 구성하기, 삶의 의미 구성하기, 실천 방법 제시하기, 실천 의지 기르고 함양하기

[표 41] 중국과 한국의 모국 문화를 이해·수행하는 능력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학습자 모국문화에서 요구되는 능력, 목표 문화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중국과 한국의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양국의 국가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여 정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 배양, 중국문화의 풍요로움 인식, 민족 문화의 지혜 습득 등과 같은 능력들과 한국의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등 능력들이다.

#### 4.1.1.3 목표 설정의 추가 자료

한국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료로 세계교육포럼에서 제시된 세계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교육포럼은 전 세계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회의이므로 이에 의해 발표된 교육 방향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다 높은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안내하므로 한국문화교육의 방향도 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030세계교육방향은 2015세계교육포럼<sup>88)</sup>에서 〈인천선언<sup>89)</sup>〉의 선언문으로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전 세계의 새로운 비전이 채택되어 제시된 2030년까지의 전 세계적인 교육방향이다. 새로운 교육비전은 ‘2030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진흥’하는 것이다.<sup>90)</sup> 선언문은 앞으로 2030년까지 회원국 정부들에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관련 국제기구들의 임무를 정의하게 된다.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에 따르면, 〈인천선언〉의 교육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

---

88) 전 세계 교육 분야 최대 규모 회의이다. 2015년 5월에 인천에서 열렸고 지난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이후 15년 만의 회의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여성기구, 유엔난민기구, 세계은행의 7개 국제기구가 대거 참여하였다. 이번 인천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난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기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89) 세계는 2015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기간을 위한 보편적 교육의제를 설정하였다.

90) 교육부 보도 자료

다. 이에 대한 교육의 주요 목표 및 전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시한다.

① 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학습자들은 기초 문해력이나 수학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분석력과 문제 해결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② 교육권의 필수적인 부분은 모든 수준 및 상황에서 적절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로 이어지는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학습자가 학습의 초석이 되는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았으며 적절한 보수를 받는 의욕적인 교사가, 적합한 교수법으로 ICT를 활용하여 가르치고, 학습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건전하며 양성평등적이면서 포용적이고 적절한 설비를 갖춘 환경이 필요하다.

③ 교육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시장, 기술적 발전, 도시화, 이주, 정치적 불안정, 환경 파괴, 자연 재해와 재난, 천연자원 경쟁, 인구 문제, 전 세계적인 실업 증대, 빈곤의 지속, 불평등의 심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확대 등에 적절하게 대응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이 문해 능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상호의존적이고, 지식기반적이고, 기술주도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한 기술과 능력을 평생에 걸쳐 발전시킬 필요가 긴급하다. 교육 2030은 모든 개인이 지식의 단단한 기초를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협력 기술을 발전시키며,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④ 인간 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목적과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교육 2030 의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교육은 사회적 결속과 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간 대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함양한다.

- 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지향하고 상호 이해, 관용, 우정과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 ⑥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

교육 2030은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점은 평생학습적인 관점에서 교육접근성의 증대 및 확대, 포용성과 형평성, 모든 수준에서의 양질의 교육과 학습 성과 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교육 2030의 교육 방향 및 학습자 역량 등 항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교육2030 목표에 나타난 몇 가지의 개념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에 언급한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2030 세계교육목표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목표이며, ‘양질의 교육’에 강조하는 ‘문해력’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sup>91)</sup>은 학습자가 오늘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환경적 통합, 경제적 생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현명한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평생학습과 관련되며, 양질의 교육의 일환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총체적이며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으로 학습 내용, 성취, 페다고지, 학습 환경을 다룬다. 이는 사회를 변혁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이에 대한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에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91) (이희수, 2017, p15)도구로서의 발전교육을 넘어서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이자 이를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곧 평생교육의 시대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정신이다. 한국교육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이미 앞에 잘 만들어진 길이자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보장’을 걸어가고 이에 이르기 위해 힘을 보태고 나누는 것뿐이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똑같이 해당한다고 본다.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생산적인 생활, 현명한 결정,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 및 전지구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은 평화와 인권 교육, 문화간 교육, 국제이해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교육<sup>92)</sup>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사회·경제·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인 지속가능발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이는 평생학습에 해당한다. 평생에 걸쳐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양질의 교육**은 시민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이끌고, 정보에 기반 한 결정을 내리며, 지역적·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창의성과 지식을 함양하고, 문해력과 수해력같은 기초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분석력, 문제해결 능력과 기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성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평생학습(平生學習, lifelong learning)**론은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새 시대의 교육제도라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평생학습론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에 걸친 교육의 문제를 다루려는 입장이며, 교육자 본위의 기존 교육학을 비판하고 학습자 본위의 새로운 교육학을 추구하는 대안적 이론이다.<sup>93)</sup> 이는 개인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생교육<sup>94)</sup>은 유네스코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이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학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92) 최근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한 예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50%만이 자국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관련 정책에 통합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93)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94) 평생교육이란 영어의 'life-long education'이란 말을 번역한 말이지만 본래는 폴 랑그랑(Paul Lengrand)이 1965년 유네스코에서 항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데서 나온 말이다. 평생교육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수행되었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제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제도의 개편과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제2판)』, 교육과학사, 15쪽.)

접어들면서 평생교육 이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강제된 교육’ 개념에서 ‘주체적 학습의 개념’으로, 또는 ‘교육하는 측’에서 ‘학습하는 측’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즉, 평생학습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95)</sup>

학습이란 어느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급히 변화 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상황 및 문제들에 수없이 직면하게 된다. 지식 갱신의 속도도 무지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에 적응하려면 학습을 단순한 지식을 알아내려는 것에서 생활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요구하게 된 역량은 능동적, 지속적인 탐구, 발전적인 시각으로 자아 보완, 가진 지식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식의 처리 및 관리 등 역량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GCED)은 학습자에게 다음의 핵심 역량을 제공한다.

- ① 전 지구적 문제 및 정의, 평등, 존엄 및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 ② 이슈에 대한 다양한 측면, 관점, 시각을 인지하는 다원관점 접근을 포함하는 비판적, 체계적,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
- ③ 공감과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 비인지적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배경, 출신, 문화와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태도
- ④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행동 역량

문해력<sup>96)</sup>의 문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

---

95) 차갑부(2014, p58), 『평생교육론(제2판)』, 교육과학사.

96) 한국에서 정의하는 ‘문해력’은 평생교육법의 정의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제2조3항)에서 ‘문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으로 정의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해교육 정책에서는 문해력을 ‘일상 생활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일상생활을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 생활로 세분화하여 보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조순옥, 2016, p49)

졌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세스에서 문해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능력’을 넘어 ‘국제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세상을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UNESCO, 2016c: p. 137-138).

문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넘어 ‘구술성에 의존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현대적 사고 체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허준, 양은아, 2015, p.112). 또 하나의 의미는 ‘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역량’이다. (조순옥, 2016, p51)

이상에 따르면, 2030세계교육방향의 목표는 크게 두 부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나뉜다. 이 목표에 따라 학습자가 여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2030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목표, 내용(주제), 시민(학습자)의 능력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분야	세부 내용
목표	① 지속가능발전교육 ② 세계시민교육
내용	문화간 대화,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속가능발 전,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기후 변화, (보편적 가치) 정의, 평등, 존엄 및 존중, 이슈
능력	높은 수준의 분석력, 문제 해결능력, 대인관계, 사회적 능력, 창의적 이고 비판적인 사고, 협력 능력, 호기심, 용기, 회복 탄력성, 능동적, 지속적인 탐구, 발전적인 시각으로 자아 보완, 가진 지식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식의 처리 및 관리, 평생에 걸쳐 발전시키는 데 에 필요한 능력, 전 지구 문제 및 정의·평등·존엄 및 존중과 같은 보 편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이슈에 대한 다양한 측면/관점/ 시각을 인지하는 다원관점 접근을 포함하는 비판적·체계적·창의적으 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공감과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비인지적 기술, 다양한 배경/출신/문화와 관점을 지닌 사람들 과의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태도,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행동 능력

[표 42] 2030 세계 교육 방향에서 제시된 목표, 내용 및 능력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2030 교육 방  
 향인 세계 교육 방향의 거시적인 방향에 따르며,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화교육  
 과 대상자인 중국인학습자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시해본다.

2030 세계 교육 방향의 목표는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  
 화교육 목표의 추가 자료가 되고, 2030 세계 교육 방향의 능력은 상호문화적  
 능력의 추가 자료가 된다. 2030 세계 교육 방향의 내용은 전 세계에서 관심  
 을 모으고 보편적으로 다루는 교육 내용이므로 모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  
 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문화교육에서도 다루어야 할 내용이므로 본 연구  
 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4.1.2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

앞에 제시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설정 방법 및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에 따라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는 총괄목표와 이에 요구되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포함한다. 앞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풍요롭게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상호문화적 능력을 갖추어,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이해와 공감에 이루어지게 한다.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다른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더 나아가 인류문화의 보편성 및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인류 공동체 문화 향성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내용으로 수용하고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를 습득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총괄 목표에 따르면, 첫 번째 목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두 번째 목표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은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임을 나타낸다. 세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한국문화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총괄 목표는 이러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호문화적 능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을 포함한다. 상호문화능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태도,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문화능력은 Ⅲ장의 분석 데이터와 2030 세계교육방향에서 요구되는 능력들과 종합하여 중복된 능력들을 한 가지 능

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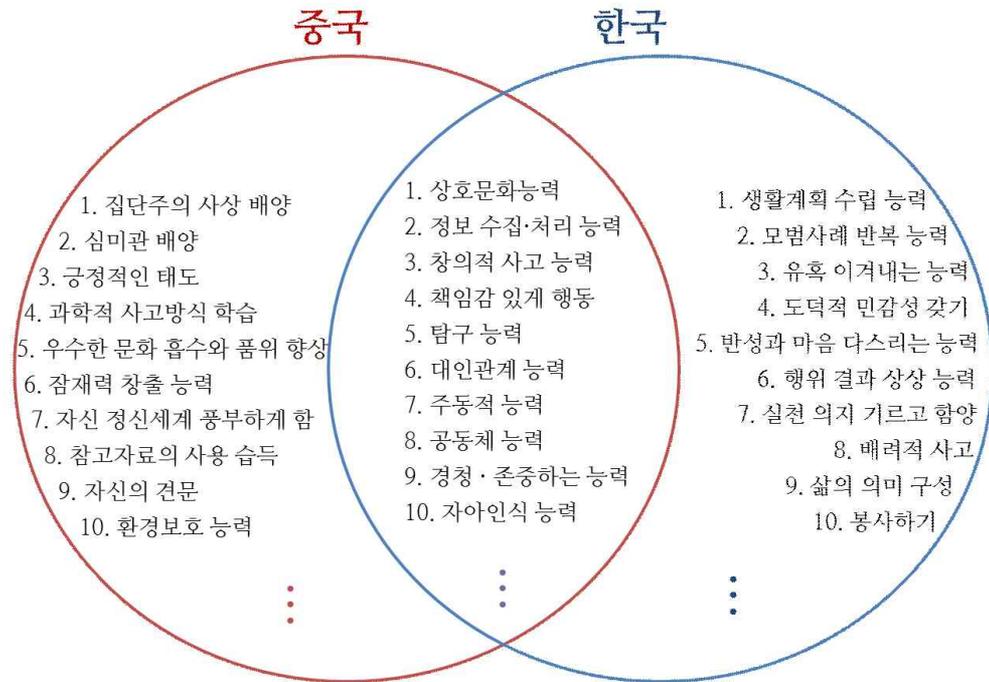
기본적인 능력	세계시민의 능력	1. 정보(지식) 수집·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책임감 있게 행동, (지속적인) 탐구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능력, (도덕적·예의적)대인관계 능력, 주동(능동)적 능력, 다양한 배경, 출신, 문화와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태도, (이슈를 포함)다양성 수용·반응하여 다원관점 접근 능력, 공동체 능력(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행동 능력)
	공통된 능력	2. 협력 능력 3. 비판적 능력,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 4. 높은 수준의 분석력, 문제 해결능력, 호기심, 용기, 발전적인 시각으로 자아 보완, 가진 지식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평생에 걸쳐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능력, 전 지구 문제 및 보편적 가치(정의, 평등, 존엄 및 존중과 같은)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체계적 능력
중국의 문화능력		애국주의/집단주의 사상 배양, 심미관 배양,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세계관/가치관 형성, 우수한 문화 흡수와 품위 향상, 사고 능력 개발, 과학적 사고방식 학습, 과학적인 태도, 잠재력 창출 능력, 자신 정신세계 풍부하게 함, 참고자료의 사용 습득,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문제 제기, 자신의 행위를 조절, 자신의 견문 표현,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 및 협력, 적극적으로 집단생활 참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활

	중 문제에 대한 탐구 및 해결을 시도,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분석 및 설명, 환경보호의 능력, 매체 소양을 높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
한국의 문화능력	생활계획 수립 능력, 모범사례 반복 능력, 유혹 이겨내는 능력,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도덕적 민감성 갖기, 봉사하기,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 능력, 행위 결과 상상 능력, 자연과 유대감 갖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는 능력, 본받기(모델링), 건강한 마음 가꾸는 능력, 배려적 사고,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 사회적 편견 통제, 생명 친화적 관점 채택,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 평정심 추구, 도덕적 이야기 구성, 삶의 의미 구성, 실천 방법 제시, 실천 의지 기르고 함양

[표 4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능력

이상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기본적인 능력, 중국의 문화능력, 한국의 문화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능력은 다시 세계시민의 능력과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능력으로 나누었다. 세계시민의 능력은 2030세계교육방향에서 제시한 능력들이며, 중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화능력과 종합하여 다시 네 가지로 나누었다. 1) 세계시민의 능력과 중국·한국의 공통된 문화능력들에서 일치한 내용이다. 2) 세계시민의 능력과 중국의 문화능력에서 공통된 능력들이다. 3) 세계시민의 능력과 한국의 문화능력에서 공통된 능력들이다. 4) 2030세계교육방향에서만 나타난 능력들이다. 공통된 능력은 Ⅲ장에서 제시한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문화능력에서 세계시민의 능력과 공통된 능력들을 제외한 능력들이다. 즉, Ⅲ장에서 분석한 양국의 공통된 능력에서 1)을 제외하여 남은 능력들이다. 중국의 문화능력은 Ⅲ장에서 분석한 능력에서 세계시민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예를 들어, 협력 능력)을 제외한 능력들이다. 한국의 문화능력도 이와 같다.(예를 들어, 비판적 능력, 회복 탄력성 등)

이러한 문화능력과 2.1에서 제시한 상호문화능력을 합쳐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앞에 제시한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에 따라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20] 상호문화적 능력

위 그림은 [표 79]에서 제시한 문화능력들 중 대표적으로 10개를 뽑아, 상호문화능력과 함께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에 적용한 것이다. [표77]의 모든 능력들은 당연히 이 원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0세계교육방향에 따라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대상자인 중국인학습자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시해본 것이다. 이는 4.3의 모형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목표로 제시할 것이다.

상호문화적 능력의 설정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운데 능력들은 공통적이거나 기본적인 능력들이다. 빨간색 왼쪽에 있는 능력들은 중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며, 파란색 오른쪽에 있는 능력들은 한국문화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가운데 기본적인 능력들 보면, 상호문화능력을 세부화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한국문화교육에서 기본적인 상호문화적 능력 중의 하나로 보았다. 왜냐하면, 상호문화능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이에 대해

현재 많은 연구자들도 풍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즉, 이에 대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범위 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능력에서 상호문화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용어, 상호문화능력으로 통칭하여 포함하고자 한다.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은 모두 상호문화적 능력에 포함되어, 두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중첩되게 된다. 두 능력은 모두 문화교육을 통해 갖춰야 할 능력들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능력의 항목들이 많다.

Ⅱ장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방향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 따라 구체적인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상호문화적 능력들을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설정하였다. 이는 교수·학습에서 ‘공통·기본적인 능력 - 중국의 문화능력 - 한국의 문화능력’의 순서로 다루어야 한다. 공통·기본적인 능력은 세계적인 교육 방향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양국의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이므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교육의 학습자를 중국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능력은 모국의 문화능력이 된다.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접근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목표 문화인 한국과 모국 문화인 중국에서의 문화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문화능력을 두 번째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생경한 한국의 문화능력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공통·기본적인 능력과 중국의 문화능력을 다루며 상호문화적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본다. 배양된 상호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한국의 문화능력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 4.2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데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다음 [그림 21]에서 제시한 설정 방법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21]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방법

위의 설정방법에 따르면, 제기된 가치관교육 내용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III장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I장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교육의 교육내용은 기존의 초·중·고 급의 한국어교재를 분석해, 문화교육내용을 범주화하고 선정하거나 문화교육 내용이 한국어능력과 연계돼 수준별로 분리된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문제들이다. 이에 직면하여 본 연구의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 중 ‘어떠한 내용’에 대해 답을 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은 구체적으로 II장에서 모색한 ‘상호문화적 접근에 따른 가치관교육의 이론’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교육 내용’을 기초 자료로 하며 이어서 IV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조사’를 추가하여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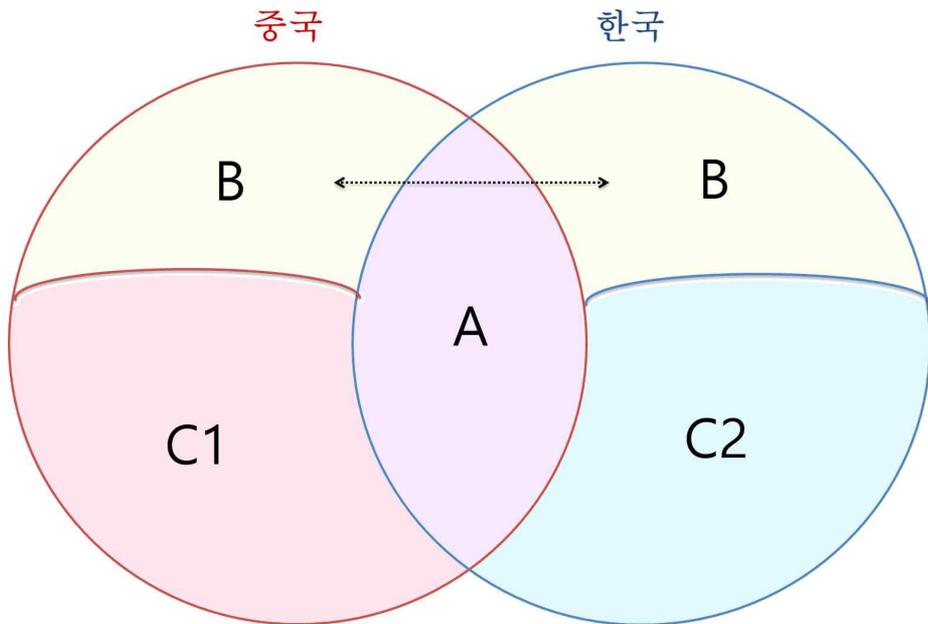
#### 4.2.1 가치관교육 내용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는 ‘이론적 근거 → 분석 데이터

→ 추가 자료'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 4.2.1.1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의 이론적 근거

2.1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 방향에 따르면, 문화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2]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원칙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 교육 내용은 A가 중국과 한국 공통된 가치관 내용이고, B는 대응된 가치관 이고, C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다.

이는 1장에서 언급한 문화교육내용의 언어와 연계된다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문화교육의 내용이 언어수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데 공통된 항목에서 연관된 항목, 서로 다른 항목의 순서로 설정하는 것이 바라직한 것이다. 학습자가 외국 문화를 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내용이 학습자가 익숙한 내용일수록 교수·학습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고, 학습자의 거부감도 덜할 것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Ⅲ장에서 도출된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및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중국과 한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가치관조사’을 통해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앞에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30세계교육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보편적으로 다루는 교육 내용이므로 모든 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보았고,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하는 데에 이를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4.2.1.2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의 분석 데이터

Ⅲ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각각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모두 다루는 가치관 내용은 양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	한국
공통된 가치관	효(감은부모), 가족주의, 체면 중시, 우애, 성실, 근면, 자아존중, 긍정적 태도, 책임감, 공평공정, 타인 존중, 다른 사회·공동체 존중, 법률 및 규칙, 애국, 자연애, 자연관, 생명 사랑(존중), 과학 사랑(윤리)	
대응된 가치관	가족사랑	가정윤리
	문명예의	예절(공공예절)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한국인의 민간 신앙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결혼 풍습/문화
	심미관	첫인상
	부자자효	가부장주의

	연공서열	직장의 수직관계
	스스로 단속, 자신감	자아정체성, 자주, 자율
	단결 및 협력	협동
	공공정신	공익
	국민의식, 개방적인 국제시야	도덕적 시민, 세계시민 윤리, 인류애
	글로벌 의식	문화 다양성
	의지 강인한 인생태도	인내
	평화를 사랑	평화적 갈등 해결
	민주	인권존중
다른 가치관	조인위락	성역할, 성윤리, 빨리빨리, 유교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향토관념(고향 사랑) 근검절약(순박한 태도) 대의명친 고생교육 징계교육 습금불매,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윗사람 존중, 포용력, 신용 지킴, 생태환경 및 인류생존의 관계를 체득,  ※ 인민 및 사회주의 사랑, 조국의 역사 및 문화를 사랑, 중화민족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갖기, 중화문화를 인정하고 혁	사상, 외모지상주의, 세대별 가치관, 직업관, 정(情), 한(恨), 신명, 종교, 소원, 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장 언어 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선물 문화, 민간요법,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시간 관리와 절약,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삶의 목적, 행복한 삶, 사이버 공간의 준법과 예절, 공감, 봉사, 이웃생활, 폭력의 문제, 정보통신 윤리, 사회 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윤리적 성찰,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명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정신을 발양	※ 통일이지, 북한 이해, 통일윤리의식
--------------------	-----------------------

[표 44] 중국과 한국의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

중국과 한국의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은 Ⅲ장의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중국과 한국의 자국민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과 종합하여 중복된 항목은 하나의 가치관으로 보아 정리한 것이다.

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민을 위한 가치관교육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가치관은 그만큼 중요하며,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 조인위락, 집단 및 나라의 영광 강조, 향토관념, 근검절약’ 가치관들이다. 한국의 ‘가족에 관한 가치관, 효, 예절’ 가치관들이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다.

또한, 중국의 가치관 내용에서 ‘인민 및 사회주의 사랑, 조국의 역사 및 문화를 사랑, 중화민족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갖기, 중화문화를 인정하고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정신을 발양 등’ 항목과 한국의 가치관 내용에서 ‘통일이지, 북한 이해, 통일윤리의식 등’과 같은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치관교육 내용에서 제외한다. 이는 한국문화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의 표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참고 내용으로 가장 아랫부분에서 제시하였다.

#### 4.2.1.3 가치관교육 내용 설정의 추가 자료

가치관은 현시성(現時性)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 한국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가치관 조사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가치관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러 나라에서 3~5년 간격으로 국민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것

과 달리 중국은 아직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가치관조사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 국민이 가져야 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응 할 것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국민교육의 온 과정에 융합되어 있다. 97) 국가 교육의 전반적인 계획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고, 기초 교육, 고등 교육, 직업 및 기술 교육, 성인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교재, 교실에 홍보하고 학생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 융합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경업敬业(맡은 바 업무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다.), 성신誠信, 우선友善(우호적이고 다정하다.)

이 중에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 융합和諧 네 가지 항목은 국가 측면에서 요구한 가치관,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네 가지 항목은 사회 측면에서 요구한 가치관, 애국愛國, 경업敬业, 성신誠信, 우선友善 네 가지 항목은 공민 측면에서 요구한 가치관이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1996년 처음 시작한 이후 2013년까지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조사이며, 2016년 본 조사는 제 6차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인의 변화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증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조사의 특징은 기존의 가치관 조사의 ‘기본문항’에 ‘현안 중심 문항’을 추가하여 이원화로 구성하였다. 현안주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sup>98)</sup>

2016년의 조사는 2013년의 조사에 비해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한국인들이 중요시 하는 가치관 내용은 똑같다. ‘가족’을 가장 중시하며, 2013년의 조사부터 새롭게 나타난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용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97) 中共中央办公厅 2014 《关于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意见》.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2017년 8월 기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 1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해 인식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한국인의 변화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목적임으로 2016년의 조사가 추가된 항목을 한국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항목은 ‘국제의식’ 및 ‘주요현안’이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관 항목을 설정하는 데에 고려할 부분이 될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현시(現時)적인 가치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국가	중국	한국
가치관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 융합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경업敬業, 성신誠信, 우선友善	가족 배려 국제의식 주요현안

[표 46] 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

가치관은 역동성 및 현시성(現時性)을 지닌 개념으로서 [표 --]에서 제시한 가치관들은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또한, 이는 교육 내용 자료로서의 유용성 및 유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4.2.2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구 분	2013년	2016년
기본문항	• 개인의식	• 개인의식
	• 사회의식	• 사회의식
	• 국가의식	• 국가의식(통일/북한)
	-	• 국제의식
현안문항	-	• 주요 현안

98)

[표 4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두 분야 즉 첫째,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교육 내용과 둘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중국	한국
공통된 가치관	효(감은부모), 가족주의, 공평공정, 법률 및 규칙, 우애, 근면, 성실, 책임감, 자아존중, 타인 존중, 다른 사회·공동체 존중, 체면 중시, 긍정적 태도, 애국, 자연애, 자연관, 생명 사랑(존중), 과학 사랑(윤리)	
대응된 가치관	가족사랑	가정윤리
	문명예의	예절(공공예절)
	중국인의 신앙 및 정신지주	한국인의 민간 신앙
	혼인관념 및 생활방식의 변화	결혼 풍습/문화
	심미관	첫인상
	부자자효	가부장주의
	연공서열	직장의 수직관계
	스스로 단속, 자신감	자아정체성, 자주, 자율
	단결 및 협력	협동
	공공정신	공익
	공민의식, 개방적인 국제시야	도덕적 시민, 세계시민 윤리, 인류애
	글로벌 의식	문화 다양성/국제의식
	의지 강인한 인생태도	인내
평화를 사랑	평화적 갈등 해결	
민주	인권존중	
경업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함	
다른 가치관	조인위락	배려, 주요현안, 성역할, 성윤리,
	집단의 영광 및 나라의 영광을 강조	빨리빨리, 유교 사상, 외모지상주의, 세대별 가치관, 직업관, 정(情), 한(恨), 신명, 종교, 소원,
	향토관념(고향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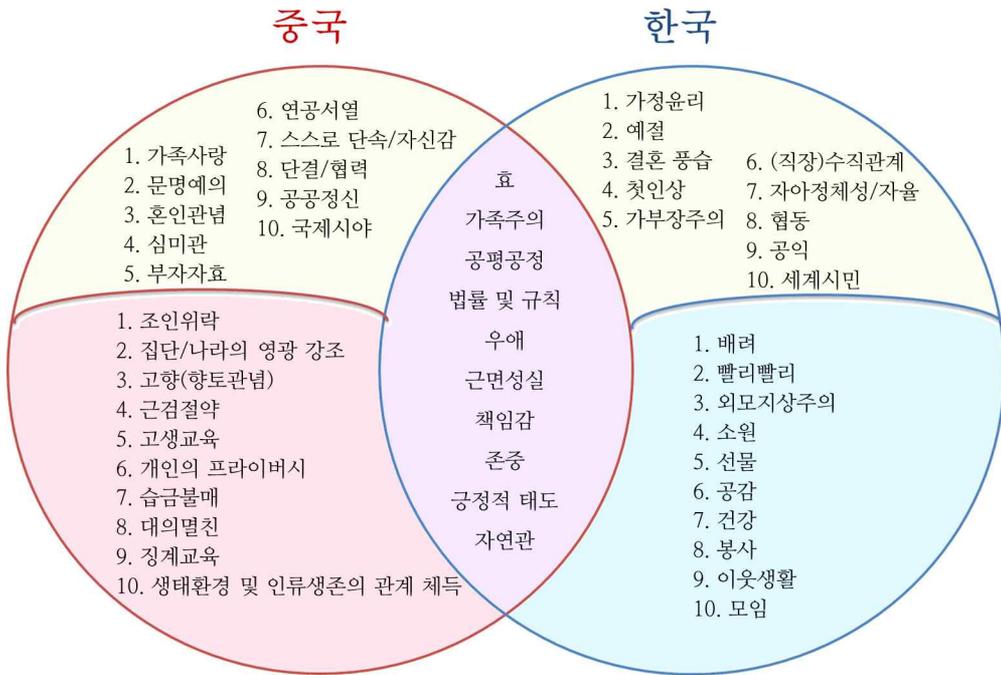
<p>근검절약(순박한 태도)  대의멸친  고생교육  징계교육  습금불매,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국과 유럽문화의 차이 비교  윗사람 존중,  포용력,  신용 지키,  생태환경 및 인류생존의 관계  를 체득,  부강, 융합, 자유, 평등</p>	<p>금기(빨간색 이름으로 쓰기/숫자 등), 풍속(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기), 직장 언어예절, 한국의 다리 떠는 습관, 남녀차별 문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한국 사회, 선물 문화, 민간요법, 직장의 회식문화, 한국의 도덕관념, 건강, 모임 문화, 은혜에 감사, 입신양명立身揚名, 응원문화, 시간 관리와 절약,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삶의 목적, 행복한 삶, 사이버 공간의 준법과 예절, 공감, 봉사, 이웃생활, 폭력의 문제, 정보통신 윤리, 사회 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윤리적 성찰,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p>
--	---

[표 47]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가치관교육 내용

둘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간 대화,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기후 변화, (보편적 가치) 정의, 평등, 존엄 및 존중, 이슈

이러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앞에 제시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의 설정 원칙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

상호문화관점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가치관교육 내용을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가치관, 연관된 가치관, 서로 다른 가치관의 도표형식으로 제시한다.<sup>99)</sup> 여기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한국 양국의 가치관을 이해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한 항목들을 뽑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양국의 교육에 있어 대표적인 가치관들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만큼 한국문화학습에 있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뒤에 한국문화교육 목표에 따른 가치관교육 모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는 1장에서 언급한 문화교육내용의 언어와 연계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문화교육의 내용이 언어수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중국인 한국어학습자에게 한국문화교육하는 데 공통된 항목에서 연관된 항목, 서로 다른 항목의 순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된 항목을 저급에서 다루었다고 해서 고급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다.

99)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교육내용이더라도 학습자의 언어수준에 따라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된 항목은 중한 양국 공통된 가치관 내용 외에 세계적으로 공감되는 내용도 포함한다. 다만 이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배치해야 된다. 또한, 문화 내용에 있어 예민한 화제<sup>100)</sup>일수록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에 대해 다루어야 학습자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때는 더욱 뒷받침 될 것이다.

가치관교육 내용인 만큼 특히 주의야 할 것은 가치관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동성 및 현시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교육 내용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사적(時事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4.3 한국문화교육 목표에 따른 가치관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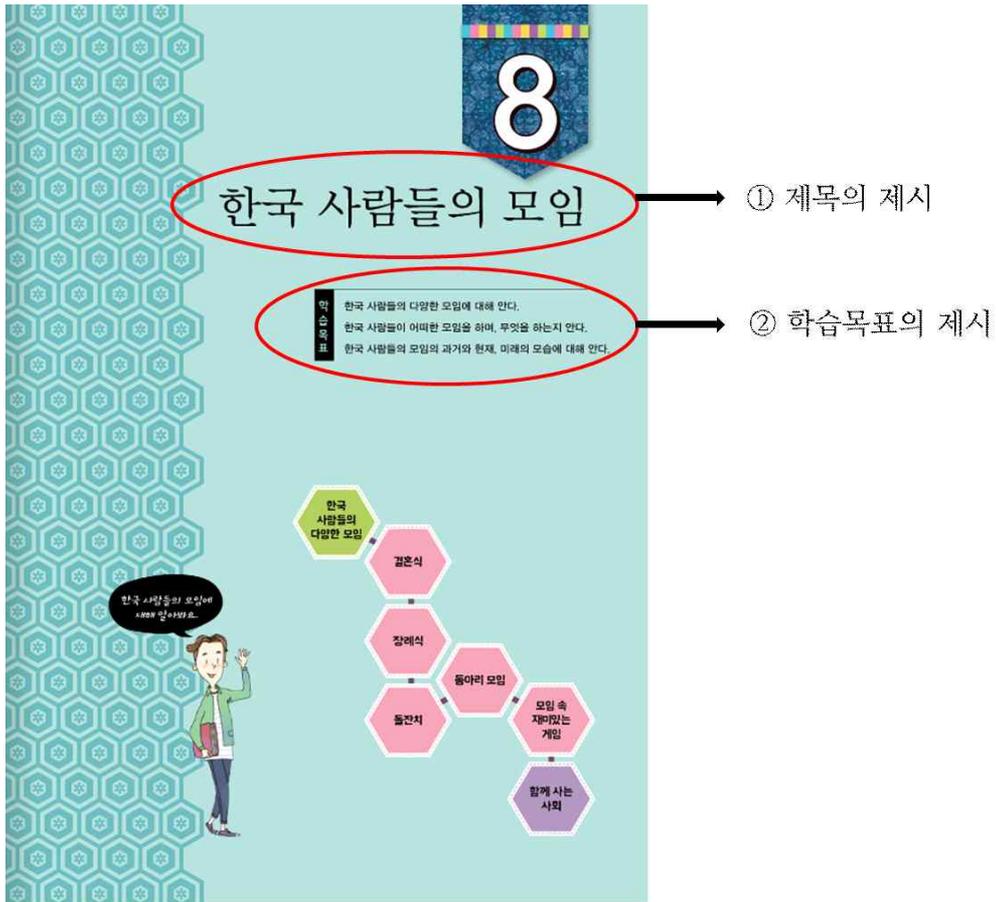
이절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의 사로(思路)’에 되돌아가 ‘어떠한’에 대한 답을 내고, ‘4.2에 제시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4.1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에 대한 간단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3장에서 제기된 한국문화교육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안이므로 3장에서 분석한 교재 중에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재를 예로 제시하며, 이는 4.1과 4.2에서 설정한 것과 대조하면서 이의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문화교육 현장에 유의미하며 실용성이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

100) 박영환(2010)는 예민한 화제일수록 더욱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혼란에 빠트리지 않게 한국어 교수자로서 더욱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다룰 필요가 있다. 이성적이고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양국 간에 건강한 문화교류를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와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시 내용은 2017년에 출판된 <세종한국문화 1>의 ‘8과 한국 사람들의 모임’으로 예를 들고자 한다. 이 과에서 제시한 한국문화의 내용, 목표 및 이에 따른 활동에 대해 4.1과 4.2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조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4] 한국문화교재의 제목 및 학습목표에 대한 제시

위의 그림은 <세종한국문화 1>교재의 8과 내용이다.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교육의 내용 즉, 제목은 ‘한국 사람들의 모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4.2에서 설정한 한국문화교육 내용(가치관교육 내용)과 어긋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은 모국 문화가 전제됨으로 제목부터 모국 문화를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 위의 제목은 한국의 모임을 주제로 하

고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문화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의 제시는 이미 일방적이고 상호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치관교육에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아닌 양쪽 나라(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주제를 제시할 때 그 주제에 양쪽 나라의 상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가치관교육 내용의 전제는 ‘한국’이 아닌 ‘특정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 가치관교육에 있어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매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다. 이를 파악해야 가치관교육에서 교수할 가치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한 문화교육에서는 특정 문화권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는 ‘특정한 주제’가 ‘한국’에 한정된 주제보다 더 상호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한국문화교육의 목표 즉, 학습목표는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에 대해 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모임을 하며, 무엇을 하는지 안다. 한국 사람들의 모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안다.’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단원의 제목과 같이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를 한국문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은 상호문화적 능력의 배양보다 한국 문화에 관한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4.1과 4.2에서 설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25]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목표 및 내용의 제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원의 제목은 한국이라는 수식어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제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단원의 제목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가치관교육은 일차적으로 양국, 혹은 두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게 된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만 중시하는 가

치관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국’ 등의 단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 모국의 문화와 상호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한국의 문화가 어떠한지 지식 이해를 먼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와 같이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제목을 제시한다.

단원 목표는 4.1에서 설정했다시피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능력, 즉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단원 목표를 제시할 때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기른다, 상호문화능력을 기른다’와 같이 상호문화능력 배양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은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을 모두 포함하게 됨으로 상호문화능력에 더하여 다양한 문화능력을 제시한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본 연구의 4.1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교재에서 활동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루뭉ski 2 장례식

한국의 장례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의식이에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의를 갖춰 행해요.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인사를 조문이라고 해요. 조문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먼저 빈소에 들어가 영정 앞에 꽃을 올리고 실을 하거나 묵념을 해요. 그 다음 상주에게 위로의 인사를 해요. 빈소를 나가면서 부의금을 내요. 부의금은 꼭 흰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요. 빈소 밖에 나와서 상주께 대접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조문은 끝나요.

“우리 나라에서는 장례식 때 어떤 조문을 할까요?”  
 “우리 나라에서도 보통 흰 봉투에 실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해요? → ③ 비교활동

● 한국 사립학교 연합회 131

[그림 26] 한국문화교재의 활동에 대한 제시

주제에 관한 활동은 대부분 ‘여러분 나라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해요?’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나라와 비교해보세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① 자기 나라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경험일 경우, 이에 학습자가 모른다고 하면 수업 진행이 종료되는 것인가? ② 제시된 문화에 대해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 모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③ 교사가 학습자가 속한 국가의 문화를 모른다는 조건 하에 문화 비교를 하였으나, 이 조건에서 학습자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이 비교 활동에 그친다면 기대

할 수 있는 학습효과가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의문을 가지고 교재에서처럼 단순한 비교를 하는 활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제 교수·학습이 진행의 흐름 혹은 틀 정도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가치관과 같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은 개인의 힘으로 제시하는 것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협애(狹隘)성을 지닐 것이다. 이를 최대한 줄여 문화 다양성을 존중, 상호문화관점에서 출발하여 교수·학습이 진행의 틀을 제시해 본다. 이는 한국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여겨, 더불어 교수·학습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수업하는 것을 ‘케이크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한국문화수업에 접근하는 데에 새로운 발상을 제안하고자 하며 한국문화교육에 있어 이는 유의미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문화수업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교학상장(敎學相長) ↔ 상호
- ② 학이치용(學以致用) ↔ 활용
- ③ 지상담병(紙上談兵) ↔ 실천

① 교학상장(敎學相長)은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첫째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學業)을 증진(增進)시킨다, 둘째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자신의 공부(工夫)를 진보(進步)시킨다는 뜻을 지닌다. 교학은 교와 학의 상호작용이다. 교사와 학생의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며 서로 계발(啓發)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감정을 교류하여 공동적으로 인식함, 함께 누림, 함께 나아감을 달성한다. 이어서 교학상장 및 공동발전을 실현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자기 나라와 비교해보세요’ 활동에 대한 교수자가 학습자가 속한 나라의 문화를 모를 경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의문에 대응할 수 있다. 문화수업에서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하여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② 학이치용(學以致用)은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잘 알려져 있는 지식이지만 실제 활용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의문인 학습자가 문화학습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응한다.

③ 지상담병(紙上談兵) 지면상으로 군사 전략을 논한다는 뜻이다. 이를 이론을 공담(空談)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량들을 ‘어떻게’ 획득하는 문제가 남았다. 그것이 바로 실천이다.

여기서의 ‘실천’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데도 적용된다.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목표로만 설정하여 실제 문화수업에서 역시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 예를 들자면, 언어교육에서 목표 어휘 및 문법을 습득하기 위해 목표 어휘 및 문법을 수업 내내 반복하여 연습하고 학습한다. 교재의 문장에서 활동에서 교수자의 발화에서 여러 면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진행한다. 이는 목표 어휘나 문법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교육에 있어 목표 상호문화적 능력을 습득하려면 어휘나 문법의 반복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과 같이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목표 능력을 문화수업 내내 반복하여 교재든 활동이든 교수자의 발화에서든 연습하고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가져야 할 능력을 학습하게 되고 습득하게 될 것이다. 문화 수업에서 문화의 지식만 강의하여 능력에 대한 훈련 없이 문화교육의 목적에 도달할 수 가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쁘다’라는 단어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운 경우, 교재에서 지미가 예쁘다/꽃이 예쁘다 등을 제시하여 활동에서도 ‘\_\_예쁘다’의 문제를 제시하여 연습한다. 문법인 경우에도 문법 ‘-(으)면 좋겠다’ 학습하는 수업에서는 교재의 정문(正文)에서도 ‘짧고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문법 설명하는 부분에

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또한, 활동 부분에서 밑줄 치고 ‘\_\_\_(으)면 좋겠다’의 연습도 한다. 그러나 실제 교재에서는 학습 목표와 제목에서 이러한 단어와 문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보았다. 문화교육, 가치관교육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재의 단원 목표와 제목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학습자는 제시된 목표를 통해 교수자와 교재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문화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틀을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하여 제시한다. 교수·학습이 진행되려면 우선 밑바닥이 되는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한 층 한 층에 노력을 투여하고 공을 들여 협력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여 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1단계

이는 케이크의 받침대와 같이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수업 목표(즉, 상호문화적 능력),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그림 27] 교수·학습의 1단계 - 교육 내용(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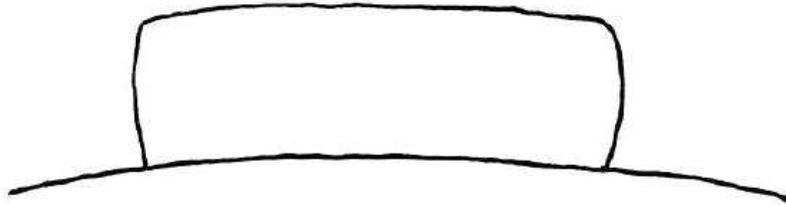
수업 시작할 때 교수자가 수업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주제) 및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 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 주제: 효(孝)
- 학습 목표: -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다.  
- 갈등 및 충돌 해결 능력을 갖춘다.  
-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춘다.

물론 주제 및 학습목표는 학습자의 변인 혹은 학습수준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 주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도 자신이 이 수업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것(주제 및 상호문화적 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제시된 목표를 통해 교수자와 교재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2단계

이는 케이크의 첫 단계를 만드는 단계로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활성화시킨다. 이에 이어 케이크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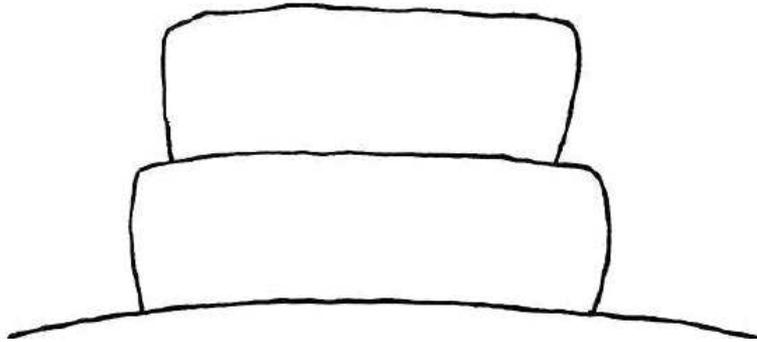
[그림 28] 교수·학습의 2단계 - 교육 내용 활성화

이 단계는 교수학습에 준비 및 계획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교수자가 수업의 계획을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수업을 어떠한 계획, 어떠한 단계를 걸쳐 진행할 것이다. 이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에 대해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수업 진행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게 되면 학습자가 스스로 머리 속에서 학습 내용에 대해 체계화 시켜 학습하는 데에 유의미할 것이다.

앞으로의 교수학습을 진해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매우 정확하여 규범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즉, ‘효’에 대한 개념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 등이다.

### 3단계

이 단계는 앞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 및 계획에 따라 본질적으로 자료 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통하여 계획대로 의무처리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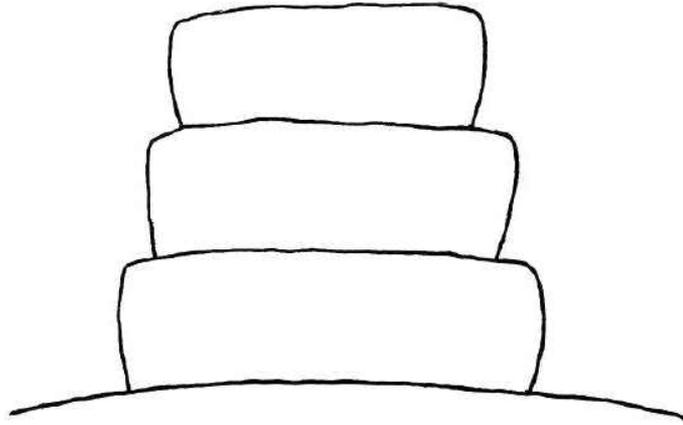
[그림 29] 교수·학습의 3단계 - 자료 수집

이 단계에서는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다양한 상호문화적 능력들을 출동시킬 수 있으며, 1단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능력 외에 다양한 상호문화적 능력들을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주제 ‘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책이나 인터넷/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함께 훈련하게 될 수 있다. 물론 교수자가 참고 혹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수단을 제공(혹은 제안)해주는 것이 교수학습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교수자의 인도(引導)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도적 능력 등과 같은 능력도 훈련될 수 있으며, 조별로 활동할 때는 협력과 같은 능력도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만 일방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도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효’에 대한 자료는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의 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효에 관한 자료는 교수자에 의해 수집하면, 이는 각자의 장점을 이용하여 또한, ‘효’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상호문화적 접근에 적합한 것이다.

## 4단계

이 단계는 실천 단계이므로 앞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한 수정, 비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단계이다.



[그림 30] 교수·학습의 4단계 - 과제의 정리

이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해 처리하는 단계임으로 3단계보다 더 심층적인 능력들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 혹은 경청 능력도 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제 혹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 능력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라보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능력도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의 효를 소개하여 설명한 다음에, 입장을 바꾸어 한국의 효에 대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학습자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이에 참여하여 학습자의 모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지식(가치관에 한하면, 현시(現時)적인 가치관)를 습득하게 될 것이며 상호문화적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5단계

이 단계는 마무리 단계이므로 교수학습에 대해 종합하여 평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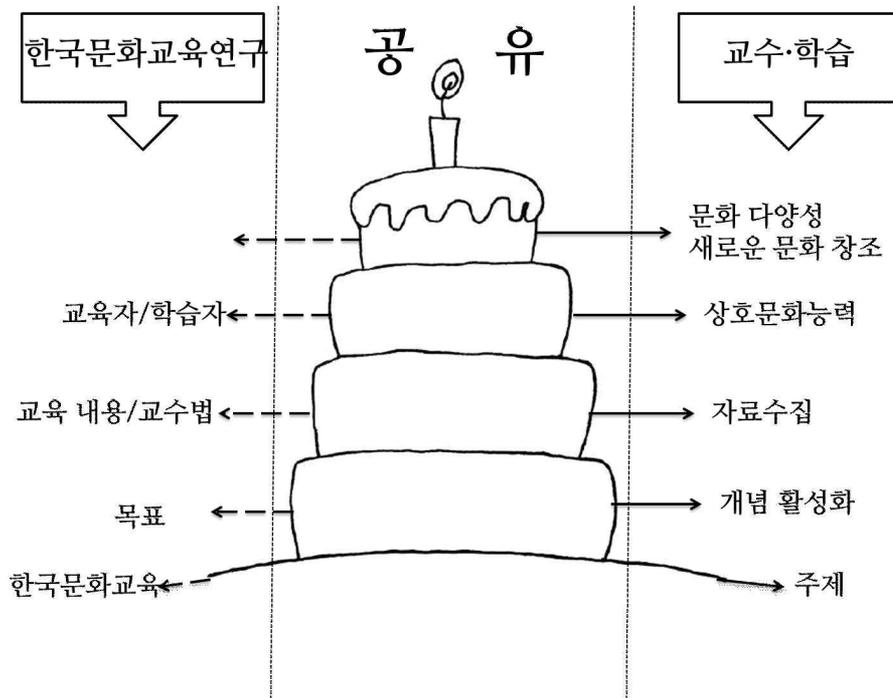


[그림 31] 교수·학습의 5단계 - 마무리(평가)

이 단계는 마무리 단계이다. 앞에 네 단계를 걸쳐 효 및 상호문화적 능력에 대한 학습은 종합하여 평가한다. 학습을 통해 수업의 목표인 정보 처리 능력, 갈등 및 충돌 해결 능력 그리고 상호문화적 관점을 어느 정도 습득되는가에 대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에서 제시된 주제와 목표에 따라 학습자가 스스로 이에 대해 습득 정도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문화적 능력에 대해 한번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을 통해 습득된 능력이 적극적으로 실제생활에 적용하여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계 교육방향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발전에 해당한다.

## 교수·학습의 결과물



[그림 41]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교수·학습의 결과물

앞 단계들을 걸쳐 학습자 및 교수자가 협력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나중에 교수·학습에 가치 있는 참고나 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 원시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자료이다.
-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만들진 자료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에 해당하다. 특히 가치관교육 내용에 있어, 가치관의 현시성 및 역동성에 따라 이에 관련 교육 자료도 현시성 및 역동성을 가져야 적절한 것이다.
- 케이크 이론의 과정은 동시에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101)</sup>

## V.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 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의식적·능동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가치관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바라보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문화의 중계자 역할을 발휘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국제화 및 다원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위론과 원칙론에 치우쳐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문화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며 ‘어떠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적 접근은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진정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을 이루려면,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정부터 상호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논리에 맞는 것이며, 실제 문화교육을 시행할 때에도 교육 목표에 이탈하거나 감가(坎埒)된 상황을 감소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문화교육의 목표를 문화 지식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이를 교육 대상인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문화내용이 한국어능력과 연계되어 수준별로 제시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

101) 강승혜 외(2010)에 따르면,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문화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이다.

가치관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문화교육 목표와 가치관교육 내용의 분석 및 설정하는 데 모두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이를 병행(並行)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여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였고 이는 모두 중국과 한국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목표의 상호문화적 능력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 연구의 상호문화능력과 구별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넷째,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역시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양국의 외국인과 자국인을 위한 교육과정(즉, 국제통용표준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크게 총괄 목표와 상호문화적 능력, 이 두 가지로 설정된다. 이 중 교수·학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목표는 상호문화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과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을 주로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용어인 상호문화적 능력은 기존 연구의 상호문화능력과 구별하여 사용하며, 이는 상호문화능력과 문화능력으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교육에서는 이를 상호문화능력과 함께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중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에 따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가치관교육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분류하거나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과 자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 다루지는 가치관 내용을 추출하여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중국과 한국 관계 속에서 다루어 설정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접할

때, 중국문화와 유사한 내용부터 학습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입각하여 설정한 한국문화교육 목표 및 가치관교육 내용을 연결하여, 기존 연구과 현행 한국어(문화)교재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кей크이론(즉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가치관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치관교육인 만큼 교육 자료로서의 특수성이다. 또한, кей크 이론의 과정은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하는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다.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가치관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국문화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며 유의미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보다 더 다양한 문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학습자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육에서의 가치관교육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며 유의미한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제시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승혜 외. (2010). 『한국문화교육론』. 서울: 형설
- 강현화. (2007).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방안. 『언어와 문화』, 3(2), pp85-115.
- 교육과학기술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2015 세계교육포럼 공식 폐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보도자료. 2017년 8월 기준.
- 국립국어원. (2013). 『세종한국어 1~4』. 서울: 하우
- 국립국어원. (2014). 『세종한국어 5~8』. 서울: 하우
- 국립국어원. (2017).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
- 국립국어원. (2018).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 국립국어원. (2018). 『표준국어대사전』
- 금지아.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비교문화 방법론을 적용한 교육방안 개발. 『국어교과교육연구』, 17, 7-36.
- 김경숙, 라혜민. (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韓國思想과 文化』, 59, 473-496.
- 김광수. (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요소의 주입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태학사
- 김규진. (2012). 중국대학 내 한국어과 문학 관련 수업의 현황과 실제: 한국 문학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5, 181-205.
- 김동환. (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國語教育學研究』, 35, 189-212.

- 김병석. (2010).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韓國外國語大學 學校 教育大學院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 (1989). 『휴먼 라이브러리 문화 차이와 인간관계』. 普成社. (에드워드 스튜어트 Edward Stewart)
- 김순임. (2005).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 『독일언어문학』, 29, 97-129.
- 김인경. (2011).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유형의 적절성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교육한글』, 10, 317-326.
- 김종철. (2010).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133, 399-367.
- 김태운. (2017). “한국어 문화 교재의 주제 분류 및 방향 제시 :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신. (2016).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와 한국문화 교육, 『韓國思想과 文化』, 85, 505-532.
- 노금숙. (2010).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수업: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 김소월 시와 마야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國語教育學研究』, 38, 155-176.
- 누리-세종학당. (2017). <http://www.sejonghakdang.org/sjcu/home/main.do>. 2017년 8월 기준.
- 대한민국정부. (2017). 새천년개발목표. <http://ncsd.go.kr/app/sub02/19.do>. 2017년 8월 기준.
- 대한민국정부.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ncsd.go.kr/app/sub02/20.do>. 2017년 8월 기준.
- 동연, 한정환. (2015). 중국 내 응용형 대학의 한국어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2), pp195-233.
- 라민혜, 우인혜. (2001). 중급교재 내의 문화교육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1차 국제 학술회의』, pp163-174.

- 런샤오리. (2013).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아시아문화연구』, 29, pp35-60.
- 로문봉.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목적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만춘기, 김순임. (2010). 상호문화 소통능력 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구상 연구.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49, pp65-87.
- 문영재(2006),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접근, 한국어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접목에 관하여. 『한 국어교육 연구』 4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http://www.mcst.go.kr/main.jsp>
-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 민현식. (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0-2, pp429-452.
- 민현식. (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1), pp59-103.
- 박갑수. (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 박갑수. (2015). 『교양인을 위한 언어·문학·문화, 그리고 교육 이야기』, 역락.
- 박수연, 양혜경, 장은정. (2015).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영순. (2001).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 (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 박영순.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박영환. (2011). 문화현상으로 본 현대 한중문화의 교류와 충돌. 『中國學報』, 63(63), pp95-118.
- 박용권. (2003). 문학 텍스트와 변용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 협동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5, pp231-267.
- 배재원. (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현숙. (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21), pp177-198.
- 백봉자(2004),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 대회』,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변주영, (2015), “한국 문화 교육 항목을 활용한 중급 교재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경혜. (2013).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가치체계 연구 : 드라마를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서영빈. (2009). 한국문화교육, 그 이론과 실제의 거리. 『한국어문학국제학술 포럼 학술대회』, 2009(7), pp17-25.
- 서영영. (2015).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서옥란, 김송죽. (2012).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 pp131-149.
- 서울공자아카데미. (2017). [www.cis.or.kr/main.htm](http://www.cis.or.kr/main.htm)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 서 준. (2015). 한국어 문화어휘의 중국어 번역 연구: 프레임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 홍보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박사학위논문.
- 성기철. (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2(2), pp111-135.
- 세종학당재단. (2017). 『세종한국문화 1』. (주)다락원
- 손 정. (2012). “중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TV드라마 <옥탑방 왕세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경. (2004). 문학교재 개발 기준과 선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pp441-450.
- 심민아.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방안”. 이화여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해정 외. (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연구보고RR 2016-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산. (2015).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학문화교육 교재 개발 연구: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정은. (2016). “한국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한국어 교재 개발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애. (2011).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염근. (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 문헌신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于超群. (2012).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 중국 대학 한국어과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응용언어문화학 협동과정 문화콘텐츠전공 석사학위논문.
- 우흠혜. (2017).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의 현황 분석과 교육 내용 설계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교육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2016 세계교육현황보고서 요약본(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수연. (2008).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유수연. (2015). 『언어, 문화, 상호문화 의사소통』. 서울: 한국문화사.
- 유우희. (2016). “한·중 가족 드라마에 나타난 고부 갈등 비교와 문화적응의 의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 (2015). 국어교육,한국어교육 :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34, pp429-464.
- 유현정. (2015). “문화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柳賢貞. (2016). 韓國文化 敎育을 위한 文化 知識 分類 方案 研究. 『語文 研究』, 44(2), pp427-455.
- 윤여탁. (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pp1-22.
- 윤여탁. (2002). 한국어 문화 교수론,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 문화사
- 이기동. (2014). 한국인의 예술정신과 미의식. 『韓國思想과 文化』, 82, pp221-245.
- 이 름. (2016).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 『한국언어문화학』, 1(1), pp143-163.
- 이미혜. (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실제. 『한국언어문화학』, 2(1), pp185-206.
- 이상억. (2009). 『한국어와 한국문화』. 소통.
- 이석주. (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회』, 21, pp19-43.
- 이수범. (2000).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 言論學報』, 44(2), 186-214.
- 이윤정. (2018). 다문화이해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이인순, 허세립. (2013). 중국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4년제 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7, pp361-386.
- 이향주.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어휘 선정 및 교육 방법 :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 이 호. (2016). 중국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전망. 『국어문학』, 61, pp341-364.
- 이희원. (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선정과 교수학습 방

- 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경순. (2008). 한국문화 이해론 서설. 『선청어문』, 36. 서울대 국어교육과.
- 임경순. (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한국문화의 이해』. 서울: 한국의 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경순. (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역락.
- 임 상. (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 조지훈의 시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4(2), pp183-213.
- 임희섭 외. (2002).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자 란. (2016). “한중 양국의 대외 자국어교육 비교 연구 : 한국의 세종학당과 중국의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미. (2015). 중국내 대학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과 학습자들의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pp413-433.
- 장의선, 이소연, 강민경, 한건수. (2016).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천위. (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방안 :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한업 역. (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 지음 . 한울아카데미
- 장한업. (2011). 『(개념과 활용) 상호문화 이해하기』. 파주: 한울.
- 장한업 역. (2012).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사회』. 질 베르분트 저. 파주: 교육과학사
- 장한업. (2017).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비교연구. 『比較教育研究』, 27(1), pp1-21.
- 장한업. (2018). 20세기 ‘상호문화 담론들’에 대한 비교 고찰. 『비교교육연구』, 28-3, 265-289.
- 장혜림. (2011).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과제: 한국어학과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교육』, 5(1), pp109-129.
- 정수연. (2014).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동,서양권에서의 한류문화현상과

- 발전방향. 『韓國思想과 文化』, 73, pp407-433.
- 조공호(2013), 한국 집단주의의 특성은 무엇인가, 서울, 21세기 북스.
- 조은희. (2003). “韓國語 教材의 文化 教育 內容에 대한 研究”.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석사학위논문.
- 조정순. (2013). “한중 언어문화 교육내용 대조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항록. (1998). 한국어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방안. 『한국어 교육』, 9(2), pp223-237.
- 조항록. (2000). 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1(1), pp153-173.
- 조항록. (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試論). 『한국언어문화학』, 1(1), pp199-219.
- 조항록. (2010).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 교재, 평가, 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조현용. (2003). 한국어문화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22), pp345-366.
- 진강려. (2012).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중국 S대학교 한국어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1), pp247-270.
- 진송철. (2014). “어학원에서의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 중국 칭다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진정정. (2016). “중국인을 위한 문화 주제 중심 한국어 어휘적 연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陳煥常. (2013). “한국어 정보문화 교육 항목 선정 및 교육 방안 :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갑부. (2014). 『평생교육론(제2판)』. 교육과학사.
- 차이원. (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주원문화.

- 최성욱. (2015).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 행정논집, 27-4. pp1011~1032.
- 최윤희, 김숙현. (199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범우사.
- 최주열, 김명권, (2013),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대한 고찰: 외국인 단기 연수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2), pp317-343.
- 파 려. (2014).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문화교육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 선. (2011). “문화간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 정보미디어.
- 허 신. (2016). “중국내 한국어 문화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형 퇴. (2016). “초중급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비교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호서대학교 국어국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혜준. (2004).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國語教育學會』, 21, 5pp29-555.
- 황설운. (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설계 연구”.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 (2017). 한국어 교실에서의 상호문화 관점의 실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9-17.

## 2. 국외문헌

-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 (2017). <http://www.hanban.edu.cn/>
- 国家汉办/孔子学院. (2005). 『长城汉语 1~6』. 北京语言大学
- 国务院侨务办公室, 国家汉办. (2007). 『中国文化常识』. 高等教育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12). 『义务教育新课标(2011年版)』. 北京师范大学出版社.
- 金秉運, 吳相順. (2008). 目前中國大學韓語教育的主要問題及解決的方案. 『黑龙江民族丛刊』 05.
- 金淑林. (2010). “散居朝鮮民族認同與民族語言教育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論文.
- 朴春燕. (2010). 韩语专业学生对韩国文化认识与学习需求分析[J]. 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02.
- 刘宝全. (2014). 韩流在中国的传播及其对中韩关系的影响. 『当代韩国』 01.
- 李奎泰. (2012). 當代韓國“中國學”與中國“韓國學”之比較. 『当代韩国』 02.
- 李得春, 刘娟. (2006). 韩国学 and 中国的韩国学. 『东疆学刊』 03.
- 李忠辉, 肖霞. (2012). 中国韩国学研究的现状、特征与趋势—基于1998~2010年CSSCI数据. 『当代韩国』 03.
- 朴光海. (2016). 论中国人看待韩流的文化心理. 『当代韩国』 04.
- 朴光海. (2016). 中韩人文交流: 维系两国关系的稳定器—记2016年中韩人文交流政策论坛. 『当代韩国』 03.
- 朴正元. (2014). 韩中文化交流现状与展望——以出版业为例. 『当代韩国』 01.
- 张 驰. (2013). 第九届中国韩国学博士生论坛综述. 『当代韩国』 02.
- 程书秋, 郑洪宇. (2008). 对外汉语文化教学研究述评. 『继续教育研究』 03.
- 陈柏霖, 黄京华. (2015). 中韩学术对话: 基于当下两国相互研究现状的思考. 『当代韩国』 02.
- 袁贵仁. (2013). 价值观的理论与实践——价值观若干问题的思考. 北京师范大学出版社.

- 杨 耕. (2015). 价值、价值观与核心价值观.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01.
- 黎 凡. (2011). 对外汉语教学中文化教学的内容及策略.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 杨中芳 (1994). 《中国人真是集体主义的吗? - 试论中国文化的价值体系》, 《中国人的价值观-社会科学观点》, 台北: 桂冠图书公司, p p321-392.
- 胡文仲. (1994). 《文化与交际》,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戴海英. (2011). 在高职公共英语教学中引入文化教学模式的探讨, 赤峰学院学报(科学教育版) 3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2016).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18). 『普通高中思想政治课程标准(2017年版)』. 人民教育出版社.
- 陈柏霖, 黄京华. (2015). 中韩学术对话:基于当下两国相互研究现状的思考. 『当代韩国』 02.
- 黎 凡. (2011). 对外汉语教学中文化教学的内容及策略.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 杨中芳. (1994). 中国人真是集体主义的吗? - 试论中国文化的价值体系. 《中国人的价值观-社会科学观点》, 台北: 桂冠图书公司, p321-392.
- 胡文仲. (1994) 《文化与交际》,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戴海英. (2011). 在高职公共英语教学中引入文化教学模式的探讨. 赤峰学院学报(科学教育版) 3-1.
- 黄志成, Juergen Henze. (2013). 跨文化教育:一个新的重要研究领域. 『比较教育研究』, 第9期, 总第284期.
- 王 强. (2016). 外语教学中的跨文化能力教育理念——Michael Byram教授访谈. 《中国外语》03期.
- 郑晓红. (2018). 跨文化交际视角下的教材评价研究——与Michael Byram教授

- 的学术对话及其启示. 《外语界》02期.
- 龙滨, 李雪艳. (2013). 对当前我国跨文化教育的几点思考. 《吉林省教育学院学报·上旬刊》04期.
- 韓相福, 李文雄, 金光億. (1985). 『文化人類學概論』. 서울大學出版部.
- Arslan, Hasan & Rata, Georgeta. (2013).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Brooks, Nelson(1975).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arol R. Ember·Melvin Ember. Cultural Anthropology 13th Edition. 양영균 옮김(2012), 『문화인류학 제13판』,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Chen, G. M. (1989). *Relationships of the Dimens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7
- Chen, G.-M., & Starosta, W. (1996). Intercultural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19, 353-383.
- Claire Kramsch. (2017). *The Future of 'Culture' in Second/Foreign Language Classroom Settings*. U.C. Berkeley,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Darla K. Deardorff(ed.). (2009).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Derek Bok.
- Edward Stewart. (1961). 휴먼 라이브러리 문화 차이와 인간관계. 김성경 편역, 1989, 서울: 普成社.
- Edward T. Hall. (1959). *Beyond Culture*. 최효선 옮김(2000),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 Elain Baldwin 외 4명.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 Geert Hofstede·Gert Jan Hofstede·Michael Minkov.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나은영, 차재호 옮김(2010),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Kluckhohn & Strodtbeck.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Row, Peterson.
- Larry A. Samovar·Richard E. Porter·Edwin R. McDaniel·Carolyn S. Roy.  
(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이두원 외 옮김(2015),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Maddalena de Carlo. (1998). (L')interculturel. Paris: CLE International.
- Martine Abdallah-Pretceille. (2004). (L')education interculturelle.
- Merriam-Webster Dictionary. (2018). <https://www.merriam-webster.com/>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Compact Oxford Dictionary and Thesaurus*, OXFORD.
- Philip Smith. (2003). *Cultural theory : An Introduction*(Blackwell Publishing).
- Raymond Williams. (1976). *Key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ymond Williams. (1983). *Keywords*, London: Fontana. p87.
- Seelye, H. Ned. (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Tomalin, Barry & Stempleski, Susan. (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ESCO (1992)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43rd Session,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Cultural Development*.
-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 cf. also the definition given in the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 Valette, Rebecca M. (1995). *The Culture Test*, in Valdes, Joye Merrill,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unt, Gilles. (2001). *(La) Sociéte> interculturelle : vivre la diversité humaine*
- White, L. A. (1973). *The Concept of Culture*. 이문웅 역, 『문화의 개념』,

일지사.

World Values Survey. (2018).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Yves Chevrel. (1989). *La littérature comparée*. 박성창 옮김(2002).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 ABSTRACT

### Values Education i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tercultural Approach

LIU, FE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intercultural ability that can be applied consciously and dynamically to everyday life, not only to Chinese learners acquire cultural knowledge through the education of valu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tercultural approaches. Through the education of values, we expect Chinese learners to develop their ability to view Korean culture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objectively recognize Chinese and Korean culture, play the role of a relay of culture, and further interpret it from a diverse perspective as a global citizen.

Most of the studies on Korean cultural education are focused on rationalism and principle theory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go a little further to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these existing prior studies to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Therefore, we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 problem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provide specific answers to what goals we achieve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A cross-cultural approach to cultural education is needed. In order to achieve cultural education through a true intercultural approach, intercultural approach from the setting of cultural education goals and content is logical, and professors and learning can be carried out more smoothly by reducing situations that deviate from or decrease the educational goals even when actual cultural education is conducted.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target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content of value-viewed education'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When existing studies discuss cultural education, the goal of cultural education is mostly focused on cultural knowledge, and this is dealt with unilaterally without considering the modalities of learners to be educated. The problem is that the contents of the culture were presented by level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studies, this study specifically defined the objectives and value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a intercultural approach.

In this proces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existing studies can be summed up in four ways. First,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parallel on the basis of a intercultural approach in both the objective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the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the contents. Second, the Korean cultural education targets and values education contents were set up in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changes, all of which were don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Third, he proposed the term "intercultural capability" for the goal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through a intercultural approach. This concept

is a broader concept that distinguishes it from existing research's intercultural capabilities. Fourth,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 China and Korea was identified in order to set the goal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contents of value-oriented education.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this was also obtained through the curriculum for foreigners and their own people in both countries (i.e.,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The goal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through intercultural approach is largely set up with a general goal and a cultural ability. Among them, the specific goals to be presented in professors and students can be seen as intercultural ability. Because the purpose of culture education is to enable learners to have various skills. In existing research and intercultural education, the focus is on intercultural capabilities. The terms presented in this study, intercultural capability, are used separately from existing research capabilities, which consist of intercultural and cultural capabilities. This is because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ers requires intercultural ability since the ability of learners to understand and perform their native culture is a critical factor. Intercultural capability is addressed in Chinese and Korean relations, and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eculiarities of Chinese learn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provide more effective customized education to Chinese learners.

The content of value-oriented education through a intercultural approach was set up by co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according to Chinese learners. Traditional research is generally focused on classifying the values of Koreans or studying the value system of Koreans. To cope with this, the contents of values covered in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ers in China and Korea and cultural education for their own people were extracted and set up i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based on a intercultural approach. When Chinese learners

come across Korean culture, they can expect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if they learn something similar to Chinese culture.

The cake theory (i.e. a class model) was presented by linking the objective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contents of the value-oriented education set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to complement the problems existing in existing research and current Korean (culture) textbooks. The results produced through these classes could be used as value teaching materials. It is a value-conscious education and is unique as an educational material.

The results of the study on value-oriented education based on a intercultural approach are applied at the site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expect to be meaningful data. The study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 through a intercultural approach expects more diverse cultural contents to be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diverse learners.

Key words: intercultural, values, value-education, intercultural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approach, Chinese-Korean relations, Chinese values, Korean values